평화도시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평화도시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

발 간 사

인천광역시는 8대 특·광역시 중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특히 해상 북방 한계선(NLL)과도 바로 인접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등을 통해 남북간 긴장상태가 악화될 때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반면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고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에는 평화의 마중물로서 무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 또한 바로 강화와 옹진, 인천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인천은 남북평화시대를 이끌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소수 전문가나 관련 단체가 주도하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양하고,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이라는 전략 아래,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평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 그러한 인천의 흔들리지 않는 기조입니다.

지방정부로서 여러 한계도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4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지방정부로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존 조례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 관계 극복 및 국내외적 평화 메시지 확산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또한 천명한 바 있으며, 2019년 전국 최초의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서해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그 핵심으로서 인천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2005년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북한 참여 성사를 시작으로, 남북축구대표팀 친선경기대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유소녀 축구대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2000년 용천참사 지원 이후, 초기에는 주로 밀가루, 옥수수, 분유 및 우유 등 식료품과 의약품 및 위생

소독 약품 등의 지원 등 일반구호성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다가, 이후 점차 의료기기, 건축재료, 냉온풍기, 냉장고 등 시설 현대화 설비 지원 사업 등 개발 구호성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2011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인천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온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에는 인천시장을 비롯한 42명의 지역인사들이 최초로 공식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007년 11월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양건 부장이 인천을 방문하는 등 대북사업에 있어 괄목할만한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북한 핵 사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남북관계가 파국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인천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교류, 협력을 모색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면서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세계적 수준의 교통·물류 인프라 활용을 통해 대북 교류의 관문이자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에는 남북평화를 위해 기울였던 인천의 여러 노력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300만 시민 여러분과 인천광역시의회, 협력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평화를 견인할 기초자료로서 소중히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축 사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입니다.

먼저, 평화도시 인천의 남북교류 평화백서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백서 제작을 위해 애쓰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특·광역시 중 유일한 남북접경인 강화와 옹진을 품고 있기에 평화의 바람을 가장 먼저 맞는 평화의 출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은 평화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때로는 훈풍이, 때로는 냉풍이 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는 주저 없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천에 있어 평화란 늘 '약한 촛불'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인천 연평도에 포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지전이나 다름없는 일이 발생했고, 남북관계는 급격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천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고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을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인천시, 인천시의회, 시민사회와 손을 맞잡고 기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핵심도시 인천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조직개편 시 남북협력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지방정부로는 세 번째로 남북협력 전담부서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인천이 대한민국 평화국제도시 건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평화국제국 신설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의회와 영흥도 앞바다 경기 바다호 선상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한강하구 활용 공동추진을 위한 평화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화로 향한 발걸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선언이나 다름없는 10.4선언에 담겨있는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는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일수록 '작은 일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모든 과정이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지난 20년간 인천의 발자취가 담긴 '평화백서' 또한 평화로 가는 길에 한 획을 긋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한 역사는 5천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합니다.

함께한 지난 5천년의 역사가 평화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되듯, 지난 20년간 평화를 향해 걸어온 인천의 발걸음은 평화도시 인천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3년이 흘렀음에도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으로 향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벅찬 감동을 품고 하신 말씀으로 평화를 향한 인천광역시의회의 결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백서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 은 호**

축 사

남북교류 평화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북평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해온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인천광역시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에 발맞추어 인천의 문화, 예술, 역사에 기반한 남북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임진예성포럼 및 황해도 학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남북교류사업TF를 구성하여 인천시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조사 및 인천의 평화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을 재단 내에 신설하여 인천의 각종 문화 자원을 평화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문화·예술·역사·생태를 융·복합한 사업의 추진으로 평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화 시도, 정세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남북의 교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다자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교류의 지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형 남북교류 사업의 발굴 및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 병 국**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청년학생협력단(2005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청년학생협력단 응원(2005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청년학생협력단 응원(2005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청년학생협력단 응원(2005년 9월)

출처 : 인천일보

개성공단 생산품 인천항 첫 출항식(2006년 3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북측 최고위 간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방문(2007년 11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북측 최고위 간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방문(2007년 11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평양시체육단축구장 기증식(2007년 11월)

출처 : 인천일보 이주영기자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북한 4.25축구팀과의 친선경기(쿤밍)(2007년 12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신문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북한 4.25축구팀과의 친선경기(쿤밍)(2007년 12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신문

북한 수재민 구호품 선적식(2008년 8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강화 평화전망대 개관식(2008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평양시 제1인민병원 구강병동 준공식(2008년 10월)

출처 : (사) 인천겨레하나

평양 제1인민병원 내 구강병동(2008년 10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신문

평양시 제1인민병원 구강병동 내부를 살펴보는 중(2008년 10월)

출처 : (사)인천겨레하나

의료지식 교류(2008년 10월)

출처 : (사)인천겨레하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제 포럼 개최(2009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북한 평양산원 영유아 산모 지원'물품 선적식(2010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북한 수재민을 위한 인천쌀 보내기 시민운동 출범식(2010년 11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경기도-인천광역시 남북공동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2011년 5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단둥축구화공장 준공식(2011년 11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제2회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2012년 2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신문

제2회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2012년 2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신문

서해평화정책포럼 1차 회의 개최(2012년 7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연평도 안보교육장 준공식(2012년 11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2015년 평화·통일 민간단체 간담회(2015년 10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인천광역시 통일관 재개관식(2016년 1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2016년 2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2018년 7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인천통일플러스센터 개소식(2018년 9월)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목 차

제1장 총론

1. 백서 편찬의 배경과 목적 ····· 29
2. 백서의 구성과 내용 ····· 31
3. 백서 발간 이후 ····· 34

제2장 남북교류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방향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39

1.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 39
2.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 ····· 42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 46
   1) 2004년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인천 기념행사(민선 3, 4기) ····· 46
   2) 5.24조치 이후 인천의 남북교류(민선5, 6기) ····· 48
   3)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민선 7기) ····· 50

제2절 사업추진 방향 ····· 52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 52
2.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 ····· 57
3.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한계 ····· 61

제3절 남북교류 사업의 제도 현황 ····· 63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과 조례 ····· 63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 63
   2)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 65
2.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과 지침 ····· 68
   1) 인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 ····· 68
   2)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 69
   3)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침 ····· 72

제3장 남북교류 사업의 분야별 추진 현황

제1절 인적교류 ····· 77

1.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우리민족대회 ····· 79
2.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 84
3. 그 밖의 인적교류 ····· 89
   1) 광복 60주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 ····· 89
   2) 화해와 평화를 위한 1만 2천인 금강산 기행 ····· 92
   3)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준공식 및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사업 현장방문 ····· 93

제2절 인도적 지원 ····· 95

1.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 95
2. 인천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 96
   1) 긴급 구호 및 물자지원 ····· 98
   2)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 100
   3) 개발 구호성 기반시설 설립 지원 ····· 102
3.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방향 ····· 104

제3절 스포츠 교류 ····· 106

1. 인천의 체육 교류사 ····· 106
   1) 인천 남북 체육 교류는 현재형 ····· 106
   2) 주요 인천 남북 체육 교류 ····· 107
2. 인천의 주요 남북 체육 교류 사례 ····· 107
   1)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107
   2) 2014 인천아시안게임 ····· 109
   3) 인천발 남북 축구 대회 ····· 110
   4) 기타 인천 남북 체육 교류 ····· 113
3. 인천발 남북 스포츠 지원 교류 ····· 114
   1) 평양 체육단 현대화 사업 ····· 114
   2) 인천비전 2014 프로그램과 북한 ····· 115

제4절 학술/문화교류 ····· 117

1.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의 시작 ····· 117
   1) 인천 남북교류 사업의 씨앗, 우리민족대회 ····· 117

2. 강화와 개성, 고려로 잇는 남북교류 ····· 119
3. 남북정상 간 합의실현의 핵심특별지대 인천 ····· 123
1)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연구 ····· 123
2) 평화의 뱃길 한강하구 ····· 125
3) 인천이 주인공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126
4. 예술, 또 하나의 평화 기반 ····· 126
1) 유작으로 돌아 온, 월북한 조선화가 ····· 128
2) 두 개의 수도, 강화와 개성 ····· 129
3) 평화를 노래하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 ····· 130
4) 서해 5도에 평화를 불러올 미술 프로젝트 ····· 132
5. 앞으로의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 133

제5절 경제 분야 ····· 134

1.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 134
1) 남북경제교류의 필요성 ····· 134
2)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 138
3) 인천광역시 경제교류의 역사와 환경 ····· 143
4) 인천광역시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 147
5) 남북경협을 위한 준비사업 ····· 150

제4장 남북교류 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

제1절 남북교류사업의 평가 ····· 155

1. 남북교류사업의 성과 ····· 155
2. 남북교류사업의 한계 ····· 157

제2절 남북교류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 162

1. 인천이 갖는 세 가지 특성 ····· 162
1) 접경도시 ····· 162
2) 실향민의 도시 ····· 163
3)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존 도시 ····· 164
2.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의 역량과 가능성 ····· 165
1) 남북교류사업의 의지와 역량 ····· 165

3.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방향 ····· 167
1) 남북교류사업에서 고려할 점 ····· 167
2)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 ····· 168
3)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의 추진방향 ····· 170
4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 ····· 171

[참고문헌] ····· 173

[부록]

1.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인천시의 남북교류 현황 ····· 181
2. 남북교류 관계자 인터뷰 ····· 199
3. 인천시의 남북교류 관련 조례 ····· 225
4. 남북교류관련 문서 ····· 254
5. 인천시의 남북교류관련 단체 현황 ····· 259
6. 인천 소재 통일 및 평화관련 기관 현황 ····· 262
7. 인천시 연도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 267

01 총 론

1 백서 편찬의 배경과 목적

1984년 9월 30일 오전 1시 15분 무렵 인천항 제4부두에 시멘트를 실은 북한 선박 장산호가 접안했다. 이해 여름에 수도권과 충청지방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적십자사에서 수해 복구 물품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해 이루어진 일이다.

휴전 이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첫 사례이고, 인천으로서는 남북 간 소통의 장소가 된 경험이었다. 물론 인천항뿐만 아니라 판문점과 강원도 동해시 북평항을 통해서도 북측의 수재지원물자가 왔기 때문에, 인천만의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교류가 단절 내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항구로 상징되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4년 6월, 2000년 6월에 열린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다. 그 이전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던 행사를 양측의 수도가 아닌 도시에서 연 첫 사례였다. 인천이 가진 지정학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결집된 역량과 인천시의 적극적 동참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이자 경험이었다.

위의 두 사례는 2000년대 중반 인천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서 쌓아온 수많은 사업과 성과의 발판이 되었다.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남북관계의 특성, 북측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국제적 대립과 제재, 남북교류와 협력을 바라보는 남측 내부의 극단적 견해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 상 부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로서는 4년마다 수장이 바뀌는 제도로 인해, 시장의 입장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점과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자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의 하나이다.

안상수 시장의 민선 3기와 4기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사업을 펼쳤다. 2005년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이하,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와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에서 북

측의 참가와 협조를 얻어냈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도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 수장으로서는 처음 북측 당국의 공식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는 성과를 얻었다.

송영길 시장의 민선 5기는 단둥축구화공장이라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한 강화와 개성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설립하는 등 매우 의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쳤으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및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객관적 한계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목적으로 북측 최고위급 인사가 인천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되면서 인천시 차원에서 활로를 찾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2018년 7월 출범한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는 시청 내 남북교류 전담조직을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시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담당관으로 선임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시민사회 및 인천광역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와 기반 마련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여러 상황에서도 인천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때로는 큰 성과를, 때로는 준비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 백서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 간 화해분위기 속에서 시작해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형성된 경색과 단절 국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조성된 협력분위기를 거치며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천시와 인천의 많은 민간단체가 쌓아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일별하고,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여 향후 펼쳐질 남북 간 본격적 화해와 협력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 백서의 구성과 내용

20년 가까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인천시와 여러 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인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백서 발간을 기획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과 실행을 맡은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TF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관계 전문가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백서의 전체 구성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큰 줄기를 잡았다.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항을 먼저 목록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를 확인했으며, 주요 교류협력사업에 관계한 인사들을 인터뷰하여 경험에서 나온 평가를 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① 사업의 배경 및 방향, ② 관련 제도 현황, ③ 각 분야별 교류 사례, ④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필진으로 모셨다. 특히 각 분야별 교류 사례에는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최우선으로 섭외하여 생생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백서는 크게 보아 화보, 총론을 비롯한 본문, 사업별 합의서 등의 자료, 주요 사업 참가자의 인터뷰, 남북교류 관련 언론 보도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본문에 해당하는 제2장, 제3장, 제4장은 각각 사업 추진의 배경과 방향, 분야별 사업의 내용, 평가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했다.

제2장은 인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떤 배경과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권기태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집필한 제2장 제1절과 제2절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1989년 6월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 1990년 8월 1일 공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으로 변화해간 정책전환 시도를 정리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 간 화해, 협력과 교류사업의 진전 및 북의 핵개발 등으로 인한 경색과 단절의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1995년 단체장 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를 정리했다. 즉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의 요구에 대응하며 시작

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4년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우리민족대회(이하, 우리민족대회) 개최를 계기로 다방면에 걸쳐 진행한 남북교류사업의 내용을 짚어내고, 역대 시장별 주요 교류사업을 정리하여 20여년에 걸친 사업의 맥락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2장 제3절에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담당 조직의 변천상을 구체적이며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2004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시작한 인천시 차원의 활동 근거가 2018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내용 변화에 대해 서술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각종 법률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 인천과 직접 연관되는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남북교류협력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여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소개했다.

인천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각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서술대상으로 하는 제3장에서는 인적교류,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학술·문화교류, 경제교류의 다섯 분야를 설정했다.

박경수 前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사무국장이 서술한 인적교류는 2004년 인천에서 개최한 '우리민족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광복 61주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 2005년 '인천시 경제대표단 평양방문',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2006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만 2천인 금강산 기행', 2008년 '평양겨레하나 치과병원 준공식 및 평양유적지 방문' 등으로 세분화 하고 각각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의 인적교류가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 점은 인천의 남북교류사업 전체가 가진 특징으로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도 큰 교훈을 준다.

장수경 사단법인 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이 집필한 인도적 지원 분야는 2004년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밀가루를 보낸 긴급 구호성

지원과 함경북도 온성군의 어린이 돕기 지원 등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지원과 같은 개발 구호성 기반시설 설립 지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지원 사업을 상술했다.

평양치과병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영역인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민간영역인 인천겨레하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등의 민간영역이 힘을 모아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북측과 장기 지속적인 협업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인천의 남북교류 중 상대적으로 활발했고, 성과도 많았던 분야가 스포츠 교류이다. 이주영 인천일보 기자가 집필한 이 분야는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등 축구 교류, 기타 체육 교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과 북측 4.25축구단의 친선경기를 비롯해 청소년 팀의 교류경기 등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선 사례가 많았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며 제시한 '비전 2014 프로그램'을 통해 북측의 전지훈련과 체육물품 지원 등을 기획한 것도 인천만의, 인천다운 계획이었다.

김상우 前 인천일보 기자가 집필을 맡은 학술·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전문가 위주의 교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시간과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해 교류가 활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면 교류의 시기를 대비한 다양한 모색을 정리했다.

고려의 수도라는 공통점을 가진 강화와 개성을 연계한 학술회의 및 유물·유적 사진전 등과 평화창작가요제와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 등은 직접 북측과 교류한 결과는 아니지만 평화가 어느 지역보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접경이라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경제분야 남북교류는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는데, 남북경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하여 남북 경제교류의 규모와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 5월 31일 현재, 인천 소재 남북교역·경협업체 총71개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인천발 남북경제교류의 현황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단법인 인천겨레하나의 김국래 정책위원장은 인적교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인천의 남북교류사업 전반을 살펴본 뒤 인천시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역량과 활동을 쌓아온 시민사회의 결합이라는 인천의 특별한 조건에 주목하며, 이 결합을 지속·확대하는 것이 향후 남북교류사업의 진전에 필요하다는 평가를 했다.

아울러 외부 조건에 수동적인 측면과 관계 전문가의 부족 등 반성과 개선점에 대한 방안 제시를 통해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치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제언했다.

향후 인천이 추진할 남북교류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장금석 인천광역시 남북협력특보는 접경도시, 실향민의 도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천의 도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인천의 역사성을 고려한 접근, 항만과 공항 등 인천의 특화된 강점을 활용한 접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활용한 접근, 중앙정부의 중·장기 남북경제 발전방안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활용한 접근'이라는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백서에 특별한 부록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의 남북교류 관련 기사 2,104건을 정리하여 연도별로 제시했다. 하나하나의 기사를 싣기에는 지나치게 양이 많아 연도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인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을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백서 발간 이후

인천은 접경이다. 그것도 바다로 북쪽과 맞닿아 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의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은 모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 맞은편의 개성시 개풍구역과 최단거리로 1.8㎞ 떨어져 있을 뿐이다. 곳곳의 검문소를 거치지 않으면 강화군 본섬의 북부와 교동도 등을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과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반면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공동선언은 남북 간 갈등의 현

장인 인천 강화와 옹진군 일원의 바다를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으로 '서해공동어로구역'설정을 천명했다. 갈등과 대립의 바다가 평화와 화합의 바다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인천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역사, 문화, 예술,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측, 특히 개성과 황해남·북도를 연결하는, 공유하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다. 무형유산과 민속의 상당수는 두 지역의 꾸준한 교류 속에서 융합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강화와 개성으로 대표되는 고려의 문화유산을 비롯해 두 지역을 하나의 시야에 넣을 때 비로소 전체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가치와 의미를 재평가할 요소가 많다.

여기에 접경으로서 인천이 가진 차별성이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도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북과 접해 있다. 남북의 화해에 따라 교류의 문이 열리면 두 지역도 남북을 오가는 여러 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남의 도시와 북의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길 자체가 만남과 교류의 현장이 되기는 어렵다.

반면에 인천의 바다는 남북 어민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교류의 한마당이 된다. 분단 이전 수백 년 간 연백의 어민과 강화의 어민이 만나 이야기 나누며 두 지역의 말이 섞이고, 문화가 섞였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통로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은 모두 중요하지만, 인천은 분단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백서가 위와 같은 인천의 특성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정치적, 군사적 또는 이념적 대결 속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될 수 없는 인천의 상황을 이해하여 분단 이전 '일상의 회복'을 통한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02 남북교류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방향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제2절 사업추진 방향

제3절 남북교류 사업의 제도 현황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1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남과 북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교류가 단절되어 오다가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모색해 왔다. 이후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1984년의 합영법과 1991년 시작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의 경직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외면으로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1)]

1984년 10월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제회담이 11월 15일부터 5차례 개최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엿보였으나 모색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2)] 남북경제회담에서는 남북 간의 물자교역, 경제협력,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어로구역 설치,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다양한 경협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1985년 11월 열린 5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간헐적으로 이어진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 구조 하에서 남북경협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3)]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선언)'을 발표하면서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신뢰와 협력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9년 6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 주민 접촉도 성사되기 시작했다.

이후 남북교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990년 8월 1일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실질적인 성과는 1995년부터 시작된 인도적 차원의 대

1) 통일부(2007a).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15쪽.
2) 통일부(2008a).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3쪽.
3) 통일부(2007a). 앞의 글, 3쪽.

북 지원의 계기가 된 점이라 할 수 있다.[4)]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구상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었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5)] 한편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의결하고 8월 1일 공포하였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1991년 3월 27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4월 17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등 하위법령 체계를 마련하였다.[6)]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0년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선언은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 제4조에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양 정부가 공식화했다. 이는 중앙정부 및 기업, 민간 차원 등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시 북한은 2001년 '신사고운동'과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7.1조치로 물가, 임금, 환율 등 가격기구 조정을 통한 가격체계의 현실화, 기업의 자율권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단행되고 사회보장 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2003년 3월 처음으로 종합시장 개설을 공식화하고, 최고가격·변동가격제를 실시하여 시장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장마당'도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를 모방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역(2002.9.)과 금강산관광지구(2002.10.)를 지정하였다.[7)]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여 북한과 경제협

---

4) 권숙도(2020).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사회과학연구』, 36(1),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47-248쪽.
5) 김수한·전유정(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통일분야」, 인천연구원, 9쪽.
6) 통일부(2008a). 앞의 글, 4쪽.
7) 통일부(2007a). 앞의 글, 15쪽.

력을 확대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후속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을 배경으로 입주와 가동을 시작했다. 북한도 이에 조응하여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11월 20일에는「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다.「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이 제정·공포한 법이지만 남한과 해외 기업들이 경제특구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기초한 체제를 최대한 수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표방하고'비핵·개방·3000'구상과 상호주의를 강조한 경직된 대북정책 기조를 세웠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폐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대북전략이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은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8)]

박근혜 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유연성을 표방했지만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2013년 2월 핵실험 강행 등의 난기류 속에 개성공단 철수 사태와 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의 빙하기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16개 과제와 71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9)] 정부는 남북 간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2018. 1.1.)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2018년에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

8) 김형수(2018).「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전망과 과제」,『통일전략』, 18(1), 한국통일전략학회, 119쪽.
9)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1-21쪽.

적으로 노력한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본격적인 복원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되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4.20.)에서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였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발사 이후 현재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 왔으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였다.[10)]

2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교류'는 쌍방 간에 평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차원적 관계를 말한다. '남북협력'은 남북교류를 뛰어 넘는 활동으로 쌍방의 힘이 입체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삼차원적 관계로 남북협력은 남북교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활동으로 볼 수 있다.[11)]

남북교류협력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에 근거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12)] 이 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3)]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력사업자'도, '대북지원사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14)]

---

10) 통일부(2019). 『2019 통일백서』, 21쪽.
11) 최대석 외(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40쪽.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14) 권숙도(2020). 앞의 글, 248쪽.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요인은 19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속에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과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요구 등이다.

그 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봇물 터지게 되었다. 이밖에 남북화해 분위기에 대한 민선 지방정부 수장의 업적 축적, 지방정부의 사회문화 행사에 북한이 참여하여 성공한 사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15]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6] 먼저 남북교류협력 태동기(1999~2003)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11월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 활성화 계기로 작용했다. 지방정부 최초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주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함께 1999년 1월 22일 감귤 100톤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매년 지속해오다 2010년 중단됐다.[17] 강원도는 1998년 9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신설하였고 그해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출발지 동해항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 대상이 되는 성과를 낳았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였는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면서 참여하기 시작해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다.

15) 한반도평화포럼(201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84쪽.
16) 김형수(2018). 앞의 글, 128-134쪽 정리.
17) 고성준(2006). 「제주도의 대북지원 교류 사업 7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16(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표 1〉 광역 지방정부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계기

지방정부	추진계기	최초사업
서울	2004년 룡천열차 폭발사건	2004년 룡천사건 피해 지원
부산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2000년 부산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성화 체화
인천	1984년 남한 수해로 인한 인천항 북한의 구호물품 전달 통로	2004년 룡천사건 피해지원
대구	인도적 차원의 성금·생필품 지원 시작	2009년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운동
광주	2007년 북한 수해 지원	2007년 북한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
울산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해상로 개설시 울산광역시 포함	2004년 농업용 비닐 지원
경기	2000년 경의선 연결 및 개성공단 사업 추진	2002년 농업·보건·식품 등 인도적 지원
충북	2003년 황해북도 봉산군과 업교류협력사업	2008년 농업용 비닐 지원
전남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평안남도와의 직접 교류 위한 '남북교류협력기본계획'수립	2001년 씨감자 공급
전북	2003년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시군과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합의	2004년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과 농기계수리공장 신축
경남	경남의 선진농업기술 전수	2006년 농업교류협력
경북	남북 간 사과산업 상생발전	2008년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제주	1990년대 말 제주감귤의 과잉생산 (정부의 물류비 지원)	1998년 감귤·당근보내기 운동

출처: 김형수(20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 18(1), 한국통일전략학회, 131쪽 인용.

남북교류협력 확대기(2003~2008)는 지방정부에서 대북지원 NGO단체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방정부 중심에서 기초지방정부로 참여폭이 확대되었으며 사업내용도 다각화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별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담보한 담당자와 전담부서 설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도적 지원사업과 함께 농업·보건의료 분야의 개발 지원

사업을 병행하면서 확대되었는데 농업 분야는 경기도의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과 경상남도의 '강남군 장교리 농촌 개발사업', 보건의료 분야는 서울시의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과 부산시의 '겨레사랑 평양 항생제 공장 건설과 원료지원 사업'등이 있다.

인천시는 2004년 우리민족대회 개최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나섰다. 2004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 전담팀을 설치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에 대한 6개 항의 합의서를 체결했고, 2007년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남북교류협력 침체기(2008~2017)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연속해 발생하고, 2010년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취하면서 심화됐다. 2010년에는 대표적 사업인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운동과 강원도의 양어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이 중단됐으며, 경기도의 2011년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됐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경기도의 결핵환자 치료지원 사업을 끝으로 2015년 이후 전면 중단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했으나,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확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방침과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같은 해 2월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18)]

남북교류협력 재추진기(2017~현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불응으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천시와 강원도·경기도는 북한과 말라리아 예방·치료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2017년 5월 26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뒤, 접촉을 추진했으나 북한 당국이 거절했다.

2018년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이 채택되면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근원적인 장애로 지적되어 오던 지방정부의 대북지원사

18) 한반도평화포럼(2018). 앞의 글, 72쪽.

업자 지위 문제는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해결되어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인천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정부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인천이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북한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홍수피해를 복구하라고 시멘트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구호물자를 화물선에 실어 인천항으로 보낸 일이었다.[19]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2004년이었다. 4월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는 인천시가 인도적 지원으로 구호물품을 북한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또 같은 해 6월에 연 우리민족대회도 중요한 배경이다. 그 전까지 이 행사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됐는데 지방도시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개최했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정부 구성 기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2004년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인천 기념행사(민선 3, 4기)

2004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우리민족대회'에는 북한 대표단과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가 참가하였다. 기념행사는 2002년 금강산 대회 이후 2년 만에 남북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남측에서 1,200명, 북측에서 103명 및 재일동포 등 해외동포가 참석했고 통일마라톤, 통일연극제, 통일염원 동아리 축제, 열린 음악회, 전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20]

인천시는 우리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05

19) 한반도평화포럼(2018). 앞의 글, 76-77쪽 정리.
20) 한반도평화포럼(2018). 앞의 글, 127쪽.

년 2월 지방정부로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정책기획관실 내에 남북교류 사업 전담팀을 설치했다.

2005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지역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방북단이 북측에서 제공한 고려항공 민항기를 이용해 평양과 남포시를 공식 방문했다. 안상수 시장은 공식 초청을 받아 방북한 최초의 지방정부 수장이 되었다.

2005년 8월 인천시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 북측은 선수단 20명과 119명의 청년학생협력단 명칭의 공연단을 파견했다. 인천이 남북교류협력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이 대회에서 3차례 문화공연과 대학생 교류행사 등을 개최했는데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온 것이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21)]

2007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 사이 인천시가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했다. 이 행사는 인천시가 2년의 공백을 깨고 재개한 대북 사업으로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해 준공식에 참석했다.

2007년 11월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에 왔는데, 이 방문은 대북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다.

2008년 4월 인천시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했다. 10월 6일부터 8일 사이 인천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 제1인민병원 내 치과병원(구강병동) 준공식에 참가했다.

2009년 2월 1일부터 27일 사이 프로팀과 유소년팀으로 구성된 남북 축구팀이 중국 쿤밍에서 친선경기를 열었는데, 인천시는 이 대회에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2월 7일 중국 쿤밍 홍타스포츠센터에서 남북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21) 한반도평화포럼(2018). 앞의 글, 127쪽.

2) 5.24조치 이후 인천의 남북교류(민선5, 6기)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시기는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장은 취임 전에 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강조했다. 취임 후에는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인천을 남북평화·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선포했다.[22)]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가 함경북도 온성군의 24개 유치원 어린이 1천 500명에게 빵과 두유 등을 지원했으며, 2010년 8월부터 연말까지는 평양산원 영유아 및 산모 등에게 분유와 우유를 지원했다. 2010년 8월 17일에는 인천항 제1부두에서 민족화해와 서해바다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 우유지원 사업 출항식을 개최했다.

북한 우유 지원 사업 출항식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2010년 10월 1일에는 인천시가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대북지원단체 6곳과 북한의 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

22) 한반도평화포럼(2018). 앞의 글. 128쪽.

천시는 이들 단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해 모두 24억 6천여만 원 규모의 식료품, 의약품, 생필품 등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어린이 영양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의 원료 및 시설보강에 나서고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는 북한 9개 시·도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지에 밀가루와 겨울 내의·담요·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육로로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5월 16일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11월 7일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FC가 중국 단둥에 한중 합작으로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제축구화 공장을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2014년 2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과 함께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했는데 이 대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된 인천과 북한의 평화컵 축구대회 이후 3년 만에 개최한 것이다. 2012년에는 북한팀의 내부사정으로, 2013년에는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팀이 합동훈련에만 참가해 경기는 성사되지 못했다.

2014년 3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인천시가 중국 광저우에서 남북과 중국이 참가하는 인천 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U-15)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북한팀은 2011년 첫해 이후 불참했으나 2014년 대회에는 참가했다.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인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거행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구호아래 북한을 포함한 45개국 약 1만 3,000여 명 선수가 참가했다. 북한은 14개 종목, 150명의 선수를 파견해 역대 최고인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다. 특히 10월 4일 열린 폐막식에는 장기간 이어진 남북 사이의 갈등과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최고위급 3인이 방남하면서 남북 화해에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2015년 2월 2일에는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과 북한 4.25축구단의 남북 친선 경기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 위치한 쓰촨대학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2015 인천UTD와 북한 4.25축구단 친선경기

출처 : 인천유나이티드

3)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민선 7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정부는 남북 대화를 복원해 정상회담 3차례를 포함해 총 36회의 남북회담에서 23건의 합의서를 채택(2018년 12월 말 기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천시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도시로 환황해경제벨트의 중추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로 평화 중심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23]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는 출범과 함께 2018년 10월 8일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의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 조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다. 평화도시 조성 조례는 인천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기금 설

23) 인천광역시(2020a).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 5-6쪽 정리.

치·운영, 통일 교육 활성화 및 통일교육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2022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0억 원, 19년 40억 원을 조성했다. 또한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및 통일경제 관련 법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24]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2017년~2018년 말라리아 예방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민 통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남북경협아카데미 지원, 초·중 학생 통일캠프 등을 추진했다.

2019년 11월에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함께 지정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확보했으며,[25]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위탁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 규모로 북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을 지원하면서 8년 만에 대북사업을 재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사회문화교류 사업으로 2020년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인천시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여를 제안하여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6]

24) 인천광역시(2020a). 앞의 글, 29쪽.
25) 인천광역시(2020b). 「2020 인천 평화도시조성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23-24쪽.
26) 인천광역시(2020b). 앞의 글, 12쪽.

제2절 사업추진 방향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인천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를 개시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2004년 룡천참사 인도적 지원에 참가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고 우리민족대회 인천개최를 통해 본격화했으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다. 또한 2005년 개성공단 조성에 조응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개성 연계 접경지역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한 점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민선 3·4기 시기인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 국내·외적 환경에 조응하여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창'이라고 불리는 개성공단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 남북교류의 배경이 되었다.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의 합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개발에 착수해서 2007년에 1단계 분양·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27]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발달한 물류산업과 기반을 활용하여 대북경협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영종도·강화도와 북한을 연결하는 평화벨트축 구상 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28]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의 주요정책방향은 3P-3R로 요약할 수 있는데, 3P는 인도적 지원 및 보호(Protection), 평화 정착(Peace), 공동 경제번영(Prosperity)이며 3R은 땅길, 바닷길, 하늘 길을 잇는 남북교류협력 구상이다.

27)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21쪽.
28)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38쪽.

〈그림 1〉 땅길, 바닷길, 하늘길(3-Road)연결 추진 계획

출처 : 인천광역시(2013), 시정발자취, 176쪽

민선 5기는 민선 3·4기의 정책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실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북사업보다는 민간단체·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향적 통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각종 스포츠 교류를 끊임없이 시도하였으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2014년에 시작된 민선 6기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최악의 남북관계로 인천을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 정책을 정비하고 통일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사회·문화·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17년 3월 '민선6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기본계획'에서는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이 2004년 이후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없이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하면서 인천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29]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은 다른 지방정부의 귀감이 되었다. 인천시는 천

29)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34쪽.

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평화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천시는 소수 전문가 단체가 주도하는 교류협력사업이 아닌 인천을 평화도시로 선포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단기적·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와 통일수도라는 인천의 발전전략 속에서 남북교류와 평화사업을 추진했다.[30]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 부재했고 기존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단절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가 중단되면서 통일역량이 약화되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 타 접경지역 지방정부에 비해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평화국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통일특구 구상과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된 구상을 통일부에 제안하고, 강원도는 남북평화특별도 구상을 제기한 바 있다.[31]

따라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9.19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에서 제출된 인천지역 시사점을 통해 향후 과제와 실천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시를 대비했을 때의 내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표 2) 인천의 과제를 정리할 수 있다.[32]

30) 한반도평화포럼(2018). 앞의 글, 132쪽.
31)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44쪽.
32) 김수한(2018a).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 『시정이슈제안』제81호, 인천연구원.

〈표 2〉 평양공동선언 내용과 인천의 과제

분야	내용	의미	인천 시사점
군사	ㅇ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실천 ㅇ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ㅇ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ㅇ 불가침 협정 ㅇ 종전선언 연계 실질적 조치	ㅇ 서해평화수역 설치와 이행에 따른 인천지역의 구체적 단계별 대응 사업 중요 ㅇ 군사분계선제한조치완화 경계시설 철거에 따른 접경지 경관 개선과 접근성 제고 기대
경제 협력	ㅇ 동서해선 철도, 도로 착공 ㅇ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ㅇ 서해경제공동특구조성 ㅇ 동해관광공동특구조성 ㅇ 환경(산림) 협력 ㅇ 방역, 보건의료 협력	ㅇ 대북제재에서도 추진가능 프로그램 ㅇ 한반도신경제지도 동서축 정책 과제 ㅇ 환경분야 DMZ생태안보 관광사업 연계 추진 예상	ㅇ 서해경제공동특구 관련 정부와의 협력 선도적 제안 ㅇ 산림, 방역, 보건의료협력 참여를 위한 인천 여건 점검과 계획 수립 필요
인도적 협력	ㅇ 이산가족상설면회소 ㅇ 이산가족화상상봉 ㅇ 영상편지 교환	ㅇ 탈북여종업원 이슈를 넘어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접근 ㅇ 시민공감대 제고 효과 기대	ㅇ 인천통일플러스센터 공동사업 모색 ㅇ 인천(접경)이산가족실태조사
문화 체육 협력	ㅇ 평화예술단서울공연 ㅇ 2020년 올림픽 공동 참가 ㅇ 2032 올림픽 공동 유치 ㅇ 10.4선언 행사 개최 ㅇ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ㅇ 2018년 연내 추진이 가능하며 국제적 지원 기대 ㅇ 남북교류 분권화 연계	ㅇ 아시안게임 시설활용 남북공동 훈련장 제공 프로그램 추진 ㅇ 서해협력지대+10.4 특화 ㅇ 인천 3.1운동 100주년 준비 ㅇ 남북교류 분권화를 대비하여 준비 주체 정비 ㅇ 〈황해문화권〉남북중, 공동조사 추진
비핵화	ㅇ 동창리엔진시험장, 발사대 폐기 ㅇ 미 상응조치 후 영변 핵시설 폐기	ㅇ 북미 비핵화 촉진 역할 수행 ㅇ 의지표방을 넘어선 실질 조치로서 의미	ㅇ 북미간 비핵화 논의와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 개막 기대 ㅇ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2단계 교류협력 전면화 준비 필요
기타	ㅇ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ㅇ 비핵화, 종전선언 연계 가능	

출처: 김수한(2018a)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 『시정이슈제안』제81호, 인천연구원, 참조 및 재편집.

둘째, 지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하면서 인천의 서해와 한강하구가 남북협력 실천의 장으로 부상하였고 군사협의를 통해 서해평화수역과 시범적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준비와 실천을 통해 서해 5도와 한강하구에서의 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인천이 평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북한의 황해남·북도와 평화적 활용 및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강하구는 원칙적으로'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도록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론 군사분계선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남북한 선박의 통행 및 하구 개발과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는 한강하구에 남북 공동으로 '평화의 뱃길'개통, 하구 습지 공원 조성, 옛 포구 복원 및 연결, 하구 준설 및 모래 채취, 하구의 남북 양안(김포시 통진 조강과 개풍군 풍덕 조강)간 보행육교 건설, 남북교류협력지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다.[33]

셋째, 인천시는 남북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므로 통일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 특별법[34]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온 접경지역(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15개 시·군)의 피해보상 및 특화 개발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접경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란 상징성을 활용해 세계적인 생명·평화벨트를 조성함은 물론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과 함께 한반도의 중앙이라는 지정학적 입지를 살려 국토의 신성장축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3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접경지역 지방정부들은 앞 다투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경제특구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을 입안·추진해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시의 인천-개성 연계발전 구상을 들 수 있다.[36]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과제를 정리하면,[37]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33) 김동성(2018).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경기연구원, 21쪽.
34) 2014년 7월15일 법률 제12248호로 시행.
35) 김정완(2013).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국지방행정학보』 10(1), 한국지방행정학회, 175쪽.
36) 이밖에 철원시의 철원평화시 건설 구상,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계획, 파주시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 고양시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개발 구상 등을 들 수 있음.

평양공동선언에서 제기된 의제(서해평화수역, 시범적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준비와 실천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하고 인천시가 평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 분권화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조기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수립과 제도화 과정에서 기획·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 제·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운영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강화군, 옹진군과의 공조, 접경지역 및 한강하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해평화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더불어 민선7기 시정부가 제출한 서해평화 시정전략(① 서해경제공동특구 : 인천-개성-해주경제자유구역, 대북교역 거점-인천항·공항 강화, 평화벨트 교통인프라 구축, ② 남북문화교류활성화 : 남북문화예술센터, 개성·강화 고려역사문화교류, ③ 서해평화수역 : 남북공동어로 활동(파시), 백령도 접근성 제고 등)과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면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

그동안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정책은 남북관계와 중앙정부 등의 외부여건에 따라 변동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일방적 대북지원 성격의 사업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 지방정부들이 상당히 기여하였다.

남북협력사업 초기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발협력 사업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주로 농기계, 비료 등 단순물자 지원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남측의 농업기술을 적용해서 북측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38]

37) 김수한(2018a). 앞의 글, 13-15쪽 참조.

인천시의 민선 3·4기는 제1,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활성화 국면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지역 차원의 남북교류를 개시한 시기로 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와 기금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4년 11월 8일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40억원을 1차로 조성하여 활용하였다. 2005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의결기구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 조성에 발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개성을 연계한 접경개발 및 경제협력구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요사업으로 대북지원 5건, 인적교류 6건, 사회문화교류 1건, 체육 교류 4건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사회문화사업 1건, 운영 2건의 실적을 거뒀는데 전체의 84.2%가 대북지원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민선 5기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따른 근본적 한계로 인해 주로 통일공감대 조성 및 평화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내향적 사업 위주로 추진했다. 민선 5기는 56건의 통일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대북사업은 9건으로 전체의 16% 정도이며 84%가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경기도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육로로 북측에 전달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민선 6기는 북한의 제4차, 제5차, 제6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이 공고화 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이 위축되어 관련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민선 6기는 전체 23건의 통일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대북사업은 3건이며 88.5%가 통일기반조성사업이었다. 교육이 7건으로 전체의 30%, 사회·문화 행사가 8건으로 34.8%, 개성공단 기업지원이 2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했다.[39]

역대 인천시의 통일 정책 기조는 다음의 표와 같다.

38) 김은옥(2018).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민주연구원, 16-17쪽.
39)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41쪽.

〈표 3〉 인천시 역대 통일사업 현황(2005~2017)

시기별	대분류	중분류		건수
민선 3기 (2002~2006)	남북교류	지원	개발지원	1
		교류	인적교류	4
			사회문화교류	1
			체육 교류	1
	통일기반조성	사업	사회·문화	1
민선 4기 (2006~2010)	남북교류	지원	개발지원	2
			인도적 지원	2
		교류	인적교류	2
			체육 교류	3
	통일기반조성	지원운영	운영	2
민선 5기 (2010~2014)	남북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8
		교류	체육 교류	1
	통일기반조성	교육연구	교육	17
			학술·연구	9
		사업	사회·문화	7
			기념행사	8
		지원운영	개성공단 기업 지원	3
			운영	3
민선 6기 (2014~2018)	남북교류	교류	체육 교류	3
	통일기반조성	교육연구	교육	7
		사업	사회·문화	8
		지원운영	개성공단 기업 지원	2
			운영	3

출처 : 김수한·전유정(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통일분야」, 40쪽 재정리

인천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차별화된 남북 교류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많이 남겼다. 첫째, 2004년 우리민족대회는 전쟁과 분쟁의 도시, 철책선의 접경도시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평화도시 인천으로, 평화와 교류협력의 상징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된 시발점이 됐다. 또한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민관협력에 의한 교류협력사업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는 우리

민족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인천시장의 평양방문과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 사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방북단이 공식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는데, 안상수 시장의 방북은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장으로서는 최초의 방북이다. 또한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육로로 북측에 전달했는데 이는 복수의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첫 사례에 속한다.

셋째, 북한의 고위 인사가 인천을 방문함으로써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가 비교적 많다. 2007년 11월 29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을 방문하여 대북사업에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0월 4일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는 장기간 남북 사이에 이어진 갈등과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실세 3인이 참석하면서 남북 간 화해에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넷째, 인천시는 평양과 남포를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켰고 특히 남포와 자매결연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한 바 있다.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 사이 인천시 경제대표단(시 8명, 경제인 29명, 항만공사 10명, 기타 5명)은 남포항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천항이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 항만과 교류 협력시대를 열었고 경제 교류를 위한 물꼬를 텄다. 이때 인천·남포항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세 가지 내용에 합의하고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이 의향서 체결은 남북 양측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벌인 첫 사례다.[40]

40)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15). 「인천광역시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통일준비위원회.

3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한계

지방정부의 통일정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인천시와 같이 접경지격이 갖는 지정학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상향식 전략이 맞물려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의 평화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계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틀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 사업의 구조를 들 수 있다.[41] 정부의 5.24조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적 돌출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비정치적인 분야의 지역간·주민간 교류도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인천시 통일정책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장기 전략의 부재와 관련 조직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인천시 통일 관련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맞물려 축적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상호연계를 통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국면에서 체계적이고 상호연계된 통일전략 수립과 사업추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자치행정국에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획조정실에 남북교류 주무팀을 설치하여 시정 방향을 고려한,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기획과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책기획관실 외에 자치행정과와 도서정책과 등에 통일기반 조성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관련 협력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인천시 평화정책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천의 평화통일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중장기적 전략 및 추진체계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42]

셋째, 인천시 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대북지원 NGO, 지역시민사회단체, 시민의

41) 임정관(2018). 「4.27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 평화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 연구」, 『GRI연구논총』, 경기연구원, 346쪽.
42)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60-61쪽 정리.

협력과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나 교류협력의 주요 행위자별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력시스템은 미비한 상태여서 지역 거버넌스의 확대 및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 진출한 17개 인천 기업이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듯이 앞으로도 개성이나 남포 또는 해주와 인천시의 교류협력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때 인천 기업은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인천시의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 기업 등 민간영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인천시는 해상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차별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한 평화협력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북과 접경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인천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있다. 강원도는 내륙의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북과 접경하고 있고, 경기도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접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서해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접경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수평적 정책 지향보다는 해상 중심의 교류협력을 특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협력과 서해 5도 중심의 생태관광 평화협력, 그리고 강화와 해주·개성을 잇는 황해문화권 역사문화교류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대북정책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으며 높아진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 지방정부, 기업,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때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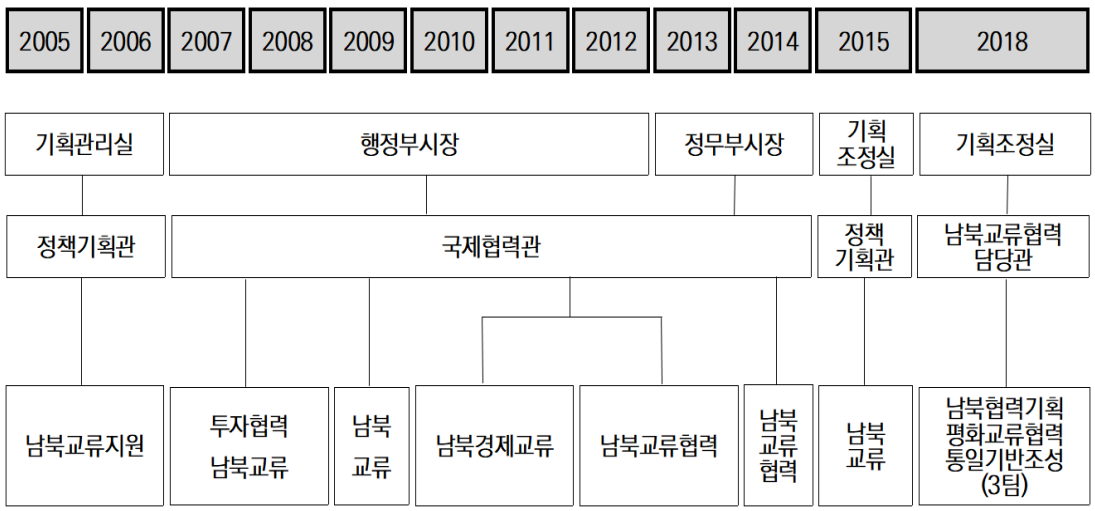
제3절 남북교류 사업의 제도 현황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과 조례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인천시에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담당부서가 설치된 때는 2005년으로, 이때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남북교류지원팀이 만들어졌다. 인천시는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전담팀을 설치했다.[43] 그 뒤에 수시로 주무부서의 소속과 명칭이 바뀌었지만 남북 관계의 변화나 인천시장의 교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취하면서 지방정부 수준의 남북교류협력이 단절되었다시피 했어도 인천시의 담당부서에는 큰 조직적 변화가 없었다.

〈그림 2〉 역대 인천시 남북관련 조직체계 변화



출처 : 김수한·전유정(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통일분야」, 인천연구원,47쪽(2018년 부분 추가)

43) 강승호(2018). 「인천시 남북협력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 담당부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행정부시장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정무부시장이 관할했던 국제협력관실에 소속되어 있었다. 국제협력관 아래서 연도에 따라 투자협력팀, 남북교류팀, 남북경제교류팀과 남북교류협력팀, 남북교류협력팀 등으로 명칭을 바꿔오다가 2015년에는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의 남북교류팀으로 재편되었다.[44]

가장 큰 변화는 2018년 지방선거 뒤에 인천시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해 10월에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인천형 남북교류의 추진 및 통일공감대의 형성을 활성화하는 일을 총괄한다.

그 아래 세 개 팀이 있는데, 2020년 남북기획팀에서 이름을 바꾼 남북협력정책팀은 남북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의 수립,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추진, 중앙부처 협의회 관리 및 협조,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을 책임진다.

평화교류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발굴,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 남북 경제협력의 지원, 남북 기반시설의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 황해평화포럼 운영 등을 담당한다.

통일기반팀은 통일공감사업 추진, 남북관련 기념행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리, 충무3500 담당, 이북5도 인천사무소 등을 맡는다(인천시 홈페이지 조직도).

그리고 2010년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뒤 인천시에는 처음으로 남북협력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4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다가 2018년 박남춘 시장이 선출되면서 다시 남북협력특별보좌관이 임명되었다.

이외에 과거 인천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했으나 2018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통일기반팀에서 맡았으며, 인천시 자치행정과나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맡았던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원도 2020년 2월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남북협력정책팀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

44)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47쪽.

이에 비하여 인천시 해양항공국 도서정책과 도서정책팀은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관련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지역관광진흥팀은 강화도를 대상 지역으로 하는'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5)]

2)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인천시의 통일관련 조례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2004년 11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시기였다. 강원도가 1998년 9월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처음 만든 다음 경기도(2001년 11월), 광주광역시(2003년 1월), 전라남도(2003년 6월), 서울특별시(2004년 7월)에 이어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46)]

이 조례는 인천시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었다. 하위규정으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이 2005년 1월에 제정되었고,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2011년 10월에 제정되어 시민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했다. 2009년 10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가 개정되면서 통일교육이 정부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로 확장된 데 영향을 입은 것이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8번의 개정을 거친 뒤 2018년 10월에 전면개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탈바꿈했다. 이때 2번의 개정을 거친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되면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면서 이루어졌다.

---

45) 김수한·전유정(2018). 앞의 글. 48쪽.
46) 황교욱(201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로컬거버넌스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64쪽.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1조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만큼 과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평화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상당히 확장된 것이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2장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제3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제4장 남북교류협력(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제5장 통일교육 활성화를 포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6조의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 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에서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다고 명시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조성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때 누적액이 약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상수 시장과 송영길 시장 시절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기금 지출이 많아진 대신 기금의 조성은 적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도 줄었고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면서 추가 조성도 어려워졌다.[47]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5년 초 약 18억 원 규모였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4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48]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0월 제정되어 제1조의 설명과 같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

47) 이준한(2015). 「인천광역시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83쪽.
48) 김창수 외(2019). 「남북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인천연구원, 119쪽.

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부분씩 개정되었지만 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 사업,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14년에는 제14조 제2항으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신설됐고, 2015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2015년 11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비롯해 모두 5개 조로 구성되어 매우 간단하다.

2020년 2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모두 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과 지침

1) 인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

중앙정부 수준에서 인천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은 사실상 찾기 쉽지 않다. 대신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에 의한 인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이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12월말에 제정되어 한 달 뒤부터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이에 우리가 반격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에 불안을 느끼는 서해 5도 지역주민의 정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4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제1조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서해 5도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의미한다.

이 특별법은 서해 5도의 정주여건을 매우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 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제15조 교육지원, 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제18조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9조 불법조업 방지시설, 제20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등에서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남북의 분단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법」이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원법」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

49) 이준한(2019). 「서해평화와 연평」, 『인천학연구』제31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8쪽.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시키자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고 마침내 2011년 4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 제1조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4장 사업의 시행,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6장 부칙 등의 3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영향을 주는 법령은 다양하다. 사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와 역할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에 기초한다. 그 대표적인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서 1990년 8월에 제정되어 바로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1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1조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80년대 말에 독일의 통일을 목격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은 모두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9조 남북한 방문,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제14조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등의 공고,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제23조 검역 등,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제25조 협조 요청, 제25조의2 업무의 위탁, 제25조의3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여 인천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규제해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일 안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시행령 제1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통일부령으로서 1990년 11월에 제정되자마자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남북 사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와 장치로 작동해왔다면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재원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0년의 8월에 제정되어 두 달 뒤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제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2004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근거가 되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모두 14개조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조항은 제3조 기금의 설치, 제4조 기금의 재원, 제5조 장기차입,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 기금의 용도,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 일시차입, 제11조 보고 및 환수,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 감독 및 명령 등이다.

1990년 12월 말에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제1조는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은 1991년 3월에 제정되자마자 시행되었는데 제1조는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외에 1999년 2월에 제정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은 인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가운데 통일교육 관련 조항의 근거로 작동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의 제1조는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서, 이 법은 모두 11개조로 구성되는데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6조의4 통일관의 지정 등, 제6조의5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6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의7 공

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등이 그 내용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은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된 1999년 8월에 제정되어 같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 시행령에 연관된 시행규칙은 없다.

다른 한편 2005년 12월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관련 법률 가운데 한 단계 큰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등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조의 제2항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했다.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현행 헌법과 「국가보안법」 체계 속에서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류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남겼지만 주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에 관련된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는 상황에서 2005년 12월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의 교류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5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6년 6월에 제정되어 바로 시행되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06년 11월에 제정되어 바로 시행되었는데 각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방정부는 남북의 교역당사자 가운데 일부로 지위가 보장되었다. 제12조 교역당사자에 따르면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

50) 이규창(200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법조』제55권 제8호, 법조협회, 164쪽.

그러나 2009년 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뀐 조항은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한다"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조도 같이 개정하면서 제4항을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하여 지방정부의 교역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51]

3)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침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뒤 7월에 행정자치부는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 지침」을 만들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 지침을 통해 통일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을 만들어 관련 사업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행정자치부의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 지침」은 폐지되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행정자치부가 아닌 통일부의 사업으로 조율한 것이었다. 다만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은 지방정부를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위탁 또는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2019년 7월 통일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통일부와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확실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협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분권형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52]

---

51) 황교욱(201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발표문, 3쪽.
52) 황교욱(2019). 앞의 글.

통일부는 2019년 10월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제3조)를 두어 대북지원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했고, 2010년 9월 개정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다소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는 없었다.[53] 지방정부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9년 개정으로 지방정부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제2, 3조). 이 개정에서는 지방정부 등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새로 제15조를 만들었다.[54] 2019년 11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고, 그 뒤 10일 만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았다.[55]

53) 이준한(2015). 앞의 글, 86-87쪽.
54) 통일부 공식 스토리(https://story.kakao.com/_5Yxhg4/GQm0IcbMVo0),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55) YTN(https://www.ytn.co.kr/_ln/0101_201911211419214359), 검색일 2020년 9월 2일.

03 남북교류 사업의 분야별 추진 현황

제1절 인적교류

제2절 인도적 지원

제3절 스포츠 교류

제4절 학술/문화교류

제5절 경제 분야

제1절 인적교류

남북교류에서 인적교류, 특히 인천의 인적교류는 2004년 인천에서 개최된 남북공동행사인 '우리민족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는데, 이 행사는 분단 이후 남쪽에서 열린 대규모 비정부기구(NGO) 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남북은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 이후의 미래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북측은 인천이 평화와 통일에서 특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로 인해 인천에서 시민단체 차원과 인천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더불어 인적교류도 활성화됐다.

시민단체 차원의 인적교류로는 2004년 우리민족대회, 2005년 '광복 60주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 2006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만 2천인 금강산 기행', 2008년 '평양겨레하나 치과병원 준공식 및 평양유적지 방문' 등이 있었다.

인천시 차원의 인적교류는 2005년 '인천시 경제대표단 평양방문',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청년학생협력단) 참가, 2008년 '평양창광거리 현대화 사업 현장방문' 등이 있었다.

이 중 광복 60주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준공식 및 평양유적지 방문은 남측에서 평양을 방문한 것이며, 우리민족대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북측에서 인천을 방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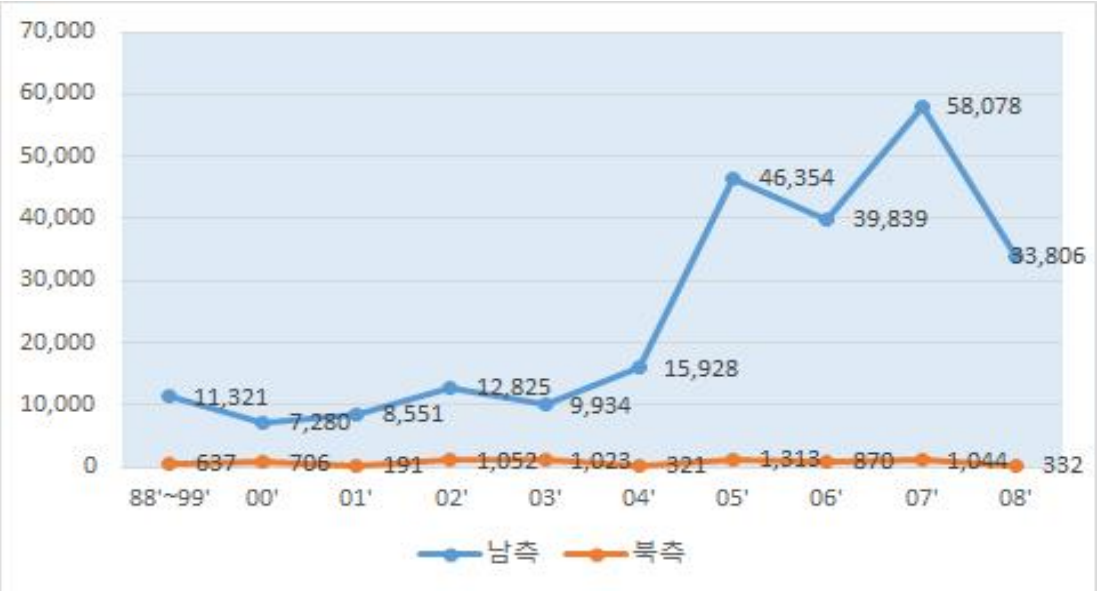
다른 지역과 다른 인천의 남북 인적교류의 특징은 시민단체 차원과 인천시 차원의 인적교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초청사업을 진행했는데, 인천의 시민단체를 통로로 추진했으며, 대회 기간 북측의 일정 등을 민관이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했다.

남북교류에서 인천의 인적교류는 '평화의 도시 인천, 통일의 도시 인천'이라는 공동목표를 시민단체와 인천시가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양겨레하나 치과병원 준공식과 평양창광거리 현대화 사업도 민관 협력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인천의 인적교류는 시민단체 차원과 인천시 차원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인천에서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했던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있었던 주요행사를 중심으로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만남이 곧 통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인적교류는 남측과 북측이 함께 어우러져 동질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그림 3〉 인적교류 현황



출처 : 통일부(2009). 『2009 통일백서』.

〈그림 3〉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인원을 제외한 남북교류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남북 간의 인적교류를 나타낸 것인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전후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2년 동안 남측에서 북측을 방문한 인원은 11,321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측의 방북인원은 계속 증가해 2004년도 15,928명, 2005년도 46,354명, 2006년도 39,839명, 2007년도 58,078명, 2008년도 33,806명으로 총 243,916명이다. 반면에 북측에서 남측에 방문한 인원은 2000년도 706명으로 시작하여 2001년도 191명, 2002년도 1,052명, 2003년도 1,023명, 2004년도 321명, 2005년도 1,313명, 2006년도 870명, 2007년도 1,044명, 2008년도 332명으로 총 7,489명이다.

1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우리민족대회

2004년 남측에서 북측을 방문한 전체 인원은 15,928명으로 전년도의 9,934명에 비해 71.5%가 증가했는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분야이다.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 공장건설 착공식, 관리위원회 개소식,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준공식 등 개성 현지에서 열린 각종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남측인원이 방문했으며, 특히 2004년 12월 15일에 있었던 개성공단 첫 제품생산 기념식 행사에는 국회의원 79명을 비롯한 385명의 남측인원이 참석했다.

2004년 민간단체 등 기타분야의 주요 방북사례로는 8.15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공동행사 참가, 남북청년학생대회 참가협의, 강원도, 제천시 등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협의, 제2차 남북농민 통일대회, 남북노동자 5.1절 남북공동행사 등이 있다.[56]

출처 : 중부일보 2004년 6월 16일

56) 통일부(2005). 『2005 통일백서』.

2004년 북측에서 남측을 방문한 전체 인원은 321명으로 많지 않았다. 북측의 남측 방문은 남북장관급회담 등 주로 정부 차원의 회담이 목적이었으며, 그 외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행사, 남북공동행사, 우리민족대회 참가 등이었다.[57]

우리민족대회는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단체 차원의 남북공동행사로서 2004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학경기장 등 인천에서 진행했다. 참가 규모는 남측 1,200여명, 북측 103명 및 재일동포 등 해외동포이다. 북측의 김정호 단장은 198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단장, 1980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준비위 부위원장, 1985년 4월 문화예술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북측 대표단은 노동, 농민, 학생, 문학, 종교 등 각 부문에 걸쳐 중간 실무급 인사들로 골고루 구성했는데, 이중에는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인모 선생의 딸 리현옥 개선1고등중학교 교장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예술단원 20여명, 기자단 1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측 대표단에 예술단원이 포함된 이유는 남측에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북측은 문화를 통해 남북의 이질성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문화공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북측 대표단에는 예술단원이 대거 포함됐다.

〈표 4〉 우리민족대회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소
6월 14일	14:00	북측 도착	인천공항
	19:00	환영만찬	인천시청홀
6월 15일	09:30	통일대행진	프라자광장
	10:00	우리민족대회 개막식	문학경기장
	16:00	체육오락경기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20:00	우리민족자랑대회(합동공연)	문학경기장 야구장
	22:00	축하연회	문학경기장 컨벤션센터
6월 16일	08:30	6.15 마라톤 대회	문학경기장 출발
	11:00	폐막식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14:00	강화도 답사	강화도
	19:00	환송만찬	
6월 17일	10:00	북측 출발	인천공항

출처 : 인천우리민족대회 인천추진위원회

57) 통일부(2005). 앞의 책.

우리민족대회는 남측의 민족화해협력협의회(이하 민화협)가 주축이 된 우리민족대회 조직위 및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했는데, 북측 대표단이 6월 14일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해직항로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첫날 남측의 민화협이 주최한 북측 대표단 환영만찬이 인천시청에서 진행됐고, 북측 대표단은 3박 4일 동안 송도비치호텔에서 숙박했다. 15일 개막식에서는 남·북·해외 대표단이 공동으로 '민족대단합 선언'을 채택했고, 오후에 열린 체육오락경기는 남북 대표단을 혼합해 자주팀과 통일팀으로 나눠 '통일지도 맞추기'를 시작으로 5개 종목을 진행했다.

이날 저녁 문학경기장에서 우리민족대회를 기념하는 '우리민족자랑 남북예술공연'이 남측 예술단 축하공연과 북측 예술단 답례공연으로 진행됐는데, 이 공연에서 북측 가요 '우리는 하나', '태양 조선 우리는 하나'의 가사를 놓고 마찰을 빚는 해프닝도 있었다. 오후 10시부터는 남·북·해외 대표단 300명이 참가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축하 연회를 문학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대회 3일째인 16일에는 남·북·해외 대표단과 2,300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신연수역과 원인재역을 거쳐 다시 문학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온 겨레가 함께하는 6.15우리민족마라톤대회'가 열렸고, 이날 오전 11시에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폐막식이 거행됐다.

폐막 행사는 대회 참가자들의 놀이마당을 시작으로 남·북·해외 대표의 폐막 연설과 통일기 하강식 순으로 진행됐고, 같은 날 오후 북측 대표단은 강화도 유적지 답사와 문학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송만찬에 참석했으며, 17일 오전 10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북으로 돌아가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표 5〉 우리민족대회 부대행사

	행 사 내 용		일정 / 장소
공식 주관 행사	인천시민통일축제 선포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	6.5(토) 19:00
	통일연극제	작품 : 〈흥부네 박터 졌네〉 〈귀향〉 〈돌아온 취발이〉	6.9~6.11 19:00 부평공원
	통일영화제	작품 : 〈실미도〉	6.9 연수문화공원
	통일 동아리축제	대학생 동아리 한마당, 락 페스티발	6.10~6.11 월미도
	우리민족대회 전야행사 6.15 열린문화제	난타, 김덕수 사물놀이패, 세미클래식 공연, 합창제, 박화요비, 권진원, 김범수, 안치환, 봄여름가을겨울 등	6.13 17:00 문학경기장
구별 행사	통일노래자랑 및 통일문화제	계양구 : 월마트앞 공원 9일 19:00 서 구 : 석남공원 10일 19:00 남동구 : 인천대공원 12일 14:00	6.9~12
부문 행사	종교인통일한마당		6.15 18:30 문학경기장 주변
	여성부문행사	북 여성영화 상영	6.11 16:00, 19:00 한미은행 본점 대강당
	청소년통일한마당		6.13 14:00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한민족경제발전방안 세미나	주관: 인천경실련	6.9 14:00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시민참여	참여마당	6.5~6.15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초청 행사	공연마당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관현악단, 인천 예총, 인천 민예총 등	6.5~6.15
	통일사진전	문화예술회관 광장 주변	6.5~6.15
	남북미술작가교류전	문학경기장 동측전시장	6.13~6.17

	행 사 내 용		일정 / 장소
경연대회	통일염원 청소년 그림, 글짓기대회	신청접수 : 6월 7일~10일	6.11 09:30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참여마당	615인 합창단 연주회	각계 합창단과 시민참여	6.12~14
	615 풍물단	각계 풍물단과 시민참여	6.12~14
	시민참여마당	꽃꽂이, 이북음식, 솟대세우기, 장승깍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6.5~6.15 행사장 곳곳
	단체부스행사	종단 : 단일기손도장찍기, 바디페인팅	6.14~16
		(사)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 깡통통일조형물	6.9~14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 통일비용마련 39원저축하기 운동	6.9~14
		사진작가 이용남	6.9~14
		통일아침 : 통일로 딛는 작은 한걸음	6.6
		인부총련 : 통일놀이, 캠페인 등	6.9~14
		한청 : 전시회, 엽서쓰기	6.9~14
		6.15실천연대 : 사진전시회	6.15

출처 : 인천우리민족대회 인천추진위원회

우리민족대회는 주요행사 외에도 구별로 통일노래자랑 및 통일문화제, 부문별 통일한마당, 한민족경제발전을 위한 세미나, 통일염원 청소년 그림 및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추진위에서 주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특별취재단으로 참여한 인천일보 이주영 기자는 이번 대회에 대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공동행사라는 의미가 있으며, 민족대단합 선언문 채택과 통일의 길이 가야할 이정표를 정해준 뜻깊은 행사이며 반세기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의 이념 속에 살아온 시민들에게 통일은 멀지 않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준 사건"이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3박 4일간의 우리민족대회는 '우리는 하나다', '이제는 통일

시대다'를 아로새기듯 마음속에 각인시켜준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북측 또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인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어 이후 진행할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2005년은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체육·종교·문화예술·학술·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접촉과 왕래 확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해였다.

시민사회단체는 6.15통일대축전 행사를 성대하게 치룸으로써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남·북·해외 3자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백낙청(남측), 안경호(북측), 곽동의(해외)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15공동위원회는 6.15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6.15통일대축전」(6월 14일~17일)을 평양에서 개최했는데, 이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민관 대표단 295명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했다. 특히 이 행사에는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참여해 당국과 민간이 함께하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

「6.15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6.15공동위원회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8.15민족대축전」(8월 14일~17일)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도 남·북·해외의 민간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도 참여했다. 북측은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당국대표 17명, 안경호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민간대표 100명, 남녀축구선수단 65명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기간 중 북측 대표단은 분단 이후 최초로 국립현충현 현충탑에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었다.[58]

58) 통일부(2006). 『2006 통일백서』.

지방정부의 대북교류는 교류사업 추진에 다양한 남북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바람을 타고 인천 경제인으로 구성된 인천시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5.30~6.2)했다. 인천시 대표단에는 인천시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인천시 관계자는 평양 방문에서 북측과 인천시의 대북교류 사업을 협의했고,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9.1~4)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남북화합 대회 실현'이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겨레하나는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10여 차례의 실무회담을 진행했으며,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대표단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2014년 인천-평양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인천-개성 연계발전 등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 합의에 따라 북측은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다.

북측 응원단은 공식적으로 '청년학생협력단'이라고 칭했는데 그동안 특별한 명칭이 없었던 북측 응원단의 예를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청년학생협력단은 문화예술 국가영재교육기관으로 기악, 성악, 무용, 연극 등 모두 12개 예술분야 영재들이 모여 있다는 금성학원 학생들이 주축이었다. 인민배우 염청, 리분희와 휘파람으로 유명한 전혜영 등이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학생협력단은 이 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하지만 '통일 사절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청년학생협력단은 선수권대회 응원뿐만 아니라 인천겨레하나와의 체육오락회인'연환모임'과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술 공연을 3차례 진행할 예정이었고, '청년학생협력단'이란 명칭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어주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표 6〉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및 '청년학생협력단' 일정표

일시		일정	장소	비고
8월 28일	11:30	북측 선수단 20명 입국		환영단 파견
	19:00	시의회 환영만찬		
31일	11:00	북측 대표단 및 응원단 144명 입국	인천공항	환영단 파견
	16:00~16:30	환영식	시청광장	북측 144명, 남측 150명, 시민 1,000명
	17:00~18:00	환영다과회	인천시청 로비	주최 : 인천시 북측 144명, 남측 150명
	18:30~20:30	인천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	문학경기장	
9월 1일	15:00~	육상경기 응원		
	19:00~21:00	공연1	문학야구장	2만석
	21:00~22:30	만찬	인천시청 로비	
2일	15:00~	육상경기 응원		
	19:00~21:00	공연2	서구회관	975석
3일	19:00~21:00	공연3	예술회관	1,500석
	21:00~22:30	만찬		주최 : 통일부
4일	10:00~14:00	연환모임	선인체육관	북측144명 인천600여명
	19:00~21:00	폐막식		
	21:00~22:30	만찬	파라다이스 호텔	주최 : 겨레하나 북측 144명, 남측 260여명
5일	오전	관광		
	11:40~12:20	환송오찬	파라다이스 호텔	북측 144명, 남측150명
	17:00	출국	인천공항	환송단 파견

출처 : (사)인천겨레하나

유망 마라톤 선수 함봉실을 비롯한 선수 8명을 포함한 20명의 북측 선수단은 연습을 위해 8월 28일 인천에 도착했고, '청년학생협력단'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8월 31일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왔다. 청년학생협력단이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남측 응원단에서도 환영단을 파견하여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남측은 북측 응원단과 공동 응원을 위해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를 중심으로 응원단을 조직하기로 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1,000여명이 참여했다. 남측 응원단은 몇 차례 교육을 통해 주의사항과 응원 방법을 숙지하고, 청년학생협력단이 응원하는 북측 선수 경기에 참여하여 공동 응원을 했다. 청년학생협력단이 '우리는'을 선창하면, 남측 응원단이 '하나다'를 따라 하는 방식으로 남북 응원단은 하나가 되었다.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그야말로 남북 화합의 장이였으며, 평화와 통일의 열망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전에도 대표단에 예술단원을 포함시켜 소규모의 문화공연을 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방식이 달랐다. 응원단 대부분을 예술단원으로 구성했고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경기장 야구장(2만석), 서구문화회관(975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1,500석)에서 각각 2시간 가량 북측의 노래와 춤, 연주를 선보이는 대규모 공연을 펼쳐 인천시민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기간 중에 남북교류, 인적교류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는데, 남측 응원단과 북측 청년학생협력단간의 친선 행사인 '우리겨레 하나되기 어울림 마당'(이하 연환모임)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인적교류와 남북공동행사는 양측 정부기관의 감독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로운 행사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그러나 연환모임은 어떤 감독도 받지 않고 어떤 형식의 구애도 없이 진행된 최초의 민간행사로서, 도화동에 위치한 선인체육관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운동장으로 공간이 한정되었을 뿐이었다.

중앙일보 2005년 9월 5일 월요일 012면 사회

4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대학생 어울림 마당'.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응원단으로 인천을 방문한 북한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자 남한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며 우정을 나눴다. 박종근 기자, N-POOL경인일보 임순석 기자

남북 대학생 500여 명 한마당 놀이

북한 노래 맞춰 '막춤'

4일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전문대와 인천대 캠퍼스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넘쳤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와 인천대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남북 대학생 어울림행사에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응원단으로 방문한 북측 청년학생협력단 100여 명이 인천대와 인하대생 400여 명과 함께 네 시간 동안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을 펼쳤기 때문이다. 오전 9시30분 인천전문대 체육관 앞 광장.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북측 대학생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반도기를 흔들며 통일을 기원하는 신명 나는 춤 한판을 벌였다.

북측 학생들의 춤판이 계속되자 흥을 이기지 못한 남측 대학생들이 끼어들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이어 손을 맞잡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열창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냈다.

잠시 후 북측 대학생들은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 공연을 시작했다.

'통일을 이루자' '심장에 남는 사람' 등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부르자 남측 대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반도기를 흔들며 따라불렀다.

특히 북측 학생들이 리듬이 빠른 '청춘' '준마처녀' 등을 부르자 남측 남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가 막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신기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던 북측 여대생은 "부질서하게 보이지만 흥에 힘이 넘쳐나는 것 같다"며 박수를 보냈다.

아시아육상대회 응원단 인천대 방문

잔디밭 앉아 도시락 먹으며 이야기꽃

남측 대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의 열정적 공연에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횃불 안무로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북측 학생들은 남측 학생들과 어울려 '파도타기 응원'을 벌였다.

낮 12시쯤 공연을 끝낸 뒤 남북 대학생들은 인천대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점심을 같이했다. 이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식사 후 이들은 '통일기원 원년 2005'라는 글귀를 새긴 한반도기를 앞세워 기념촬영을 하며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눴다.

남측 학생들이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폐막식 참석을 위해 버스편에 오르는 북측 학생들에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며 손을 흔들자 북측 학생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로 인사를 대신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학생 김영심씨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행사가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박호군 총장은 "이처럼 많은 남북 대학생들이 국내에서 만남의 기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북한 학생들에게 학교 방문 기념으로 드럼 한 세트와 전기기타 세 대 등을 전달했다. 북한 학생들은 한반도기에 '통일을 이루자' '통일 6·15' 등의 글을 적은 손수건을 남측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인천=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출처 : 중앙일보 2005년 9월 5일

연환모임은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인체육관에서 체육오락경기, 12시부터 2시까지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운동장에서 점심식사 및 유희로 진행됐는데, 참가규모는 북측 144명, 남측 600명이었다. 이 행사는 미리 도착한 청년학생협력단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청춘'등의 노래를 부르며 인천시민, 대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춤을 추는 광장행사로 시작됐다.

연환모임은 남측의 인천겨레하나 이혁재 조직위원장과 북측의 범민련 북측본부 김인철 사무부장의 공동사회로 대표 연설, 남측 환영공연, 북측 공연, 체육경기 순으로 구성됐다. 청년학생협력단이 '통일을 이루자', '심장에 남는 사람' 등의 노래를 부르자 남측의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반도기를 흔들며 따라 불렀고, 특히 흰색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한 청년학생협력단원이 리듬이 빠른 '청춘', '준마처녀'등을 부르자 곁에 있던 학생들이 흥에 겨워 무대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오는 '소동'도 빚어졌다.59)

59) 인천일보 2005년 9월 4일.

남북 참가자는 체육오락경기가 끝나고 인천대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삼삼오오 어우러져 인천대학교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었다. 연환모임이 진행된 공간만은 이미 통일된 섬과 같았고, 그들의 모습에서 통일의 미래상을 볼 수 있었다.

청년학생협력단은 9월 4일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여하고 9월 5일 오후 5시, 짧지만 많은 흥분과 감동을 인천에 남기고 선수단과 함께 평양으로 떠났다. 얼어붙은 남북의 '바닷길, 하늘길'을 뚫고 가로막힌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또다시 하나된 남북은 대회의 주인공이자 '평화'을 염원하는 아시아인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이 경험은 2014년 인천과 평양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계획과 관련해 또다시 북측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대를 품게 했다.[60]

3 그 밖의 인적교류

1) 광복 60주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 9월에 최초로 남측 민간인의 대규모 평양 관광이 있었다. '광복 60주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이하 평양 참관)'은 평양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관람하면서, 민족의 동질감을 느끼는 것과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을 통해 북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평양 참관은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박 2일 코스로 20차례 진행됐으며 참여인원은 250여 명씩, 총 5,000여명이었다. 인천 참가자들은 첫 번째로 평양 땅을 밟았으며, 그 후로 다른 지역 참가자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500여명이 참가했다.

북측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광복 6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공연으로 우리 민족의 100년의 역사를 형상화한 장대한 서사극이라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아리랑'은 민족의 정서와 넋이 담겨 있는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민족의 운명사'와 세시풍속을 서사시적으로 표현한 대집단 체조이자 예술공연이며 환영장을 시작으로 서장 · 종장 · 본문1~4장 및 13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60) 인천일보 2005년 9월 6일.

또 아리랑은 민족 100년 동안의 고난과 해방, 한국전쟁 및 민족자주통일의 과정을 장중한 음악을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펼쳐 보이며, 예술 형식면에서도 놀라운 수준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출연하여 카드섹션 및 집단체조와 함께 레이저 영상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아리랑 공연 모습

출처 : (사) 인천겨레하나

〈표 7〉 광복 60주년 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 일정표

첫째 날	09:00 인천공항 출발 10:30 평양 순안공항 도착 12:00 점심식사(양각도 호텔) 및 대동강 주변 관람 14:00 평양유적지 참관 18:30 저녁식사(양각도 호텔) 20:00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아리랑〉 관람(능라도 5·1경기장) 22:30 숙소 도착(양각도 호텔)
둘째 날	09:00 아침식사 10:00 평양 외곽 관람(묘향산, 동명성왕릉 등) 12:00 점심식사(옥류관) 16:00 평양 순안공항 출발 17:30 인천공항 도착

출처 : (사)인천겨레하나

평양 참관은 인천공항에서 남측의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약 한시간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 짧은 거리를 60여년 만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

첫날은 숙소인 대동강변에 위치한 양각도 호텔에 짐을 풀고 점심식사 후 개선문, 만경대 등 평양유적지를 관광했고, 저녁에는 능라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했다.

공연 시작 전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배경대의 카드섹션 연습이 있었는데, 수만 명이 한꺼번에 내는 함성은 관람객들을 압도했다. 10만명이 출연하는 공연은 남측에서는 출연료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공연은 사회주의 국가만이 가능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날은 묘향산과 동명왕릉 등 평양 외곽을 참관하였다.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관람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세계 지도자들이 보낸 선물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남측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이 보낸 선물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점심식사는 옥류관 냉면을 먹었는데, 맛에 대한 평가는 '심심하다'와 '담

백하다'로 호불호가 분명히 갈렸다. 참관을 마친 참관단은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되돌아 왔다.

2) 화해와 평화를 위한 1만 2천인 금강산 기행

금강산 관광은 1998년 4월 40일 남측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 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측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전항을 향하여 출항함으로써 시작됐다. 2003년 9월부터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해로 관광은 중단됐다.

2002년 심각한 재정적자로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금강산 관광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정부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현대아산의 자구책 마련 등으로 2004년부터 정상화됐다[61].

〈표 8〉 금강산 관광객 현황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계
인원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734,696

출처 : 통일부(2008b), 『2008 통일백서』

2004년부터 활기를 띠던 금강산 관광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여 다시 위기에 처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 통일단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긴장으로 남북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양대 축이자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마저도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화해와 평화를 위한 1만 2천인 금강산 기행'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평양 참관과 마찬가지로 그 첫 걸음을 인천참가단이 내딛었다. 인천 참가단은 2006

61) 통일부(2008b). 『2008 통일백서』.

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코스로 시민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와 같은 인천시민의 참여로 북한 핵실험의 여파와 남북 정부 간의 대화채널 중단에도 불구하고 2006년 234,446명이 금강산을 찾는 등 다시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3)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준공식 및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사업 현장방문

2008년 남북 민간사회문화교류협력은 당국 간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 속에서도 각 분야별로 추진됐다. 사회문화분야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557명, 방남 인원 172명으로 2007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런 와중에도 인천지역 대북교류사업과 인적교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양겨레하나치과본부에서 평양에 치과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했으며, 인천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인천시 또한 '평화와 통일의 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방정부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6일~8일에 있었던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준공식에 대표단 70여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평양시내 최대 식당가인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창광거리의 음식점에 설치될 냉·온풍기, 냉장고, 주방기기 등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광거리는 평양역에서 보통문까지 이어지는 380m의 거리로 1980년대 15~39층짜리 고층아파트 30여개동과 북한의 주요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창광거리 인근에는 44층 높이의 고려호텔과 백화점이 있고, 한번에 2천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거리도 있다. 이 거리는 서울의 종로나 명동처럼 평양시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번화가다.

인천시는 또한 2009년 8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축전에 북측의 참가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이 경색된 상황에서 확답은 힘들지만 상황을 봐 가면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인천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62] 인천시는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2009년 4월에 있었던 창광거리 개선사업 준공식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북측 또한 인천에서 열린 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62)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9일.

역시 남북관계 악화로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남북 정부 간의 불신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2005년 인천시 대표단의 평양 방문 때 잠정 합의한 2014년 인천-평양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인천-개성 연계발전 등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나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측 대표단의 전격적인 참가로 '평화와 통일의 도시 인천'으로서 맥을 유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제2절 인도적 지원

1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1995년 대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된 북측이 UN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여 김영삼 정부가 쌀 15만 톤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차관 2조 4,017억 원, 민간 차원의 지원 9,208억 원으로 모두 3조 3,225억 원이다.

역대 정부별 지원 총액을 비교해 보면 김영삼 정부(1995~1997) 2,315억 원,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노무현 정부(2003~2007) 1조 8,910억 원, 이명박 정부(2008~2012) 2,577억 원, 박근혜 정부(2013~2017) 673억 원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 차원 3,488억 원, 민간 차원 909억 원 등으로 모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초기 밀가루, 분유 등 긴급구호성 식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가 점차 농업개발, 삼림복구, 보건의료 등 개발구호성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스킷, 국수, 빵공장 등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 현대화 사업까지 추진됐다.

정부별 지원 총액은 개별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 북미·남북관계의 진전, 대북제재 상황 등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거나 축소됐는데,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 경제, 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됐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됐다.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특히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

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될 수 있는 품목과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사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데, 인도적 대북지원이란 '①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②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③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④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⑤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20년 5월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의 실효성은 상실되었다'고 확인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걸림돌이었던 5.24 조치는 사실상 해제되었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북지원 품목의 구입, 포장, 운반, 전달 등에 관련되어 UN이나 EU, 미국을 비롯한 개별 나라들에서 포괄적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인천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로 승인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그간 사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을 신청하고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았으나 2019년 10월 22일 통일부에서「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9년 11월 21일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아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대북지원 지정 단체는 150개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로 총 11개이다.

2019년 이전까지 인천시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교류협력사업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겨레하나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2004년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열차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마을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피해가 컸고 엄청난 수

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측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구호요청을 했고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곧바로 룡천참사 긴급구호를 시작했다. 남측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룡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표 9〉 연도별 인천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주요내용	지원사항	지원액 (백만원)	주관
2005년	피치(Pitch) 및 페인드 지원	피치 1,000톤 페인트 124톤	3,301	(사)겨레하나
2007년	홍수피해 구호물품 지원	벽지 43,000㎡ 타일 16,500㎡	200	(사)겨레하나
2008년	평양치과병원 현대화사업 지원	의료기기 및 건축재료	297	(사)겨레하나
	평양창광거리 현대화사업 지원	냉온풍기, 냉장고 등	1,007	(사)겨레하나
2009년	대북긴급식량(옥수수)지원	중국산 옥수수 1,000톤	400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0년	함북 온성군 어린이 지원	식재료 및 아동선물	41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양산원 영유아 및 산모 지원	분유 및 우유	100	(사)남북평화재단
	신의주지역 수해 물자 지원	옥수수 700톤	300	(사)우리민족서로롭기운동
	어린이 장애인 지원	급식재료(옥수수, 콩)	37	(사)등대복지회
	영유아 영양, 의료지원	밀가루	58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수해지역 어린이 의약품 지원	의약품, 위생소독용품	110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고아원·양로원 등 지원	밀가루, 내의 등	84	한국JTS
2011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경기도 공동)	유충구제약, 모기향 등	200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중고 자전거 지원	중고자전거 500대 수리비	32	인천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2019년	북한모자보건 증진 원료의약품 지원	원료의약품 12종	300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계			6,467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2019년 정관을 개정하여 (사)겨레하나로 변경
※ 2004년 지원내역은 시민모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제외

경기일보 2004년 5월 10일 월요일 101면 종합

'北 용천돕기' 청소년 바자회

북한 용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9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주부와 청소년들이 바자회에 나온 옷가지 등을 고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gib.co.kr

출처 : 경기일보 2004년 5월 10일

인천시도 '룡천참사' 지원을 계기로 긴급구호 지원을 시작했고 그 이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식량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산모 등을 대상으로 분유, 영양식원료, 생필품, 의약품 등을 지원했으며 병원 리모델링, 방역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초기의 일회성,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발전해 나갔다.

인천시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① 긴급구호 및 물자지원 ②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③ 개발 구호성 기반시설 설립 지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

1) 긴급 구호 및 물자지원

(1) 룡천 참사 지원

○ 시　　기 : 2004년 5월 12일
○ 성　　금 : 22백만원(인천시 공무원, 밀가루 2천 포대 구입)
○ 물　　품 : 170백만원
○ 주　　관 : 대한적십자사

(2) 피치(Pitch) 및 페인트 지원

○ 시　　기 : 2005년 5월 ~10월

○ 지원금액 : 3,301백만원

○ 지원내역 : 피치 10,000톤, 페인트 124톤

○ 주　　관 : (사)겨레하나

(3) 북한 홍수 피해 구호물품 지원

○ 시　　기 : 2007년 12월 27일

○ 지원금액 : 200백만원

○ 지원내역 : 벽지 43,000㎡, 타일 16,500㎡

○ 주　　관 : (사)겨레하나

(4) 대북인도적 긴급식량 지원

○ 시　　기 : 1차 2009년 8월 31일 2차 2009년 10월 20일~11월 25일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지원내역

- 1차 4,200톤(중국 다롄 → 북측 남포항)
- 2차 5,800톤(중국 단둥 → 북측 신의주)

○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 신의주지역 수해 물자 지원

○ 시　　기 : 2010년 9월~10월

○ 지원금액 : 300백만원

○ 지원내역 : 옥수수 700톤

○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 개성공단 인천업체 중고 자전거 지원

○ 시　　기 : 2011년 7월~11월

○ 지원금액 : 33백만원

○ 지원내역 : 중고자전거 500대

○ 주　　관 :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2)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 및 성품 전달

○ 시　　기 : 2004년 6월 1일~8월 20일
○ 모 금 액 : 240백만원
○ 성품전달 :
- 1차 의류 66,170점(122백만원 상당)
- 2차 : 생필품 및 CJ·대한제분 지원물품(118백만원 상당)

○ 모금주체 : 경인일보사(인천시, 교육청, 적십자 등 후원)
○ 북측 수령기관 :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2) 함북 온성군 어린이 지원

○ 시　　기 : 2010년 9월
○ 지원금액 : 41백만원
○ 지원내역 : 급식(빵, 콩우유가루), 선물상자(아동내의, 사탕)
○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 평양산원 영유아 및 산모 지원

○ 시　　기 : 2010년 9월~11월
○ 지원금액 : 100백만원
○ 지원내역 : 분유 및 우유
○ 주　　관 : (재)남북평화재단

(4) 어린이, 장애인 지원

○ 시　　기 : 2010년 11월
○ 지원금액 : 37백만원
○ 지원내역 : 급식재료(옥수수 100톤, 콩 18톤)
○ 주　　관 : (사)등대복지회

(5) 영유아 영양 및 의료 지원

○ 시　　기 : 2010년 11월
○ 지원금액 : 58백만원
○ 지원내역 : 영양식 원료(밀가루 120톤)
○ 주　　관 : (사) 어린이어깨동무

(6) 수해지역 어린이 의약품 지원

○ 시　　기 : 2010년 11월

○ 지원물자 : 의약품(항생제, 수액세트, 영양제, 철분제), 왕진가방(100세트)
위생소독용품

○ 주　　관 :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7)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지원

○ 시　　기 : 2010년 10월

○ 지원금액 : 84백만원

○ 지원내역 : 식량(밀가루, 두유), 생필품(겨울담요, 신발, 체육복 등)
* 식량지원(한국제이티에스), 생필품 지원(인천시)

○ 주　　관 : (사)한국제이티에스

(8) 북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

○ 시　　기 : 2019년 12월 20일

○ 지원금액 : 300백만원

○ 지원내역 : 원료의약품 12종(5,550㎏)

○ 주　　관 :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영유아, 어린이,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북지원, 협력 사업에서 그마나 긴급구호 및 물자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비교적 정세를 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가'북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국제기구·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모자패키지」지원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3) 개발 구호성 기반시설 설립 지원

(1)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지원

○ 시　　기 : 2008년 4월
○ 지원금액 : 296백만원
○ 지원내역
　- 의료부문 : 유니트체어, 엑스레이 촬영기, 컴프레셔, 소독기 등
　- 건축부분 : 출입문(샷시), 택스트 마감재, 페인트, 수전설비 등
○ 주　　관 : (사)겨레하나

(2) 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 사업 지원

○ 시　　기 : 2008년 9월~12월
○ 지원금액 : 1,007백만원
○ 지원내역 : 냉온풍기, 냉장고, 그릇 소독기 등 30종
○ 주　　관 : (사)겨레하나

(3)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 시　　기 : 2011년 5월~7월
○ 지원금액 : 200백만원(경기도 공동추진 500,000,000원)
○ 지원내역 : 유충구제제, 모기향, 진단키드, 방충망 등 4종
○ 수해지역 : 북한 황해남도 7개 지역
　　(해주시, 강령군, 옹진군, 벽성군,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양치과병원 리모델링 사업은 (사)인천겨레하나가 2007년부터 북측과 협의하여 평양시 제1인민병원 내에 구강병동을 개원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인천겨레하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사업본부'를 구성하여 인천시, 시의회, 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회, 치위생학과 등 관련 단체와 사람을 모아 추진했다.

2008년 10월 7일, 평양에서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제1인민병원 구강병동 2층) 준공식이 있었으며 인천시와 의회, 치과의사회 등에서 참여했다. 이 사업은 북측의 구강

의료 현대화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독립병동을 지향하고 전문 치과의학 도서관 설치 등을 계획했다. 또한 의료장비 설비 및 기술이전, 남북 구강의료분야 학술교류 및 시연회 등을 진행하고 연 2회 남북 경험교류를 꾸준히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평양뿐만 아니라 북측 여러 지역에 치과병원 설립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비롯된 5.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치과병원 물자 출항식

출처 : (사)인천겨레하나

평양시 제1인민병원 구강병동 내부의 의료기기를 살펴보는 중

출처 : (사)인천겨레하나

비록 중단되었지만 평양치과병원 리모델링 사업 등 기반시설 설립 지원사업은 일회성, 긴급 구호성 사업에서는 불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의 특성상, 공동대응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육상과 해상, 국경과 경계를 가리지 않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 또한 남북이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공동 사업이다.

3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방향

2004년 남북공동행사였던 우리민족대회와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고 북측 관계자와 선수단, 청년학생협력단이 참가하여 인천시민들과 체육오락경기, 마라톤대회 등 공동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평화통일역량도 강화되었고 긴장완화,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등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인도적 지원사업은 북측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가로막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사업은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재난 대비, 식량 지원, 영유아·어린이·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긴급구호성 인도적 지원사업은 북미,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추진할 수 있고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원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북측에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해양 경계선을 맞대고 있으며 수산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인천의 서해 5도에서 남북 어부들의 협력은 필연적이다,

셋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접경지역 방역 등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인도적 지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꾸준한 인적교류가 가능하게 되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제3절 스포츠 교류

1 인천의 체육 교류사

1) 인천 남북 체육 교류는 현재형

“스포츠 교류는 남북평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수단이자 갈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6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64]에 따르면 "우리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초기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농업 등 개발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중략) 초기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은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행사, 박람회, 엑스포 등 문화행사에서 북한의 관련 단체를 초청하는 이벤트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우리 지방정부들이 북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과 교류협력에 대하여 준비한 것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막혔을 때는 그래도 스포츠교류가 이어졌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다. 이에 "국내외 정치군사적 환경으로 인하여 남북 사이에 일회성 문화행사나 인도적 지원마저 막히게 되면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적 스포츠 대회나 각종 스포츠 행사에서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9월의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들 수 있다. 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도 ‘남북 사이의 긴장과 갈등 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사건이었다.

---

63) 인천일보 2020년 9월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인터뷰.
64) 2015년 12월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 주요 인천 남북 체육 교류

인천의 남북 체육 교류는 크게 교류와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간 인천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남북 체육 교류 행사는 2005년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게임,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등 축구교류와 기타 체육 교류 등이 있다.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는 북측 선수 20명과 응원단인 청년학생협력단 119명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는 약 15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인천 시민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체육 교류는 북한의 4.25 축구단과의 다양한 행사를 들 수 있다. 인천이 주축인 체육 교류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열린 각종 전지훈련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합동전지훈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인천발 남북 체육 지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며 '비전 2014 프로그램'이라는 약소국 체육 지원 교류를 약속했다. 인천시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전지훈련과 체육물품 지원 등을 계획했다. 특히 평양의 낙후한 체육시설 등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인천시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체육 교류를 약속했다. 이밖에 인천시는 정부의 대북기조와 지방정부의 자체의 남북 체육 교류를 발판으로 인천 민간단체 체육 교류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2 인천의 주요 남북 체육 교류 사례

1)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민선 3기 안상수 인천시장 등 방북단 일행은 공식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다. 안 시장은 공항 귀빈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양방문을 계기로 인천이 평화와 번영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 방문을 통해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북한 선수 및 응원단 규모를 확정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개최’ 가능성의 첫 물꼬를 튼 역사적 방문이

었다. 북한 선수단은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은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가 가장 어울리는 도시 중 하나이다.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인천을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 아시아의 스포츠 중심지로 만들어 낼 것이다”는 환영사를 발표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북측 인원은 선수 8명, 임원 12명, 금성학원 학생으로 구성된 청년학생협력단 119명, 기자 5명 등 모두 1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월 28일 고려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8일 입국 첫 행사로 인천시의회가 환영만찬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시, 통일부장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각각 환영만찬을 주관했다.

청년학생협력단은 인천 4곳에서 시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연과 친목운동경기를 가졌는데, 9월 1일 문학야구장 특설무대, 2일 서구문화회관, 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진행했다.

경기 외적으로 이목을 끈 것은 북한의 청년학생협력단이었다면, 경기에서는 남측의 이봉주 선수와 북측의 함봉실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남북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인 이들은 '봉-봉 남매'로 불리며 8월 31일에 진행된 개막식의 성화 최종 주자로 발탁됐다.

함 선수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여자 마라톤 우승자로 당시 남자 마라톤 우승자는 이봉주 선수였다. 함 선수는 이 대회에서 5,000m와 1만m에 출전해 1만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지만, 5,000m 결승전에는 왼쪽 발목골절로 출전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 대회에서 함 선수의 동메달 1개 이외에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참가국 35개 참가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확인된 리설주가 7년 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측 청년학생협력단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리설주는 문학경기장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두 곳의 예술공연에서 합창으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다섯째 민요 4제창 ‘대동강실버들’에 이어 2중창과 방창(가곡을 설명하는 것) ‘꽃놀이’ 등 3번의 노래를 불렀다.

2)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우여곡절 끝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가가 성사됐다. 애초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 인천과 평양의 공동개최 등도 검토됐지만 북한의 소극적 입장에 좌절됐고, 이후 국제정세와 복잡하게 꼬인 남북관계 등으로 북한 참가마저 불발로 끝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대회 한 달여 전인 8월 북한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에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한 총 352명 규모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통일부의 '2014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사업관리이력서에 따르면 종목별로는 축구가 남녀 총 38명으로 가장 많고, 수영 16명, 양궁 8명, 육상 4명, 복싱 7명, 카누 2명, 체조 12명, 유도 10명, 공수도 5명, 조정 8명, 사격 9명, 탁구 10명, 역도 12명, 레슬링 9명 등이었다. 체조 간판 리세광과 여자 탁구 리명순, 리미경, 김송이 등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감독과 코치, 본부 임원 등은 총 273명이고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심판, 취재진 등은 29명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북축구 대결

출처 : 인천광역시

통일부는 북한의 참가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순수 민간 접촉 확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남북 민간교류 확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기금 9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기존과 달리 체류비용 일부인 19만1,682달러를 부담했고, 이와는 별개로 사격연습용 실탄 구입, 조정경기 보트 임대 등 비용도 현장에서 지불(4,100달러)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선수단은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못 미치는 규모로, 비행기로 평양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로 인천에 도착했으며, 이 대회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로 역대 최고인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 관심을 받은 북한 응원단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손광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응원단 규모와 비용, 응원 도구 등의 시비로 북남 실무회담을 끝끝내 결렬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대회 폐막식인 10월 4일 장기간 남북 갈등과 경색 국면에도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최고 실세 3명이 방남해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인지를 두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탁구 스타 리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선수 9명 등 3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수영과 탁구에서 동메달을 각 1개씩 얻어 종합 공동 29위에 올랐다.

3) 인천발 남북 축구 대회

인천시는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후 남북 체육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교 역할은 2003년 창단한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맡았다. 시작은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FC 산하 유소년 축구팀(U-12)과 북한 4.25청소년팀 등의 친선경기였다. 이때 북한의 4.25청소년팀, 양성소팀, 기관차 유소년팀이 인천유나이티드FC 산하 유소년 축구팀과 경기를 했다.

인천시는 이 친선축구대회를 계기로 이듬해 7월 인천에서 개최할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4개국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북측 참가를 기대했으며, 그해 12월 14일 중

국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의 홍타(紅塔) 스타디움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북한 4.25축구팀이 친선경기를 가졌다. 홍타 스타디움은 남북체육교류협회(이사장 김경성)가 2003년부터 임대한 곳으로, 남북 체육 외교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이 경기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기념하고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고 MBC가 독점 중계했으며 북한팀은 친선경기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전지훈련을 벌였다.

당시 인천시 소식지는 인천유나이티드F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남북 체육 교류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이번 남북축구는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FC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존의 남북체육 교류와는 다르다. 이번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중국 쿤밍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북한 4.25팀의 교류전, 합동훈련이 연이어 이뤄졌다. 그해 2월 남북 축구팀은 프로팀과 유소년팀으로 나눠 친선경기를 열어 성인팀은 인천유나이티드FC, 유소년팀은 인천대건고 축구팀이 참가했다. 7월에는 18박 19일 일정으로 북한대표 축구단 소속 유소년 축구팀과 12차례 친선경기를 가졌는데, 인천유나이티드FC 소속 만12세 이하 유소년팀 32명과 전국 3관왕인 가림초교 여자 유소년팀 21명이 참가했다. 이때 인천시는 북한 축구단의 중국 전지훈련에 필요한 항공료와 체재비 등 1억5,0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민선 5기부터 중국 쿤밍에서 열린 축구대회는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로 명명돼 개최됐다. 제1회인 2011 인천 평화컵(U-13)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중국의 쿤밍시 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해 한국(인천유나이티드FC), 중국(쿤밍윈난성대표), 북한(4.25체육단), 태국(방콕 크리스찬 컬리지)이 참가했다.

2011 인천 평화컵 축구대회 개막전

출처 :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은 “이번 대회가 남북 유소년팀 간 정기교류전 개최 및 7회 대회 이후 중단된 ‘경평축구’(서울-평양 간 지역 대항 축구경기)가 인천-평양 간 교류전인 ‘인평축구’로 부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200여일 앞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과 함께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2011년 대회 이후 3년만이다. 2012년에는 북한팀의 내부사정으로 무산됐으며, 2013년에는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팀이 합동훈련에만 참가해 경기는 무산되었다.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왕중왕전에는 인천광성중학교 유소년팀과 북한 4.25체육단 유소년팀, 중국 광저우 제23중학교 선발팀이 출전하였다. 별도로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북한 4.25축구단 남자종합팀, 중국 광저우 프로팀간 친선경기도 열렸다. 남북 성인팀간 경기는 2005년 8월 이후 처음이었으며, 이 대회에서 북한 4.25유소년팀이 광성중을 5대1로 이겼고, 성인팀 또한 북한 4.25축구단이 인천유나이티드FC에 2대0으로 승리했다.

인천시는 북한 남녀 축구팀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발표를 기념해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남자 부문에 이어 여자 부문까지 확대 추진해 2014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남북한과 중국이 참가한 인천 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U-15) 축구대회를 지방정부 최초로 개최했다. 3월 15일 열린 인천 가정여중팀과 북한 4.25 여자 유소년 축구단의 경기에서는 가정여중이 북한 4.25 선수단에 1대 5로 패했다.

민선 6기인 2015년 2월 2~4일 인천시가 남·북·중 축구대회를 중국 청두에서 개최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어, 인천에선 인천유나이티드FC가, 북한은 4.25축구단, 중국에서는 충칭 프로축구팀이 참가했다. 2월 3일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가 북한 4.25축구단에 2대0으로 졌다.

이 대회와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65]

4) 기타 인천 남북 체육 교류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에서 북한팀 전지훈련이 성사될지 관심이 컸다.[66] 당시 인천시는 실·국별 간부회의를 열고 '남북 스포츠 교류 및 화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그해 인천시의 〈비전 2014〉 사업비 93만달러 중 대북 사업비로 41만달러를 책정해 통일부로부터 남북 스포츠 장비 지원 반출 승인을 받았다.

지원된 장비는 중국 단둥 축구화 700켤레와 양궁장비 5세트 7만 달러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축구와 양궁팀의 인천 전지훈련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양궁 종목에서만 전지훈련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북한 대표팀의 전력 노출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

2018년 2월 4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스웨덴과 첫 평가전을 열었는데,[67]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

65) 인천일보 2015년 2월 4일.
66) 인천일보 2014년 5월 13일
67) 경향신문, 2018년 2월 4일.

는 평가전으로,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한아이스하키연맹은 1월 29일 2층(1만6,500원)과 3층(1만1,000원) 2,945석을 판매했지만 30일 전좌석이 매진돼 관심이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단일팀 반대를 주장하며 북한의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벌인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이 대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시가 2019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브리핑'을 통해 "인천은 국제대회에서는 유일하게 최근 5년 내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참가 규모는 45개국, 선수 1만3천여 명이었다. 이 대회를 위해 새로 지은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국제대회 진행이 가능한 경기장이 지역 내 16곳이나 된다"고 언급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북 단일팀의 인천 전지훈련 추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3 인천발 남북 스포츠 지원 교류

1) 평양 체육단 현대화 사업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항목이 있다.

2005년 안상수 시장 등 방북단이 남북 간 '신뢰'를 언급한데 이어, 2005년 11월 인천시 경제대표단의 북한 방문으로 다시금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2007년 11월 8~10일 인천시가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준공식 지원했다.

평양 서북쪽 사동지구에 1984년 건립된 뒤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베스트필드코리아란 국내 인조잔디구장 건설업체가 10월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 페인트, 정비차 등을 갖고 평양에 들어가 북한의 인력 지원으로 인조잔디를 깔았다.

이 사업에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FC, 평화3000,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공동으로 1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그해 5월 개성에서 남북 친선 축구경기 개최와 평양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양시체육단은 4.25체육단, 리명수체육단과 함께 북한의 3대 체육단으로 불리며, 남녀 모두 축구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68]

기호일보 2007년 11월 12일 월요일 001면 종합

평양에 잔디축구장 '선물'

인천시 방북단, '南 기술 北 인력' 합작 성사

지난 5월 '개성 합의서' 이행 결실
안상수 시장 "남북교류 촉매 기대"

평양시 각 축구단이 연습하는 평양시내 한 축구장이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으로 변랑 축구장에서 인조잔디축구장으로 탈바꿈했다.

〈관련기사 14면〉

인천시는 지난 9월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해 대북 인도지원 사업 NGO '평화3000' 신명자 이사장, 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안종복 인천유나이티드 사장,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안민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150여 명의 방북단이 평양시를 방문해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인조잔디 기증식'에 참석했다.

평양 서북쪽 시동지구 평양시체육단 축구경기장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 1개 구장을 '베스트필드코리아'란 국내 인조잔디구장 건설업체가 지난달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 페인트, 점비차 등을 갖고 평양을 찾아 북한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이번에 새롭게 인조잔디로 수놓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 평화3000, 체육진흥공단 등이 공동으로 10억5천만 원의 공사비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개성에서 인천시, 인천유나이티드, 평양시체육단 축구단이 남북친선 축구경기 개최와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북한에 우리 기술로 초록빛 잔디구장이 들어서니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이번 사업이 남북교류로 이어지는 촉매제를이 됐으면 하고, 북한은 좋은 인프라로 기틀을 항상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시장은 "북측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북한 분산 개최와 함께 2000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평양시 참가를 제안했다"며 "물론 당장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탐승한 평양시체육단장은 "인천시와 여러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답했다.

평양 = 최유탁 기자 cyt@khalba.co.kr

평양시체육단축구장 준공식 참관단의 방북 이틀째인 지난 9일 공사가 마무리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을 둘러본 참관단과 안상수 인천시장이 림승한 평양시체육단장에게 축구장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기호일보 2007년 11월 12일

2) 인천비전 2014 프로그램과 북한

「OCA-인천 비전 2014 프로그램」(이하 '인천비전 2014)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치활동 과정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아시아 스포츠 발전 프로그램으로 OCA의 각종 활동과 각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의 국제적 위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제안한 사업이다. 대회 후 현재까지 비전2014 프로그램의 숭고한 가치를 잇고자 유산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아시아의 평화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69]

인천비전2014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000만 달러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OCA 45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이 1인당 1만 달러 미만인 체육분야 약소국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단 전지훈련, 지도자(코치) 파견, 장비지원

68) 기호일보, 2007년 11월 12일.
69) 인천광역시, 2020 체육분야 업무보고 중

과 OCA 주관 각종 국제대회 및 스포츠 문화행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인천아시안게임 조별 예선전부터 대승을 이어가며 옛 명성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면에는 '인천 비전 2014 프로젝트'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70]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직전 불발로 끝난 북한 양궁대표팀 전지훈련도 비전2014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 북한 양궁대표팀 선수와 지도자 16~17명이 인천에 들어와 아시안게임 양궁경기가 열리는 계양아시아드 양궁장(계양경기장)에서 2주가량 훈련할 계획이었지만 사정상 성사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비전2014프로그램에 따라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한 우호협력 및 평화증진 기여'를 목표로 '2010년 중국 쿤밍 유소년 남북합동 축구전지훈련'에 60명 분 7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차 2013년 11월 단둥축구화 1,000켤레(10만 달러), 2차 2014년 4월 단둥축구화 500켤레, 양궁 3세트(7만 달러), 3차 2014년 9월 단둥축구화 750켤레, 양궁 5세트(10만 달러) 등 총 3회에 걸쳐 27만 달러 분의 장비를 지원했다.[71]

70) 경인일보, 2014년 10월 1일.
71) 인천광역시, 주요 체육분야 성과 중.

제4절 학술/문화교류

1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의 시작

인천시의 대북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2004년 '우리민족대회'를 통해서였다. 인천은 1984년 북한이 서울·경기지역 홍수피해 복구용 구호물품을 인천항으로 보내 남북교류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인천시가 주체로 나서 북한과 교류를 추진한 시점은 우리민족대회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에는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만들어졌고,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시 산하 전담팀이 신설돼 본격적인 대북교류를 시작했다. 인천의 남북교류는 우리민족대회를 통해 남북 문화예술 직접교류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인천시의 대북교류사업에서 문화예술과 학술 관련 교류는 부진했다.

특히, 학술교류로 대표되는 역사분야는 전문가 위주의 교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시간과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 등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문화예술교류 역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기간 등의 문제로 쉽게 실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인천시에서 추진해왔던 문화예술교류와 학술교류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했다. 또 그동안 인천시가 진행한 정책연구 중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천 남북교류 사업의 씨앗, 우리민족대회

2004년 인천에서 개최된 우리민족대회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당시 행사를 앞두고 인천 전역에서는 통일문화제와 연극제,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행사가 열려 분위기가 고조됐고, 본 행사기간에는 남과 북 예술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민족대회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이끄는 예술단원을 비롯한 북측 관계자 103여 명, 재일동포 등 해외동포 참가단도 함께 인천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문학경기장 일대에서 6.15㎞를 달리는 단축마라톤에는 남과 북 대표들이 함께 달렸고, 남과 북 예술단은 문학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인천시민들과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 환호와 함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민선 3·4기, 우리민족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인천시 남북교류는 인천시정부 대표단과 경제대표단의 방북,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가 발족돼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우리민족대회

출처: 오마이뉴스, 저작권자: 전대기련

2 강화와 개성, 고려로 잇는 남북교류

인천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 역사문화 자원은 강화지역의 고려유적과 유물들이다. 역사문화와 관련된 남북교류 역시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이후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활발했던 체육과 보건, 인도적 지원 등과 달리 진척이 없었던 역사문화 관련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7월, 인천시 출연기관인 '강화고려역사재단'이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출범 고유제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강화고려역사재단은 2014년 강화와 개성의 고려시대 유적·유물을 비교하는 사진전인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두 개의 수도, 하나의 마음" 전시회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시립박물관, 강화종합전시관에서 세 차례 개최했고, 이 사진전은 현재까지 고려왕릉과 유적 등을 주요 주제로 전시구성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은 2015년 11월 5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결과보고회에도 참가해 만월대와 고려 태조 왕건의 '현릉' 등의 유적도 답사하는 한편, 남북 역사문화교

류의 핵심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기초 네트워크 형성에도 성과를 거둬냈다.

이후 강화고려역사재단은 2017년 3월 1일 인천문화재단에 통합돼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로 재편됐고 이후 2018년 인천역사문화센터, 2020년 인천문화유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합한 이후 인천문화재단은 남북 역사문화교류 사업 방향을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으로 설정하고, 2018년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린 '두만강포럼'에 참석,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경기문화재단과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임진예성포럼'을 창설해 3년째를 맞고 있다.

인천·경기와 인접한 황해도 지역의 '역사·고고·민속'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임진예성포럼'을 통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중국 연변대 연구진이라는 우회로를 확보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역사학계와의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향후 북한 역사학자들의 포럼 참가, 공동학술연구·조사 등의 직접 교류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임진예성포럼은 2018년 11월 중국 연변대학에서 '고려의 대외교류와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 유적 비교'를 주제로 첫 포럼을 진행했다. 2019년 1월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북의 고구려와 발해유적의 고분벽화 양식을 연구한 연변대 교수가 참석해 그 성과를 인천에서 공개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2019년 인천에서 열린 제2회 임진예성포럼은 '남·북한 중세왕릉의 세계유산 교차 확장 등재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 역사지구에 강화 고려 왕릉·고분을 포함하는 확장 등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5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도 협력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던 주제가 임진예성포럼에서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는 학술연구로 이어진 것이다.

임진예성포럼에서 다뤄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확장등재 관련 주제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북한 '개성역사유적지구'에 강화 고려 왕릉 4기를 연계하고, 남한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조선왕릉에 북한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왕비인 신의왕후의 제릉과 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인 후릉을 교차해 '확장 등재'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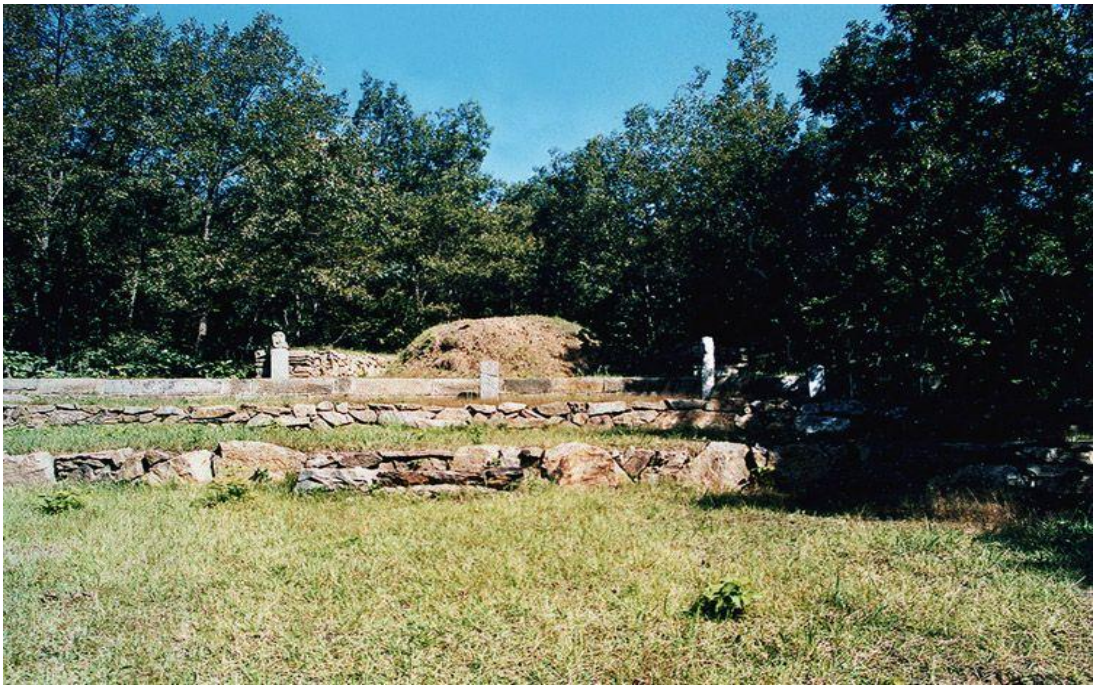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는 등재 당시 미발견 상태였거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라도 등재 유산의 완정성과 진정성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을 확인하면 확장 등재라는 개념으로 등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2회 임진예성포럼 포스터

유네스코 확장등재는 강화와 개성의 고려시대 유산이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역사문화 관련 직접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후 관련 연구에서 유네스코 확장 등재와 연계한 남북 공동연구와 조사,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제안됐다.

강화에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천도 시기(1232~1270년)에 만들어진 고종의 무덤 홍릉과 희종의 무덤 석릉, 원종의 왕비 순경태후의 무덤 가릉, 강종의 왕비 원덕태후의 무덤 곤릉 등 총 4기의 왕릉급 고분이 있는데, '개성역사지구'가 고려시대의 유적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유적도 포함하는 '개성'의 도시 유적이기 때문에 개성 밖에 위치한 강화의 고려왕릉을 '개성역사지구'의 유적으로 확장 등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강화 석릉

출처 : 인천광역시

다만 인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남북교류사업의 모색과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인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재발견, 재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2020년 2월부터 남북교류사업TF를 설치하여 역사문화 분야를 비롯해 인천의 평화 관련 자원을 발굴하는 평화스토리텔링, 인천시 남북교류의 과정을 정리하는 남북교류백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남북정상 간 합의실현의 핵심특별지대 인천

인천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인천시의 학술·정책 연구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을 학술·정책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남북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2011년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구상과 함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 인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남북관계 및 통일부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서해평화정책포럼이 창립돼 강화지역 고려사와 환황해 교류 역사, 서해 5도 등을 포함한 평화의 섬 실천 전략, 해주-개성-인천 평화삼각지대 형성 방안 등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과 학술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2014년 제10차 서해평화정책포럼을 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19년 5월 서해평화포럼으로 재개됐고, 더 넓은 연구 주제를 다루기 위해 현재 황해평화포럼으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이다.

1)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연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남북교류와 관련한 연구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제안할 정책들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2007년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이후에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한 인천지역의 물류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서해 5도와 강화·교동 등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및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인천연구원의 학술 연구는 당초 개성공단 가동에 맞춰 경제협력과 접경지역에 중점이 놓였지만, 최근에는 평화도시와 관련된 실현 방안과 전략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2012년~2014년까지 운영된 서해평화정책포럼과 2019년 이를 계승한 황해평화포럼 등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9년 마무리된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방안과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종합했고 추진 전략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사업 진행 방식도 담았다.

서해평화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출처 : 인천광역시

〈표 10〉 인천연구원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목록

연도	제목	연구자
2008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한 인천지역 물류분야 대응방안	강승호 외
2008	남·북·중 산업협력에 있어서 인천의 역할	강승호
2011	인천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강승호
2011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특화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강승호
2012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및 실천 방안	김수한
2012	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김수한
2014	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방향 연구	김수한
2018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김수한
2019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김창수 외
2020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남근우
2020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평화자원 활용방안	남근우

출처 : 인천연구원

2) 평화의 뱃길 한강하구

평화도시 인천과 관련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더불어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는 '한강하구'에 대한 제안들이다. 한강하구는 한강·임진강·예성강이 합쳐져 서해로 흘러드는 곳으로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에 이르는 67㎞ 구간이다. 서해 5도-교동-한강, 교동-예성강 하구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존재했고, 중국 지역과 연결되는 황해횡단 항로의 주요거점인 곳이다.

황해평화포럼은 여러 토론회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강하구 인천권역과 관련,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한강하구를 통한 '평화 바닷길 연구·복원 사업', 북한 황해남·북도와 남한의 인천과 김포, 파주 등 여러 지역에 걸친 공간에 대한 생태환경협력 조사 등을 통한 한반도 생태계 보호·관리 거점 역할 추진 등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한강하구는 지난 2018년 12월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된 이후,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민간선박의 항행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림 4〉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박영석 기자 / 2018110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출처 : 연합뉴스

3) 인천이 주인공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는 분쟁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전환시켜 군사적 대치가 아닌 경제협력으로 나가자는 지향을 담고 있다.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는 인천의 강화와 교동, 서해 5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천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간 협의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해 5도 인근에 조성될 남북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어업권 설정과 해상파시 등의 논의에서 서해 5도 어민들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를 가는 항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성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예술, 또 하나의 평화 기반

2004년 우리민족대회를 시작으로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학술문화교류와 마찬가지로 예술 관련 남북교류 역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업은 '강화고려 유물' 관련 전시와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가 유이하며, 대부분의 예술관련 사업이 음악회와 콘서트 같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예술 교류 사업이 가진 특성과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예술계와의 직접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동안 경색돼 왔던 남북관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또 예술 교류는 그 방식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예정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손실 역시 만만치 않아 직접 교류가 쉽지 않은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분야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평화도시 인천

이라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향후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이뤄져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표 11〉 인천시가 추진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목록

연도	사업명
2004	'6.15공동선언발표 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
2011	제1회 인천평화예술프로젝트
2012	제2회 인천평화예술프로젝트
2013	제3회 인천평화예술프로젝트
	6.15선언 13주년 기념 북한미술전
	6.15선언 13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2014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종교인평화 음악회
	제1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2018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2018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2019	2019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평화가 흐르는 수요콘서트'
2020	2020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조선화가 황영준 展

출처 : 김수한·전유정(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통일분야」, 인천연구원. 발췌 및 편집 수정

1) 유작으로 돌아 온, 월북한 조선화가

2020년 1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조선화가 황영준展'에서는 북한 최고의 조선화가로 평가받는 황영준(黃榮俊, 1919~2002)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됐다. 특히 작가가 북에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2001년 완성한 '금강산 화책'과 '풍경화조화' 등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공개돼 의미를 더했고, 황영준 작가의 월북으로 남한에 남겨진 가족들도 전시회장을 찾아 불발된 이산가족 상봉의 한을 유작으로 달랬다.

황영준 작가는 북한에서는 조선화의 기틀을 닦고 번성시키는 데 앞장서 1988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조선화가로 2002년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갑자기 타계했다.

황영준 전시회 포스터

출처 : 경인일보

조선화가 아카이브 황영준 展-봄은 온다

출처 : 인천시 인터넷 방송

2) 두 개의 수도, 강화와 개성

2014년,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과 전란을 피해 40년간 수도 역할을 했던 강화 지역의 고려 유물 사진 150여 점이 사진전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기호일보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013면 문화

고려 역사 유물 '만나러 갑니다'

고려의 역사와 유물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두 개의 수도, 하나의 마음'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 오픈했다.

강화·개성 옛 사진 등 150여 점
인천문예회관서 7일까지 전시

'두 개의 수도, 하나의 마음'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시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7일까지 이어진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아시안게임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인천시민에게 강화와 개성의 역사적 연계성을 알리고, 남북 역사공동체 인식 확대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기획됐다.

사진전은 '개성, 500년 고려 역사의 터전', '강화, 또 하나의 고려 수도', '두 개의 기억, 하나의 마음'으로 세분화해 역사학자와 예술가가 촬영한 강화·개성의 사진과 옛 지도, 동영상 등 모두 150여 점을 공개한다.

또 오는 7일까지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1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전시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사진전 개최의 의미를 소개하는 특강도 준비된다.

강화고려역사재단 관계자는 "강화와 개성의 고려 유물·유적에 대한 시공간적 대비를 예술가의 안목으로 재현한 사진전"이라며 "우리 역사의 흔적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2014년 10월 2일

‘두 개의 수도, 하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진전은 이후 전시 구성을 조금씩 바꿔 개성과 강화의 고려시대 유물과 풍경들을 선보이고 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은 개성의 고려왕릉 사진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개성을 방문한 국내·외 연구자의 촬영 사진들을 수집해 전시로 구성했다.

2020년 진행된 전시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강화와 개성, 고려의 왕릉’ 라는 주제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에서 개최했으며, 전시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천문화재단은 향후 고려시대 유적과 관련한 남북 교류 사업을 계획,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부터‘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3) 평화를 노래하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인천평화창작가요제는 인천 지역 민간단체인 ‘인천사람과문화’와 ‘문화바람’이 기획하여, 2014년 인천시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아 첫 행사가 시작되었다. 2020년 현재 6회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천지역 대표 창작가요제이다. 첫 회 177개 팀이 예선에 참여한 이후 매 회 130여 팀이 참여, 명실상부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평화가요제로 성장했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 모습

출처 : 김상우

첫 행사 이후 남북교류기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인천시민들의 후원을 비롯,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다시금 매년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출처 : 김상우

평화, 통일과 관련된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만 기억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인천평화창작가요제는 다양한 주제로 평화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곡들은 매년 음반으로 제작되고, 각종 음원사이트에도 등록,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기반을 쌓고 있다.

2019년에는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역대 수상팀들로 이뤄진 공연 '평화가 흐르는 수요콘서트'가 인천시 남북교류기금 사업으로 다시 선정돼 인천지역 5개 문화공간에서 순회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4) 서해 5도에 평화를 불러올 미술 프로젝트

제1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포스터

출처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평화예술프로젝트는 섬 전체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들고 남북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예술작품 활동과 교류를 진행하면 자연스레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획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남북 직접 예술교류를 위한 준비 사업이다.

2011년,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인천 시각예술인들과 문인들의 작업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3년까지 3년간 진행됐으며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공간도 운영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2018년부터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예술제의 기반을 쌓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인천문화재단은 2021년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아우르는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을 출범시켜 재단 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남북교류 및 평화예술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를 핵심 주제로 재단 전체의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장르간 협업을 통한 인천의 평화자산 발굴과 연계 사업 기획,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교류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5 앞으로의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현재 인천시는 남북 직접교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평화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남북 역사학자 간 고려시대를 주제로 하는 남북역사학술대회, 강화-개성 간 고려왕릉 공동조사와 유물 순회 전시, 강화-개성 간 교차 수학여행 등의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시가 준비 중인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 사업은 강화와 개성, 고려의 역사유물을 간직한 두 도시의 학생들이 교차 수학여행으로 유적지를 둘러보며 온전한 고려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기획이다. 강화와 개성 두 곳의 중고등학생 각 80여 명이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교차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은율탈춤,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등은 황해도 지방과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인 만큼 이를 활용한 교류 전략도 연구되고 있다. 인천과 북한이 보유한 무형문화자원을 공동으로 발굴·보존·기록화하는 작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무형문화 자원을 활용해 민속문화축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제주도와 파주, 수원이 참여하고 있는 UN평화사절도시연합회와 평화시장회의 등 국제적 네트워크 참여도 진행되고 있다.

제5절 경제 분야

1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경제교류의 필요성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은 단순히 북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경제교류는 북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남에도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하여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 등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경협의 필요성은 남북의 경제적 격차 해소, 통일비용의 상쇄 효과 등 소통과 협력에 의한 상생 사업이다. 독일 통일 전, 서독은 20년 동안 매년 32억 달러 수준의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동독인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이라는 선택을 이끌었다고 한다.[72]

남북통일에 중요한 남북경협은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됐으며 그나마 남북경협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중단됐다. 남북경협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는 1998년 제주도의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이 시초로 인정되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라 시작한 것으로 당시 외신들이 '비타민 C외교'라고 기사화하기도 했다.

남북 간 경제교류는 크게 1980년대 이전의 선언적 제의 시기와 1980년대 구체적인 사업과 방식에 대해 남북 간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 1990년대~2010년 5.24조치까지 실제로 남북 간 경제교류가 진행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73]

남북 경협은 1972년 남북 간 최초의 합의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에 기초해 같은 해 11월 30일 발족한 남북조절위원회 산하에 경제분과위원회를 두기로

72) [남북경협①] 독일 통일 사례로 본 남북 경협, 2016.12.13. 네이버 블로그.
73) 남근우(2020).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인천 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합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남북 간 이견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남북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진행했는데, 남측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7월 7일 발표된'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이 선언에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따라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정치·경제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6개 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6개항[74] 중 3, 4번째 항이 경제교류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7.7선언 이후 10월 7일 단행된 대북 경제개방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허용되었고, 1988년 10월에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어 1989년 북한과의 교역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1990년대~ 2010년 5.24조치 시기는 남북 간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로 1990년대에 들어와 남북경제협력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시대가 시작됐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과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됐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은 중단됐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2013년 임시 가동중단을 거쳐 2016년 2월 16일 북의 광명성호 발사에 따라 남측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남북의 경제교류와 관련해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합의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해, 경제협력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전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74) 6개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1)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2)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3) 남북 간 교역 개방,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역 불 반대, 5) 남북 간 대결 외교 지양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지원, 6) 북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개선,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 등이다.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문 제5항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으며 나아가 군사적 충돌 방지 및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합의했다.

10.4공동선언에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포함됐으며, 2007년 11월 개최된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설치, 한강하구 현지 공동조사 등에 합의했다.[75]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폐쇄로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성과는 거의 없었다.

문제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중 93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서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통한 민간·지방정부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고 적시하였다.[76] 특별한 점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제도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7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등을 국정과제로 삼아 단일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상정하고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그리고 DMZ 환경·관광벨트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의미는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만들기입니다."라는 표현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 금강산 관광으로 8천 9백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한 개성공단의 사례, 파주 일대의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75) 김동성·이성룡(2018).「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이슈&진단(342), 경기연구원, 8-9쪽.
7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앞의 책, 134쪽.
77) 김형수(2018). 앞의 글, 117쪽.

따라서 평화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인천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한반도 3대 경제벨트에서 환서해권경제벨트이다. 환서해권경제벨트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개성,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산업벨트라고 요약할 수 있다.

환서해권경제벨트는 남과 북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과 북의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은 2개의 경제자유구역, 북은 12개의 특구 및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도 남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도시'와 '산업생산'여건이 동해안경제벨트보다 우수하며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과도 인접하여 향후 대중국 경제교류에서도 서해안경제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3개 권역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78)]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 5분야 중 '경제 분야는 비핵화와 관련된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올해 안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하며,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 한다.'고 합의하면서 경제 분야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중심 분야가 되고 있다.

〈표 12〉 문재인정부의 남북한 공동선언이 내용 중 경제부분 발췌

판문점선언(2018.4.27.)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평양공동선언(2018.9.19.)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78) 이현주 외(2018).「한반도 신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남북경제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대북투자사업), 비상업적 거래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남북교역에서 반입과 반출 부분의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비상업적 거래를 비교하고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 기간의 총거래액은 20,562백만 달러이고, 위탁가공은 4,030백만달러(19.6%), 경제협력은 14,868백만달러(72.3%), 비상업적 거래는 1,664백만달러(8.1%)로 나타난다. 전체 비중에서 반입은 10,251백만달러(49.8%)이고 반출은 10,311백달러(50.2%)로 3개 부분의 합계에서는 반입과 반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다.

위탁가공은 총규모 4,030백만달러(전체대비 19.6%)로 그중에서 반입은 3,128백만달러(77.6%), 반출은 902백만달러(22.4%)로 반입 비중이 높고, 경제협력은 총규모 14,868백만달러(전체대비 72.3%) 중 반입이 7,110백만달러(47.8%), 반출 7,758백만달러(52.2%)로 반출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업적 거래는 총 거래액 1,664백만달러(전체비중 8.1%)로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반입은 13백만달러(0.8%)로 미미하고 반출은 1,651백만달러(99.2%)로 대부분 반출인 특징이 있었다. 비상업적 거래에서 반출이 높은 것은 주로 남에서 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4년 이후 교역거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3년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추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기간에는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거래규모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 13〉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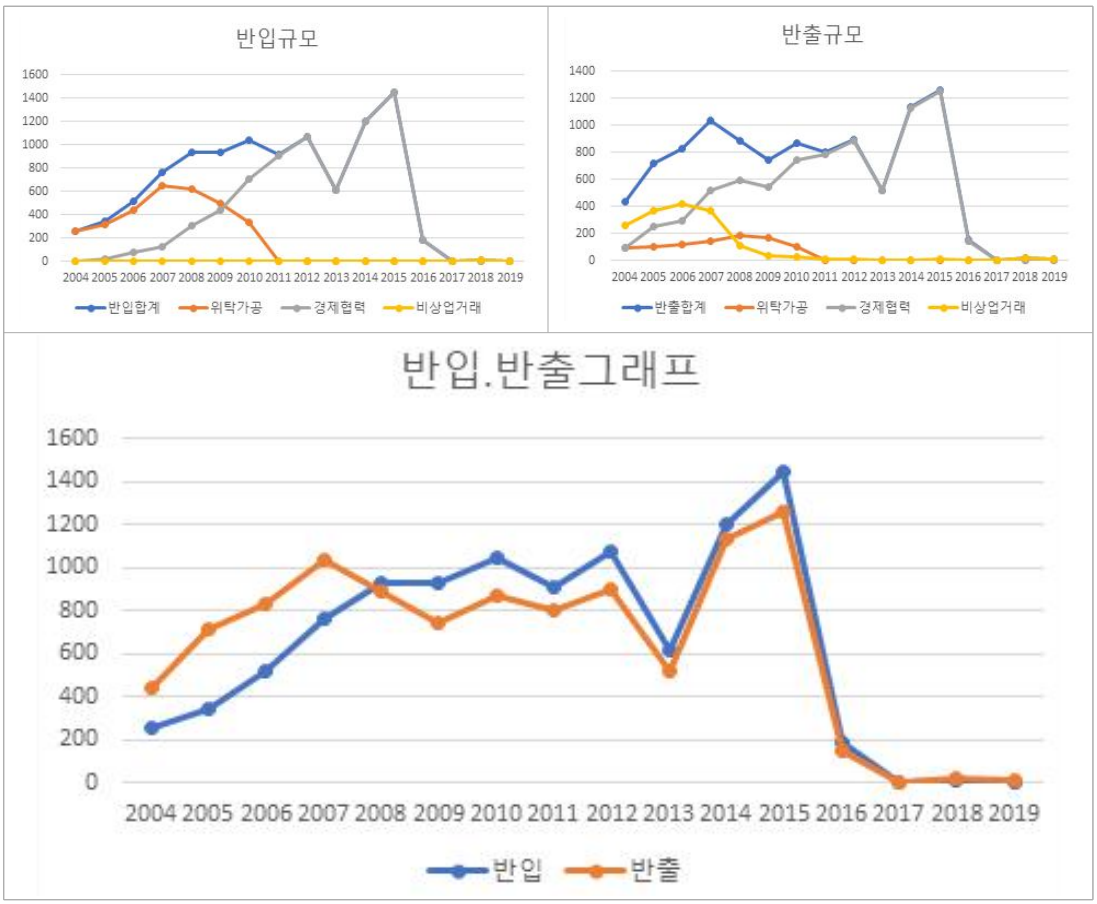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시점	반입				반출			
	합계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 협력	비상업 거래	합계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 협력	비상업 거래
2004	258	258	0	-	439	89	89	261
2005	340	320	20	0	715	99	250	366
2006	520	441	77	1	830	116	294	421
2007	765	646	120	0	1,033	146	520	367
2008	932	624	308	0	888	184	596	108
2009	934	499	435	0	745	167	541	37
2010	1,044	334	710	0	868	101	744	23
2011	914	4	909	1	800	-	789	11
2012	1,074	1	1,073	-	897	-	888	9
2013	615	1	615	-	521	-	518	3
2014	1,206	0	1,206	0	1,136	-	1,132	4
2015	1,452	0	1,452	0	1,262	-	1,252	10
2016	186	0	185	-	147	-	145	2
2017	0	-	-	0	1	-	-	1
2018	11	-	-	11	21	-	-	21
2019	0	-	-	0	7	-	-	7
합계	10,251 (49.8)	3,128 (77.6)	7,110 (47.8)	13 (0.8)	32,184 (50.2)	902 (22.4)	7,758 (52.2)	1,651 (99.2)

※ 출처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자료마당

※ 주석 : 경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기타 경공업협력),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민간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 사업)

〈그림 5〉 반입 · 반출 그래프



2004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남북교역에서 교역품목과 교역 건수를 반입과 반출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기간 교역품목의 총개수는 14,987개로 나타났고 반입품목 개수는 5,227개(34.9%), 반출품목 개수는 9,760개(65.1%)로 반출품목이 반입품목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역건수는 총 751,043건으로 반입건수는 345,612건(46%), 반출건수는 405,389건(54%)이다. 교역 금액과 교역 건수는 반출과 반입이 비슷하고, 교역품목은 반입보다 반출의 비중이 30.2%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이후 교역품목과 교역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을 계기로 확연히 줄어든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자료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교역액과 교역품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2013년 잠정중단조치 등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큰 변동 없이 거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14〉 남북교류 교역 품목 및 건수 현황

(단위: 개, 건, 백만 달러)

구분	반 입			반 출		
	교역품목	교역건수	교역금액	교역품목	교역건수	교역금액
2004	202	5,940	258	575	6,953	439
2005	381	9,337	340	712	11,828	715
2006	421	16,412	520	697	17,039	830
2007	450	25,027	765	803	26,731	1,033
2008	482	31,243	932	813	36,202	888
2009	486	37,307	934	771	41,293	745
2010	448	39,800	1,044	740	44,402	868
2011	363	33,762	914	676	40,156	800
2012	377	36,504	1,074	705	45,311	897
2013	359	20,566	615	644	25,562	521
2014	349	38,460	1,206	697	47,698	1,136
2015	362	45,640	1,452	718	55,267	1,262
2016	226	5,352	186	447	6,072	147
2017	1	1	0	60	3	1
2018	238	212	11	410	487	21
2019	82	49	0	292	385	7

출처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자료마당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협력사업 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협력사업은 총 612개 사업, 협력사업자는 458개 사업자를 승인했다. 그 중에서 경제협력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사업 승인에서는 총 467건(76.3%)을 차지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에서도 335명으로 73.1%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협력사업 승인은 2007년과 2008년에 169건과 62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2015년까지 지속되다가 2016년 이후 전혀 없는 상태이며, 사업자 승인의 경우 경제부문은 2007년과 2008년에 175명, 63명까지 승인됐다가 2009년부터 전혀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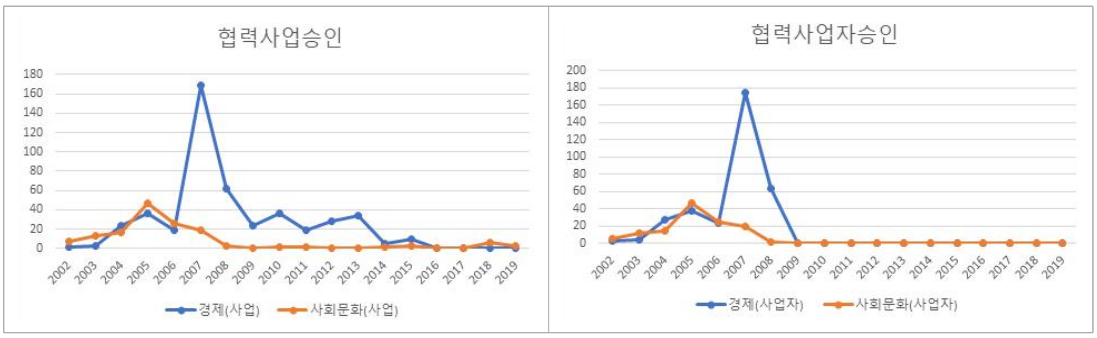
〈표 15〉 남북교류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

시점	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자 승인		
	합계	경제	사회문화	합계	경제	사회문화
2002	8	1	7	8	3	5
2003	15	2	13	16	4	12
2004	39	23	16	42	28	14
2005	83	36	47	85	38	47
2006	45	19	26	49	24	25
2007	188	169	19	194	175	19
2008	65	62	3	64	63	1
2009	23	23	-	-	-	-
2010	37	36	1	-	-	-
2011	20	19	1	-	-	-
2012	28	28	-	-	-	-
2013	34	34	-	-	-	-
2014	6	5	1	-	-	-
2015	12	10	2	-	-	-
2016	-	-	-	-	-	-
2017	-	-	-	-	-	-
2018	6	-	6	-	-	-
2019	3	-	3	-	-	-

출처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자료마당

〈그림 6〉 남북교류 협력사업 규모그래프



개성공단 방문인원과 방문차량의 현황은 〈표 16〉과 같으며 2009년부터 폐쇄되기 직전 연도인 2015년까지를 살펴보면, 방문인원은 연평균 114,262명이고 방문차량은 82,932대다. 1일 평균으로 나누면 하루 313명과 약 227대의 차량이 개성공단을 왕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16〉 개성공단 방문 현황(연도별)

(단위: 명, 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방문 인원	111,830	122,997	114,435	120,119	75,990	125,940	128,524	799,835
방문 차량	72,597	83,566	82,954	89,960	55,580	95,924	99,947	580,528

출처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자료마당

3) 인천광역시 경제교류의 역사와 환경

인천광역시의 남북경제교류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시가 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 펼치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2004년 우리민족대회를 서울과 평양이 아닌 지방도시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 있다.

이후 2004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면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2005년 2월에 정책기획관실 내에 남북교

류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연간 40억씩 5년간 200억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기금은 시민(법인·단체 포함)의 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시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79]

2005년 5월 30일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대표단 42명(시, 시의원, 시민단체, 지역경제인, 언론인, 아시아조직위 등)은 평양을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공동개최와 인천시가 북한에 체육시설, 호텔, 도로 건설과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자재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하고 돌아왔다.

또 6.15남북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따라 다방면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9월 1~4일 인천에서 열리는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청년학생협력단을 포함한 대표단 파견, 경제, 축구를 비롯한 체육, 문화, 예술 분야 협력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 야망에 대한 공동대처 등도 합의했다.[80]

이에 따라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청년학생협력단이 왔고 2007년 평양시체육단 축구장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대화 사업 준공을 기념하여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북한 4.25축구단 및 유소년팀 사이의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인천시는 경제대표단을 52명(시 8명, 경제인 29명, 항만공사 10명, 기타 5명)으로 구성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과 남포시를 공식 방문했는데, 이 방북은 2005년 5월 평양을 방문한 안상수 시장의 경제 분야 교류 확대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 이루어졌다.[81]

경제대표단은 평양과 남포를 방문하여 남포항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는 인천항이 북의 항만과 교류 협력시대를 처음 연 것이며, 인천시와 평양·남포 간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문이기도 하였다.

인천시는 당시 방문을 통해 강화 철산리와 개성 고도리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개성공단 내 인천전용공단(개풍) 설치, 인천항과 남포항의 공동발전방안, 서해안 중국어

79) 이준한(2015). 앞의 글, 48쪽.
80) 한겨레 신문, 2005년 6월 22일자 신문기사 “인천평양 2014년 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81) 이준한(2015). 앞의 글, 53쪽.

선 불법조업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북과 논의했다.

특히 시는 이때 인천항과 남포항 사이에 '우호항 결연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합의서는 지리적 여건상 인천·남포항이 남북한 중추 항만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인식하에 먼저, 양측 대표단의 상호 방문을 통한 해운·항만·수산산업의 공동 발전 추구, 항만과 갑문 운영에 필요한 교육·정보·기술 공유 및 인적 교류, 교역물자와 인력의 안정적 수송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공동선언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를 합의하여 인천시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2007년 11월 29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대표 5명은 10.4공동선언 이행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 논의와 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3일간 남한을 방문하였다. 북측 통일전선부장의 남측 방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김용순 부장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인천을 방문한 북측 인사 중에는 최고위급이었다.[82)]

김 부장 일행은 11월 29일 오전 9시쯤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오후 인천에 도착해 송도국제도시의 갯벌타워와 인천대교 홍보관 등을 방문하고 안상수 인천시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다. 일행과 동행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통신, 통관, 통행 등 3통과 관련해 개성공단 현황을 보여주고 서해공단을 건설할 때 인천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소개하였다.

당시 인천 방문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남북총리회담 등에서 공식화된 서해평화협력지대와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경제특구조성, 인천국제공항과 개성공단을 잇는 도로개설 등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분유 및 우유 지원사업과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이 이뤄졌고 2011년 경기도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송영길 시장은 2011년 11월 지방정부 차원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유나이티

82) 이준한(2015). 앞의 글, 56쪽.

드 프로축구단을 통해 자본금 5억을 들여 중국 단둥(丹東)시에 수제 축구화 공장을 설립했다. 남측의 자본·기술력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방식이었는데, 재정난에 식비 등 기본적 운영비 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시점도 알 수 없게 폐쇄되었다.

경인일보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001면 종합

南北합작 단둥 축구화공장 '지구촌 화제로'

"아디다스 아성 도전" 로이터 현지 르포

인천시 41만달러 지원 이례적 사례 강조

인천시가 자금을 대고 북한이 노동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중국 단둥의 축구화 공장이 세계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로이터가 중국 단둥 축구화 공장 현지 르포를 무척 비중있게 다뤘다. 로이터 취재진은 며칠 전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장에서 선수단이 단둥에서 나온 축구화를 신고 운동하는 모습을 취재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지난 10월 30일자 인터넷판에서 중국 단둥 축구화 공장에 대한 장문의 르뽀 기사를 내보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중국 단둥에서 만나 세계 최고의 축구화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첫 머리에 실었다.

북한 출신인 수제 축구화 장인인 정남철 씨의 인터뷰도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해 다뤘다. 단둥 축구화 공장의 근로자들은 6만~7만의 해외 북한 근로자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이 버는 돈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또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떨어진 곳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무척이나 이채로운 사례라고 소개했다.

단둥 축구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며, 이들은 한 달에 200달러를 받는다고

로이터의 중국 단둥 축구화공장 현지 르포기사. 캡처사진

공장에 나와 있는 한국측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북측 근로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북쪽으로 갈 수 있고, 이들은 이 때 가족에게 줄 선물을 가져가고는 한다고 부연했다.

로이터는 또 인천시가 이 공장을 위해 41만5천 달러(4억5천여 만원)를 지원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현상을 설명하면서 로이터는 이 단둥의 '작은 축구화 공장이 북한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것은 북측의 근로자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로이터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축구스타 메시가 여기서 생산된 축구화를 신기를 바란다는 북측 관리자의 말을 부각시켰다. 이 점을 제목으로 뽑기도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출처 : 경인일보 2012년 11월 1일

2018년 취임한 박남춘 시장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공약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 민선 7기 첫 대북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대상 의약품(300백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서해 5도 어장 확대를 위한 남북평화도로 1단계(인천-영종-신도) 구간 사업을 확정했고 해안가 철책 철거, 남북평화수역 조성, 강화평화산업단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4) 인천광역시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남북의 경제협력에서 지방정부별 교류협력사업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기존에 연구된 자료와 개성공단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인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금강산 진출 업체를 제외한 평양 등 북한 내륙에 진출한 업체 960개 사 중 2017년 8월 현재 사업 유지 423개 사(44.1%), 5.24 조치 이후 폐업이 409개 사(42.6%), 휴업 6개 사(0.6%)로 조사됐다.[83]

〈표 17〉 교역경협업체 휴·폐업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전체	사업유지	폐업			휴업
			5.24 이전	5.24 이후	합계	
일반교역	681	285(66)	90 (13.2)	303 (44.5)	393 (57.7)	3
위탁가공교역	237	111(30)	25 (10.5)	99 (41.7)	124 (52.3)	2
남북경협	42	27(12)	7 (16.7%)	7 (16.7)	14 (33.3)	1
합계	960	423(108)	122 (12.7)	409 (42.6)	531 (55.3)	6

※ 주 : ( )안은 최근 2년간 전화 미수신 업체 수
출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공, 남근우(2020).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인천 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재가공

2020년 5월 31일 현재, 인천 소재 남북교역·경협업체 수는 총 71개사(금강산 업체 1개사 제외)가 있다. 71개사는 일반교역 60개사(84.5%), 위탁가공교역 9개사(12.7%), 경제협력 2개사(2.8%)이다.[84]

일반교역 60개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물 26개, 바닷모래 16개, 농림수산물 9개, 농산물 7개, 기타(어망, 기계) 2개이고, 위탁가공교역 9개 업체의 현황은 의류 8개와 깐마늘 1개로 조사되었다.

83) 남근우(2020). 앞의 책. 960개 업체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북한과 교역·경협 실적이 있는 업체를 2017년 8월 31일 국세청을 통해 조사한 것임.
84) 남근우(2020). 앞의 글. 33쪽.

71개 업체 중 교류업종은 수산물과 바닷모래 업체가 42개(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물과 어망업체까지 포함하면 52개 업체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폐업률은 71개사 중에서 26개사로 36.6%이며, 휴업률은 1개사로 1.4%로 나타난다. 구별로 교역업체를 분석하면 중구가 33개사, 46.5%로 과반 정도이며, 다음으로 연수구가 8개사에 11.2%이다.

〈표 18〉 인천 남북교류업체 업종별 현황

(단위: 개사, %)

교역형태	전체	품목별		휴·폐업
일반교역	60 (84.5)	모래	16 (26.7)	1 (6,3)
		수산물	26 (43.3)	10 (38.5)
		농림수산물	9 (15.0)	4 (44.4)
		농산물	6 (10.0)	4 (66.7)
		기타(기계류)	3 (0.05)	1 (33.3)
위탁가공교역	9 (12.7)	의류	8 (88.9)	5 (62.5)
		농산물	1 (11.1)	1 (휴업)
남북경협	2 (2.8)	기계제품	1 (50.0)	1 (100.0)
		남포공단	1 (50.0)	0 (0.0)

출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제공, 남근우(2020).「남북경제협력재개대비를위한북한의거래관행연구:인천업체사례를중심으로」, 인천연구원.재가공

〈표 19〉 인천 남북교류업체 구별 현황

구분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업체수	4	6	4	6	4	6	8	33
비율(%)	5.6	8.5	5.6	8.5	5.6	8.5	11.2	46.5
휴폐업	2	3 (휴업1)	2	2	2	2	3	11

출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제공, 남근우(2020).「남북경제협력재개대비를위한북한의거래관행연구:인천업체사례를중심으로」, 인천연구원.재가공

개성공단 인천기업현황은 전체 125개사 중에서 15개사(12%)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당초 18개사 중에서 2개사는 이전, 1개사는 폐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 2개사, 화학 1개사, 기계·금속 10개사, 전기·전자 4개사, 기타 1개사로 분석되었다.[85]

2015년 기준으로 전체현황을 보면 생산현황은 56,329만달러이고 북측 노동자는 54,988명, 남측 820명으로[86] 조사되었다. 인천시의 매출액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1,220억원(전체대비 19%) 가량이었고 투자액은 설비중심으로 약 730억원, 종사자 수는 7,088명(전체대비 12.7%)으로서 남측노동자는 92명(전체대비 11.2%), 북측 노동자는 6,996명(전체대비12.7%)이었다.[87] 따라서 생산현황 기준으로 보면 전국 56,329만 달러에 인천은 1,220억원으로 19%[88]이며, 남측노동자 11.2%, 북측노동자 12.7%가 인천 입주기업들에서 일하고 있었다.

18개 기업의 구별 분포를 보면, 남동구 9개, 연수구 3개, 서구 3개, 부평구 2개, 중구 1개이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인천기업 12개사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20억, 경영안정자금(산업확충)으로 78억48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개체자금)으로 53억94백만원, 보조금으로 19억9백만원이 지원됐다.

〈표 20〉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

(단위: 명)

번호	소재지	종업원	업종	번호	소재지	종업원	업종
1	부 평 구	324	섬유	10	남 동 구	634	기계·금속
2	남 동 구	96	화학	11	서 구	456	전기·전자
3	남 동 구	193	기계·금속	12	연 수 구	287	기계·금속
4	남 동 구	973	전기·전자	13	중 구	108	기계·금속
5	남 동 구	567	전기·전자	14	서 구	183	기계·금속
6	연 수 구	389	기계·금속	15	남 동 구	362	기계·금속
7	남 동 구	507	섬유	16	서 구	165	기계·금속
8	남 동 구	292	기타	17	연 수 구	110	기계·금속
9	남 동 구	1,281	기계·금속	18	부 평 구	161	전기·전자

출처 : 인천시 내부자료와 개성공업지지원재단 기업현황 가공 *종업원은 개성공단 기업의 남측과 북측 노동자 수를 합한 인원

85) 15개사의 인천시 자료를 보면 섬유 2개, 화학 1개, 기계·금속 9개 전기·전자 3개.
8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입주기업 현황자료 참조.
87)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참조.
88) 통일부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달러를 원화로 변환한 자료임(환율계산은 %는 2020년 10월 28일 보고서 작성 시 환율로 계산함.)

5) 남북경협을 위한 준비사업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는 많지만 여기서는 인천시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일대비 준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인천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남북아카데미가 20기째 운영되고 있다.[89] 사업 목적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인천 기업인과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전문가 육성, 시민들의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 의식의 함양이다.

2011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수료 인원은 2019년 19기까지 850명이고, 진행 중인 20기까지 포함하면 880명이다. 남북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총원우회를 구성하여 남북아카데미를 후원하고 있으며 백두산, 두만강 답사 혹은 국내 판문점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 후 남북경협시대를 준비하며 인천이 그 주역으로 설 준비를 하고 있다.

〈표 21〉 남북아카데미 운영 현황

기수	일정	수강인원	기수	일정	수강인원
1기	2011. 04.13 ~ 06.15	50명	11기	2016. 03.29 ~ 05.31	50명
2기	2011. 09.07 ~ 11.23	50명	12기	2016. 10.05 ~ 12.07	50명
3기	2012. 04.18 ~ 06.20	50명	13기	2017. 03.29 ~ 06.14	50명
4기	2012. 08.22 ~ 10.18	50명	14기	2017. 09.13 ~ 11.29	50명
5기	2013. 03.28 ~ 05.29	50명	15기	2018. 03.21 ~ 05.30	30명
6기	2013. 08.28 ~ 11.06	50명	16기	2018. 09.19 ~ 11.30	30명
7기	2014. 04.16 ~ 06.18	50명	17기	2019. 03.17 ~ 05.25	30명
8기	2014. 10.08 ~ 12.03	50명	18기	2019. 09.12 ~ 11.20	30명
9기	2015. 03.17 ~ 05.26	50명	19기	2020. 06.03 ~ 08.31	30명
10기	2015. 09.15 ~ 11.24	50명	20기	2020. 10.20 ~ 12.30	30명

출처 : 남북아카데미 내부자료

89) 2020년 8월 31일 기준.

인천광역시 8대 의회의 정책연구모임인'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이하, 남북교류 연구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으로, 연구 주제는『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였다.

이 연구회는 인천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중심 지역으로서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교통,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맞춰, 국가 차원의 교류와 별개로 지방정부만의 평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이에 인천이 가진 지리적, 물리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정세에 맞는 단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인천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평화 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는 과거 인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민간단체 활동과 연계한 인천형 남북교류사업 과제 발굴 모색, 남북 관계, 동북아 및 국제 정세 변화 분석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국가 정책 및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비교 연구를 통한 인천형 평화 사업과제 발굴,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도시 기반 조성 과제 연구, 연평도, 백령도 등 접경지역 방문을 통한 현지 주민의견 청취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여기에 참여한 시의원은 남궁형, 민경서, 손민호, 안병배, 이병래, 조성혜 의원으로, 2019년 6차례 걸친 간담회, 토론회, 답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보고서도 펴냈다.

남북경제교류에서 인천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가져가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인천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강점인 바다와 육지, 하늘의 교통수단과 지리적으로 북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한강하구 등 강화· 개성의 고려역사와 교동 등 남북교류 자원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도 하다.

둘째는 인천시의 향후 남북경제교류에서 중심적 축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전략방향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연장선상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3대 경제벨트에서 인천은 환서해권과 접경지역의 경제벨트이다. 환서해권 경제벨트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개성,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산업벨트로서 인천이 향후 남북교류에서 가져가야 할 매우 중요한 전략방향

이다. 이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는 남측 자본·기술력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방식이었다. 이는 실패한 단둥 축구화 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실패를 거울삼아 남북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노동력이 결합하는 방식을 인천이 개성, 남포, 해주, 신의주 등 서해안벨트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북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에 없는 기술을 합작하는 방식이 효과를 더 높일 것이며. 남에서의 합작방식은 개성공단처럼 교동산단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인천시의 남북경제교류사업은 섬을 활용한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끝으로 인천시가 예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지역적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북에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은 이미 인천시와 몇몇 사업에서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의 화답으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북의 특사단을 파견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경제협력의 중심축이며 통일 한국에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04 남북교류 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

제1절 남북교류사업의 평가

제2절 남북교류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제1절 남북교류사업의 평가

1 남북교류사업의 성과

남북교류사업이 시작된 이래 인천지역은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교류사업은 질과 양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시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시기별로 비교·평가해야 하는데,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인적교류 측면에서의 성과는 두드러진다. 인천지역이 동일시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부의 동력과 외부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외부의 조건을 보면 인천은 항만, 공항 등을 갖춘 수도권의 관문이며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대도시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비슷한 규모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산과 비교했을 때 인천은 남북이 접경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부산보다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 같은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가 없는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도 인천의 강점은 두드러진다. 또한 인천은 수도권의 범위에 포괄되어 있어 거의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내부의 지정학·지경학적 강점들은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천은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자라난 민주화의 역량이 90년대 들어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와 맞물려 더욱 발전하였다. 이 역량은 전쟁의 도시로 상징되었던 인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민관협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만약 인천지역 내의 민간 평화·통일 운동 역량이 미약하였다면 인천지역 남북교류협력의 분수령이 되었던 2004년 우리민족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 후에 이어진 인천시 차원의 대규모 방북이나 인도적 지원,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당시의 북측 선수단·청년학생협력단의 내인 또한 실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인천시정부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시민단체의 역할

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내외부적 환경 속에 진행된 인천지역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천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접경지역인 인천은 남북관계나 동북아정세가 악화되면 군사전략지역의 기능이 강화되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만 정세가 호전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전변된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해소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등의 정세 호전은 인천의 입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여기에 지역 내에 축적된 민간 평화통일운동 역량이 더해져 지방자치제도가 재실시 된 이후 처음으로 민관협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②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지방간 교류사업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한 내의 지방정부들은 일상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도 접경지역, 항구도시, 농촌지역 등 각 지역들이 처한 조건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지자체 내부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특성과 조건을 토대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향후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는 향후 독자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에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은 남북 간의 중앙정부간, 지역 간 관계설정에도 적용될 것이기에 향후 통일과정과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때에도 다양하고도 실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접경지역이자 군사요충지로서의 제약과 불완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접경지역은 항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 왔으며 이는 불필요한 재화의 낭비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인천 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조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④ 전쟁과 분단, 반공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로 이미지 탈바꿈이 시작되었다.

인천은 전쟁과 분단의 도시였다. 인천상륙작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천에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월남한 이북 출신 주민, 특히 황해도 주민의 대다수가 인천에 정착하여 황해도민 묘역까지 조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았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남북 간 무력 충돌은 대부분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측 인사들의 인천 방문은 여러 차례 세인의 주목을 끌었고 인천 인사들의 방북도 이어져 남북교류가 가장 왕성한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주제로 하는 창작가요제가 지금도 민간 영역에서 이어지고 있고, 무력 충돌의 현장이었던 서해 5도 해역에서는 한반도 단일기를 게양한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게 되었고, 인천의 곳곳에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게 된 것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전쟁 상흔과 조형물, 기념물이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어 주민들의 정서와 의식의 경직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분포되어 있는 군부대 또한 여전히 주민 생활을 제약하고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인천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주요 정책의 방향이 좌우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한 특성이다. 그러나 지역의 전략사업인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단체장의 정치성향이나 철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게 제도적으로 연속성을 받침해야 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에서도 대북정책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2 남북교류사업의 한계

남북교류 사업은 어느 일방이 원하거나 추진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가능한 사업이다. 더군다나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 사이의 문제 이외에 주변국들과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다.

일제로부터 해방 및 분단의 과정, 그리고 다시 전쟁과 정전의 과정에서 국제관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된 결과이다 보니,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나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 또한 동북아 국제관계를 떠나서 해결할 수 없는 제약이 되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문제는 남북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국들의 이

해관계와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반도 내부 동력을 확보하고 외부 조건을 극복해야하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여기에 남한 내부에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도 존재하기에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타산이 필요하고 외부 조건도 맞아야 한다.

또한 상황이 복잡한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제2·제3의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민·관을 포함하여) 인천지역의 남북교류 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사업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① 외부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시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인천시정부 남북교류 사업에서 가장 큰 한계점은 외부조건이며 이는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북문제는 북미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남북문제만을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천시정부는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북미관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조건에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반해 인천시는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의 대북정책만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민간단체와도 비교되는 모습이다.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절박성이 없고 성과 위주의 사업을 구상하다가 외부 조건이 악화되면 더 이상 사업추진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외부 조건에 의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인천시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는 듯하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인천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서해 5도민을 포함한 인천시민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인천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시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단둥축구화공장이 인천시의 실패한 과거 사례라면 교동평화산단 구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진행형 사례이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검증과정 없이 추진되었다.

남북이 협력하는 생산현장이라던 축구화공장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유실되었다. 교동평화산단은 북미관계만 풀리면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이미지화되어 있다. 전자는 중국 진출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후자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행정기관 내부 인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90]

남한 사회를 지배하면서 많은 폐해를 가져온 신념화된 반북·반공사상도 문제지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환상과 맹목적인 추진도 경계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역효과가 나면 반북·반공세력의 냉전적 논리만 더욱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어 향후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호기심 충족을 위한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아래 다양한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는, 사명의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③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담보가 필요하다.

기존 남북교류 사업은 대부분 내외의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추진되다가 외부의 조건이 악화되면 바로 중단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인천시에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으나 집행역량은 미미하였고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이전에 비해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남북교류 사업이 재추진될 시에는 많은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요원에 대한 장기근속 체계와 전문성 강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유도 제도적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내의 일상사업이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④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 사이 지방간 교류는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지역민들이 직접 느끼게 만드는,

---

90) 2015년에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인천광역시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제안이 수차례 적시되었고, 인천연구원의 여러 보고서나 제안서에도 비슷한 제안이 나온다.

생생한 평화·통일교육 현장이다. 시민을 향한 사업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시민을 향한 사업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인천시민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일상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실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정치·군사적 영향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우나 시민을 향한 일상적인 사업 태세를 갖추는 것은 외부 영향과 조건을 내부의 동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안이 될 것이다. 주변 정세가 시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 부단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단체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정에 민간 영역의 역량을 참여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행정기관의 보수성 또한 극복해야할 한계이며 지방자체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이다.

앞 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남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은 초창기 일방적 대북지원에서 출발하여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인천시의 교류협력사업은 일회성·단기성 지원사업 중심이었다. 이는 지자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활발하게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던 지자체들(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주로 북한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개발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 인구와 산업구조의 주요 기반인 농민·농업 부문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인천지역의 사업은 2004년의 룡천역 폭발사고 복구지원, 2005년과 2007년 홍수 피해 구호 등의 인도적지원이나 2005~2014년까지 진행된 지원(2005년 평양치과병원 현대화, 2007년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 사업, 페인트 지원, 피치 지원 등)에서 치과병원 현대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기적·일회성 지원의 성격이 강하여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남북교류의 북한측 대상지역을 인천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비슷한 조건의 지역과 교류하는 것은 사업초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교류협력사업 자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양측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교류 사업을 북한과 직접 교류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오류도 교정하여야 한다.

평화통일 영역에서 민·관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결점은 민·관이 협치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과 창의성, 헌신성, 대중영향력은 관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것이다. 관의 장점인 행정집행력과 안정적 재정은 민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다. 서로의 장점을 취하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서의 민관협치는 서로에게 절박하다.

남북교류협력은 인천이나 남한의 이득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역 내의 민관이 협력하는 것이나 한반도의 남북이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이치의 사업이다.

제2절 남북교류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1 인천이 갖는 세 가지 특성

1) 접경도시

인천은 남과 북의 접경도시이다. 백령도는 북의 장산곶과, 연평도는 강령군, 강화도는 개풍군과 마주보고 있다.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평화전망대는 북한과의 거리가 고작 1.8㎞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해상을 마주하고도 중국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남북 관계가 긴장과 대결로 고조되면 접경지역은 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위기의 공간으로 전락한다. 이는 곧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 투자와 개발의 질곡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남과 북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되면 인천은 기회의 도시로 변모한다. 한반도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또 군사적 긴장으로 개발이 낙후된 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된다. 또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미개발로 남은 접경지역은 상대적으로 환경과 생태 그리고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처럼 접경지역은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회의 요소들을 품고 있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인천의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한반도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며 인천공항과 순안공항, 인천항과 남포항 등 한반도 물류와 교통의 중심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인천은 남북의 자본과 기술력이 집적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경기도나 강원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는 북과의 접경면적이 적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착시현상과 달리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서해 5도와 강화도를 품고 있는 인천에서 대부분 발발했다.

인천의 앞바다 서해에 설정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이지만 현재는 우리 측의 해상분계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총길이는 무려 404㎞로 육상 DMZ 길이의 1.6배에 달한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NLL과는 사뭇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다. 뿐만 아니라 서해 앞바다에는 NLL 이외에도 어로저지선, 어업통제선, 어로한계선, 그리고 북한이 정해놓은 해상 군사분계선 등 각종 규제를 설정한 선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이는 서해상의 긴장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의 어민들은 이로 인해 조업구역과 조업시간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은 현재진행형이다. 3차례의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인천 앞바다의 긴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서해 앞바다에 평화수역 설정과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했다. 또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의 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그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이 불발에 그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서해상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2) 실향민의 도시

한국전쟁으로 많은 피난민이 발생했다. 황해도와 인접한 인천에는 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왔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교동이다.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교동의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 온 피난민의 수는 무려 1만9천여 명에 이르렀다. 거의 원주민의 두 배에 달하는 인구가 교동으로 전쟁을 피해 들어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황해도 연백 지역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 당시 교동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강화나 인천이 아닌 연백이나 개성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했다. 해방 당시 쌀과 소금이 풍족한 연백은 교동과 교류가 잦았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작은 섬에서 '인공정치'와 '우익정치'가 반복되면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크고 작은 연결망은 오히려 수많은 피해로 이어졌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동에 주둔했던 유엔군유격대에 의해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183명이 학살되었다.[91]

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칼럼: 바다를 잃고 제비는 쌀을 물어오다, [김준의 섬섬옥수] 교동도.

이처럼 전쟁을 피해 내려온 피난민은 분단이 고착화되며 실향민이 되어버렸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등록현황에 따르면 인천에는 2020년 8월 31일 현재 4,111명의 실향민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향민의 8.1%에 해당한다.[92] 물론 이 통계에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에 3.8선을 넘어온 사람들이나 피난민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땅에는 피난민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실향민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른바 탈북민으로 불리는 이들은 인천에 3천 명(2,969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9.5% 정도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남동구에는 2,048명이 거주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표 22〉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수

(2020년 3월 현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233	2,603	775	255	220	249	141	248	348
여	4,852	7,795	2,185	757	869	826	525	1,030	1,328
합계	7,085	10,398	2,960	1,012	1,089	1,075	666	1,278	1,676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32	199	129	149	123	130	73	8,007
여	456	610	488	460	417	367	248	23,213
합계	588	809	617	609	497	497	321	31,220

3)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존 도시

인천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진 강화에는 선사시대의 역사를 비롯해 고려시대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사적 137호로 지정된 부근리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논란은 남아있지만 팔만대장경이 새김(판각:板刻)된 선원사 또한 강화에 위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 조약이

92)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 2020.8월 이산가족신청자료 통계.

나, 또 서양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현장도 모두 인천이다.

이 뿐 아니라 인천에는 중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도 도처에 남아있다. 팔미도 등대와 인천우체국, 각국의 조계지, 자유공원 또 경인선 등에는 모두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서해안 제1의 무역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식인 인천항과 세계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 또한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IT·BT·물류·관광·금융을 선도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송도에 들어선 15개의 국제기구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2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의 역량과 가능성

1984년 북한이 보내온 수해구호물자가 인천항에 도착했다. 거리상으로 북한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인천항은 대북교역의 거점이자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왔다. 1998년에는 인천과 북한 남포를 잇는 정기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었다. 한 때 인천항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2007년 7억 6,000만 달러에 달하기도 하였다.

인천시의 남북교류의 역사는 2004년 우리민족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스포츠교류 등 대북 거점도시로의 발전과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인천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1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민선7기가 들어서며 재개되었다. 스포츠 교류의 경우에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후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1) 남북교류사업의 의지와 역량

(1) 공약이행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를 시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공약으로는 서해 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그리고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과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서해평화협력청과 유엔평화사무

국 유치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겪으며 공약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어장의 조업면적은 1,614㎢에서 1,859㎢로 15% 확대되었다.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해당한다. 조업시간도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 등 1시간의 야간조업이 가능해졌다. 야간 조업이 중단된 지(1964년) 55년 만에 부분 허용된 것이다. 또 내년에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에 해당하는 영종도~신도(3.82㎞) 간 도로가 착공에 들어간다.

서해평화협력청은 20대 국회에서 인천시장 출신의 송영길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중단되었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도 재개했다. 8년 동안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사업을 '북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전개한 것이다.

(2) 제도와 조직, 기금

인천시의 대북 교류협력의 의지는 확고하다. 인천시는 2018년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각계가 참여하는 '평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독자적인 대북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1개 팀이었던 전담조직은 1개 과(남북교류협력담당관) 규모로 확대되었고 남북협력특보직이 신설되었다. 또 고갈상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매해 20억 원씩 적립돼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지정해 민관이 함께 10.4선언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해 5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시청사와 교육청사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3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방향

1) 남북교류사업에서 고려할 점

인천시가 남북교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려해야 점이 있다.

첫째는 교류의 대상인 북한의 변화된 요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초기의 대북교류 사업은 주로 인도적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90년대 중후반 사회주의권 몰락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남북 상호간 신뢰가 충분치 못한 대결적 상황에서 초기의 대북지원은 북한에게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하지만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발전하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인도적 지원사업은 상호신뢰 축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모색기와 인도주의적 지원 시기를 거친 후의 북한의 대북교류 사업의 요구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변화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6.28.)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5.30.)를 도입한 북한은 중앙급 경제특구 4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23개 등 27개의 개방지역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경제건설총력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핵을 통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북미관계 정상화를 고려한 조치였다. 이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소규모적인 지원사업보다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남북교류사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로는 과잉되고 출혈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특색을 살린 교류사업의 개발이다. 현재 남북교류사업은 북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의 수는 많고 북한의 수용은 대단히 제한적인 불균형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방정부 간 경쟁적인 태도는 지속성의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별로 각자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교류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통일부 산하에 '지자체 대북교류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이를 중재, 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2)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에서는 실현가능성(지역특화), 지속가능성, 연계성, 수용가능성, 그리고 대북제재 상황을 타당성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의 타당성 기준[93]

인천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자원을 갖고 교류협력을 해야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인천의 경우 인천항과 인천공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대북 교류의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평양의 관문에 해당되는 남포와의 교류나 인천과 가까운 해주, 그리고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의 교류를 검토해 볼만하다.

다음은 지속가능성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93) 나용우 외(2019).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95쪽.

를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처럼 어느 일방이 일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주의적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처럼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해 남북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제 연계성이다. 앞서 남북교류사업의 고려할 점에서 살펴봤듯이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교류사업을 제안할 경우 대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기준은 북한의 수용가능성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 수용가능성은 낮기 마련이다. 아직도 대북교류하면 인도적 지원을 당연시하는 접근이나 과거 진행했던 교류사업의 재탕, 삼탕 식의 대북교류사업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이다.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는 UN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조치가 있다. 5.24조치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류는 중단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5.24조치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하지만 국제제재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UN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북미대화의 결과에 따라 함께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의 추진방향

(1) 인천의 역사성을 고려한 접근

인천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접경도시이다. 우도를 제외한 서해 5도의 섬들은 분단 이전에 황해도에 속했으며 강화의 교동은 황해도의 연백과 교류가 잦았던 곳이다. 또 인천으로 피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해도 출신이다.

또 인천이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라면 남포는 북한의 수도 평양의 관문도시로 인천항과 유사한 갑문식 항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항과 남포항 사이에는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화물선이 운행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 11월에는 인천항과 남포항 간 교류협력의향서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인천시는 북한의 황해도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천의 특화된 강점을 활용한 접근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또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점은 대북교류 사업에서 커다란 강점이다. 우선 대북교역의 측면에서 인천항은 대북 물류 거점항이 될 수 있다. 이는 수산물이나 모래 등 대북교역량의 대부분이 인천항을 통해 이뤄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 세계적인 인천공항은 대북관광의 대표 지역인 원산-갈마지구, 금강산지구, 그리고 삼지연 공항을 잇는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남북정상합의문을 활용한 접근

인천은 2007년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합의한 10.4선언과 2018년 4.27판문점 선언의 주무대이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이 절대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남북정상의 합의 내용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그리고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서울 직항로 등의 합의 내용은 대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과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활용한 접근

남북교류사업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따라 크게 부침을 겪는 특성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상황이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천이 추진하려는 대북교류사업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인천의 대북교류사업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지점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인천은 환황해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이 구상은 남북정상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화와 번영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평화로 번영의 기반을 보장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번영을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미중 대결의 구도에 갇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장기간 동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럼으로 미중의 대결구도를 다자간의 협력구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를 바꿈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도시 인천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류와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는 강점에 평화와 환경과 생태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결합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4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

정리해보면 인천의 대북교류 사업은 지역으로는 인천과 연관성이 높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활용한 남포항과 해주항과의 정기항로 운행, 백두산 직항로 개설, 그리고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과 해주와 개성, 인천을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의 수정을 통해 인천항을 대북 교역의 중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이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에 인천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미약하나마 북한의 지역단위 인민위원회에 부여되는 자율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 물론 고려의 역사를 매개로 한 학술교류나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 만남과 신뢰 구축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앙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과 권한을 서해평화협력청의 신설을 통해 통합적으로 조정해가야 한다.

[참고문헌]

강승호(2011). 「인천시 남북협력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고성준(2006). 「제주도의 대북지원 교류 사업 7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16(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권기태·남승균(2020).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평화통일운동 연구」, 『인천학연구』3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권숙도(2020).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사회과학연구』, 36(1),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동성(2018).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경기연구원.

김동성 외(200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천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경기연구원.

김동성 외(20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경기연구원.

김동성 외(2016).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김동성 외(2018).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김동성·이성룡(2018).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이슈&진단(342), 경기연구원.

김동현(201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현황과 전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락기(2019). 「강화~개성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인천광역시 남북역사문화교류의 현황과 방향」, 인천권역 고려 역사문화 토론회 자료집.

김수한(2012).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및 실천 방안」, 인천연구원.

김수한(2018a).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 『시정이슈제안』제81호, 인천연구원.

김수한(2018b).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방향과 과제」, 인천연구원.

김수한·전유정(2017). 「강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 사업 기초 조사연구」, 2017년 기획연구과제, 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전유정(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통일분야」, 인천연구원.

김은옥(2018).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민주연구원.

김정완(2013).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국지방행정학보』 10(1), 한국지방행정학회.

김창수 외(2019).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인천연구원.

김형수(20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 18(1), 한국통일전략학회.

나용우 외(2019).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남근우(2020).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인천 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남성욱(2014). 「북한 철광석 개발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한 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26권 2호 , 평화문제연구소.

문현미(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입법과 정책』, 12(2), 국회입법조사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순복·금창호(20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지방행정연구』, 3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해평화포럼(2014),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역사인문·평화관광·초국경 협력」, 인천연구원.

서해평화포럼(2019).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와 인천의 평화도시 구축」, 인천연구원.

양문수 외(2018).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 『KINU연구총서』, 통일연구원.

양현모 외(2007).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이규창(200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 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법조』제55권 제8호, 법조협회.

이 석(2018). 「새로운 경협의 가능성 : 특징과 쟁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준한(2015). 「인천광역시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준한(2019). 「서해평화와 연평」, 『인천학연구』제31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이현주 외(2018).「한반도 신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인천광역시(2013), 시정발자취.

인천광역시(2020a).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2020b). 「2020 인천 평화도시조성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15). 「인천광역시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통일준비위원회.

인천문화재단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2013).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준비 보고서」.

임정관(2018). 「4.27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 평화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질적 전환 조건 연구」, 『GRI연구논총』,경기연구원.

최대석 외(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통일부(2005). 『2005 통일백서』.

통일부(2006). 『2006 통일백서』.

통일부(2007a).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통일부(2007b). 『2007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부(2008a).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통일부.

통일부(2008b). 『2008 통일백서』.

통일부(2009). 『2009 통일백서』.

통일부(2019). 『2019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2020). 『2020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사업본부(2019).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건립사업 기념백서』.

한반도평화포럼(201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2018). 「현안과 과제 –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황교욱(2011).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로컬거버넌스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교욱(201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발표문.

Hollingsworth, J. Rogers and Robert Boyer(1997), "Coordination of economic actors and social system of production,"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es, H. and A. Shah(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1.

Taylor, M.(1996), "Earnings, Independence or Unemployment: Why become Self-Employ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8, No. 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46069)

인천시 홈페이지 조직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통일부 공식 스토리(https://story.kakao.com/_5Yxhg4/GQm0IcbMVo0)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인도적지원(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humanitarian/overview/)
e-나라지표 대북지원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YTN(https://www.ytn.co.kr/_ln/0101_201911211419214359)

〈신문기사〉

경기일보 2004년 5월 10일. 「'北 용천돕기' 청소년 바자회」, 김용국(기사)
경인일보 2012년 11월 1일. 「南北합작 단둥 축구화공장 '지구촌 화제로'」, 홍현기(기사)
경인일보 2014년 10월 1일. 「['비전2014' 인천에서 빛을 발하다·8]북한 축구팀 - 파죽지세 北」여자축구…인천도 '한몫'」, 취재단(기사)
경인일보 2020년 1월 10일. 「'조선화가 황영준展' 오늘 인천시민들 만난다」, 김명호(기사)
경인일보 2020년 9월 8일. 「강화와 개성 '고려왕릉'으로 이어지는 南北… 인천문화재단·시립박물관 기획 12월까지」, 김영준(기사)
경향신문 2018년 2월 4일. 「인천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첫 평가전 '관심 고조'」, 박준철(기사)
기호일보 2007년 11월 12일. 「평양에 잔디축구장 '선물' - 인천시 방북단 南 기술 北 인력 합작 성사」, 최유탁(기사)
기호일보 2014년 10월 2일. 「고려 역사 유물 '만나러 갑니다'」, 김혁호(기사)
연합뉴스 2018년 11월 5일.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박영석(기사)
오마이뉴스 2004년 6월 13일. 「인천은 통일항구 '우리민족 다 모여라'」, 조호진(기사).
인천일보 2005년 9월 4일. 「아시아육상-북한학생과 인천대생, 어울림마당」, 실시간 뉴스-연합뉴스(기사)
인천일보 2005년 9월 6일. 「우린 하나다」, 이주영(오피니언)
인천일보 2014년 5월 13일. 「北에 축구·양궁장비 전달... 전지훈련 미지수」, 이주영(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4일. 「공으로 하나 된 남북... 인천, 통일중심 우뚝」, 이주영(기사)
인천일보 2019년 4월 26일. 「닮은꼴부터 알아가는 '화해의 길'」, 이주영(기사)
인천일보 2019년 7월 14일. 「[잇다, 남북 - 평화협력지대] NLL … 분쟁의 바다, 평온하게」, 정회진(기사)

인천일보 2019년 11월 5일. 「남북한 고려시대 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능성 검토」, 장지혜(기사)

인천일보 2020년 7월 9일. 「전쟁이 끊은 한강하구 뱃길 다시 이어지나」, 이순민(기사)

인천일보 2020년 9월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스포츠 교류, 남북평화 이끌 효과적 대화수단"」(인터뷰)

인천투데이 2018년 10월 11일. 「한반도 평화바람 타고 옌지에서 '두만강포럼' 열린다」, 김갑봉(기사)

인천투데이 2018년 11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와 '조선 왕릉'」, 김락기(시론)

중부일보 2004년 6월 16일. 「2004년 6얼 15알 인천 우리겨레 하나된 날」, 박정은(기사)

중앙일보 2005년 9월 5일. 「남북 대학생 500여 명 한마당 놀이 북한 노래 맞춰 '막춤'」, 정영진(기사)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9일. 「'평양의 종로' 창광거리 새단장」, 김영환(기사)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8).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 "물, 길이 되다."」.

부 록

1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인천시의 남북교류 현황

○ 2004년 ~ 2019년까지 인천시의 남북교류와 관련된 신문기사로 '스크랩 마스터'를 활용하여 기사를 검색하여 정리

○ '스크랩마스터'에서 '남북교류, 개성, 개풍, 남포, 황해, 연백'등의 검색어를 지정하여 검색한 결과 122,057개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며, 인천시의 남북교류 관련 기사는 2,104건으로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연도별 기사 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수	53	87	85	177	102	59	201	189	91	128	132	70	61	71	360	238	2,104

2) 신문기사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내용	비고
인도적 지원	구호품 지원	묘목 및 비료, 쌀·밀가루, 콩기름, 의약품, 모기향 등 지원	인천시·민간단체 공동 지원 및 인천항을 통한 민간단체와 타 지방정부의 지원
	취약계층 지원	신생아 및 산모를 위한 빵·두유·우유 및 생필품 등 지원	
	개발구호성 지원	치과병원 건립, 빵공장 건립, 도로포장재 지원, 북에 나무심기행사 등	
스포츠 교류	축구대회	성인 및 유소년·유소녀 축구대회	
	지원사업	축구장 보수 및 각종 장비 지원	축구용품, 양궁용품 등
	기타	전지훈련, 스포츠 교류를 위한 협의 등	
학술/문화/관광	학술	국제학술대회, 남-북 공동학술대회 등 각종 학술대회 관련	
	문화	고려문화 답사,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인천평화창작가요제, 북한 작가 초청전, 각종 기념행사 등	
	관광	강화평화전망대, 북한 방문기, 크루즈 관광, 관광도시 선정, 서해 5도 평화관광메카 추진 등	

대분류	중분류	내용	비고
남북교류 사업	경제협력	개성공단, 남-북연계 경제협력, 강화산단, 강화 교동평화산단, 공동어로구역, 수산물 교류, 남북 경협 관련 학술회의, 단둥축구화 공장 등	
	교류협력	교류협력 관련 조례, 남북교류 관련 사업 제안, 협력기금, 한강하구 등	
	남-북 방문	인천시 관계자 북한 방문, 북한 인사 인천 방문 관련	
	교통망구축	연륙교건설, 항로개설, 항공로 개설 등	
	생태자원	갯벌, 저어새 등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 교육관련	
기타		분류 외의 기사	

3) 신문기사 분야별 현황

구분 / 연도	인도적 지원	스포츠교류	학술/문화/관광	남북교류사업	기타	계
04	3	0	14	35	1	53
05	0	0	11	74	2	87
06	11	1	13	54	6	85
07	9	16	14	136	2	177
08	12	1	22	64	3	102
09	4	1	4	47	3	59
10	28	0	8	163	2	201
11	36	7	54	91	1	189
12	1	7	20	63	0	91
13	4	11	28	85	0	128
14	4	9	26	92	1	132
15	0	12	9	47	2	70
16	0	0	10	48	3	61
17	4	1	19	47	0	71
18	2	6	100	239	13	360
19	3	4	86	143	2	238
계	121	76	438	1,428	41	2,104

4) 연도별 신문기사 현황

○ 2004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2	3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1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0	0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14	14
	문화	0	
	관광	0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25	35
	교류협력	7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3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1	1
계			53

○ 내용

- 2004년은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4월 22일 발생한 '북한 룡천역 폭발 사고'의 구호품이 인천항을 통한 지원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후 강화와 개성을 연결하기 위한 연륙교 추진, 개성에 인천전용공단 추진, 인천~개성 연계 발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인천시가 남북 교류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한해였다.

○ 2005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0	0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0	0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7	11
	문화	2	
	관광	2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22	74
	교류협력	27	
	남-북 방문	12	
	교통망구축	13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2	2
계			87

○ 내용

- 2005년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나 인천~개성공단 간 뱃길 연결을 위한 해상 항로 탐방, 국제교류센터의 가동, 인천시장 등 60여명 평양방문[북한의 공식 초청으로 지방정부 중 최초], 황해도 연백군과의 교류 추진, 인천-남포항 자매결연 추진, 인천-개성공단 경제공동개발구 추진 등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

○ 2006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9	11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2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1	1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7	13
	문화	1	
	관광	5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22	54
	교류협력	26	
	남-북 방문	2	
	교통망구축	4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6	6
계			85

○ 내용

- 2006년은 5.31 지방선거에 북한이 보인 민감한 반응과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천시의 대북교류가 중단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삭감 등으로 인천시의 대북교류가 난항을 겪었다.
- 남북교류가 난항을 겪고 있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인천항을 통한 남북교역의 증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인천항을 통해 처음으로 수출, 민간단체의 구호물품 지원 등 인천항을 통한 남북교류는 계속 되었다. 2월에는 북한 선수단에 노트북을 전달한 시민단체 간부가 벌금형을 받은 기사도 보인다.

○ 2007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4	9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5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13	16
	지원사업	2	
	기타	1	
학술/문화/관광	학술	6	14
	문화	1	
	관광	7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50	136
	교류협력	45	
	남-북 방문	17	
	교통망구축	24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2	2
계			177

○ 내용

- 2007년 상반기는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인해 북한에서 답례차 보낸 쌀이 인천항서 반입 불허, 북한산 모래의 60%인상 통보, 인천시의 모든 북한과의 교류사업 '백지 재검토'등 남북교류 사업이 다소 불안정하게 진행되었다.
- 하지만, 교동연륙교의 착공, 강화군 투자단 개성공단 방문,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북비료지원활동, 23년 만에 북한 선박 인천항 입항, 민주평통 강화군 협의회 고구마싹 북한 전달, 인천-북한 축구 친선경기, 강화-개성 고려문화재 복원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전담팀 구성, 개성과 개풍에 인천전용공단 추진, 대북교류추진TF 운영, 안상수 인천시장 방북, 평양에 잔디축구장 선물, 김양건 北 통일선정부장 인천방문, 북 선박 인천~해주 직항 허용, 인천-北상시 연락기구 추진, 평양 치과병원 설립 추진 등 인천시의 대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2008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2	12
	취약계층지원	2	
	개발구호성지원	8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0	1
	지원사업	0	
	기타	1	
학술/문화/관광	학술	9	22
	문화	0	
	관광	13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38	64
	교류협력	16	
	남-북 방문	2	
	교통망구축	8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3	3
계			102

○ 내용

- 2008년은 북한의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추방, 서해상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박왕자 씨] 피살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되었다.
-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시기에도 인천항에는 북한의 화물선이 입항하였으며, 인천시의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년 대비 8.4% 증가, 강화 산업평화벨트 구축, 인천~개성 물류·관광벨트 추진, 강화평화전망대 개관, 영종~강화~개성 고속도로 검토, 강화-北개풍 연계 경제특구 추진, 평양치과병원 준공[시 대표단 북한 방문],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 지원, 영종~강화 남단 연륙교 추진, 남북경제협력 학술대회 개최,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배나무 묘목·비료 지원 등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였다.

○ 2009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3	4
	취약계층지원	1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1	1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1	4
	문화	0	
	관광	3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20	47
	교류협력	11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16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3	3
계			59

○ 내용

-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한 2009년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 로켓발사 및 2차 핵실험, 서해교전[대청해전] 등으로 남북관계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 이렇듯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인천항을 통한 인도적 지원, 물류 교류는 계속되었으며, 체육·문화 중심의 남북교류 추진, 송도~영종~강화 연륙교 추진, 민주평통 강화군 협의회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유소년 축구팀의 중국에서 합동 훈련, 영종~개성 남북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MOU체결 등의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은 이루어졌다.

○ 2010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6	28
	취약계층지원	22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0	0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5	8
	문화	3	
	관광	0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58	163
	교류협력	90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15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2	2
계			201

○ 내용

- 2010년 상반기 남북교류 사업은 강화-개성 평화벨트 조성 추진, 영종~강화~개성 연결고속도로 추진, 인천항을 통한 인도적 지원차원의 물자 수송 등 의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하여 남북교류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인천~남포 간 화물선 운항의 중단, 북한에서 온 화물 통관 보류 등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 하반기에 들어서는 인천시 독자적인 대북교류 추진, 시·민간단체 남북교류 공동 추진 검토,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재추진, 北어린이에게 빵·두유 지원, 북한 유치원에 생필품 지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300억 조성, 평양산원 영유아·산모 분유 지원,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본격화 등 인천시의 독자적인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 이후 통일부의 물품반출 승인으로 대북지원사업 재개 되면서, 북한에 옥수수 지원,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북에 8억원 규모의 물품 지원 계획,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중에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인도적 대북사업 전면 중단 되었다. 12월 말에는 북한에서 인천·강원 등의 단체 및 개인 50여 곳에 연하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 2011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35	36
	취약계층지원	1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6	7
	지원사업	0	
	기타	1	
학술/문화/관광	학술	44	54
	문화	9	
	관광	1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42	91
	교류협력	40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8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1	
기타		1	1
계			189

○ 내용

- 2011년은 2010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의 여파로 인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 강화평화산단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의 전초기지 구성,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용 범위 확대 조례 개정 예고, 강화~석모도를 잇는 삼산연륙교 추진, 영종~강화 연륙교 추진,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남북삼각벨트 추진, 단둥축구화공장 준공 등 개발사업, 남북 공동 고려문화 복원 추진, 강화 남북 답사단 추진, 고려문화재연구소 추진 등의 역사문화 교류 추진, 인천 평화컵 축구대회 개최, 말라리아진단키트 북에 전달, 지방정부 간 첫 남북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인천-경기도-강원-서울 협력 추진, 인천대학교와 '남북경협 아카데미'강좌 업무 협약, 서해평화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등 학술 연구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 1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교류가 위축되었으나 남북협력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 2012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0	1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1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7	7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17	20
	문화	2	
	관광	1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19	63
	교류협력	39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5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0	0
계			91

○ 내용

- 2012년은 2011년 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후대 계승의 문제 등으로 북한의 정세가 다소 불안정 하여 중국에서 개최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한의 축구 경기 거부, 북한의 선박이 2년 동안 인천항에 입항하지 않는 등 남북교류가 위축되는 한 해였다.
- 강화평화산단 조성 추진,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구체화, 北강령반도·개머리지역 조력발전소 검토, 남북교류 협력 20억 지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공동 추진, 남북물류 교류협력 세미나, 영종-강화 연륙교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 추진, 강화·개성 고려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단둥축구화공장의 경영악화, 남북교역의 상징 화물선인 '트레이드포춘'호의 폐선 처리 등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 2013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0	4
	취약계층지원	4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7	11
	지원사업	1	
	기타	3	
학술/문화/관광	학술	19	28
	문화	8	
	관광	1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38	85
	교류협력	36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11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0	0
계			128

○ 내용

- 남북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2013년을 맞이한 인천시는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남북관계의 해빙을 기대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남북의 축구경기는 무산되었다.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 북측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으로 남북교류 사업은 점점 위축되었다.
- 강화평화산단 추진,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개최, 남북교류사업 예산 20억 배정, 강화고려역사재단 출범, 영종~강화 연륙교 추진 등 남북교류 사업이 추진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품 반출 승인으로 인한 인천항에서 민간단체 대북 지원품 북송식 등 남북교류에 대한 물꼬를 트기기 시작하였다.

○ 2014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0	4
	취약계층지원	4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7	9
	지원사업	1	
	기타	1	
학술/문화/관광	학술	21	26
	문화	5	
	관광	0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11	92
	교류협력	69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11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1	
기타		1	1
계			132

○ 내용

- 2014년은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교류가 지속된 해이다. 연초에 실시한 인천 평화컵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평화컵 여자 유소년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으며, 北에 축구·양궁장비 전달,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등 스포츠와 관련된 교류가 진행되었다. 이 밖에 영종~강화~개성을 잇는 연륙교 추진, 교동평화산단 구상, 인천항을 통한 대북 지원 물품 운송, 영종~해주를 잇는 고속도로 추진,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개최 등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 2015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0	0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12	12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5	9
	문화	3	
	관광	1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4	47
	교류협력	37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5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1	
기타		2	2
계			70

○ 내용

- 2015년은 '남북 성인축구 친선경기'를 개최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로 시작한 해였다. 이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인천-남포시 자매결연 제안, 통일부의 민간 남북교류 적극지원 등으로 남북교류에 훈풍이 불기 시작 했다.
-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 고갈 위기로 잠시 남북교류 사업이 주춤 하는 듯 했으나 '강화~개성 역사 남북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회, 남북교류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통일박람회 2015' 참가 등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하였다.
- 8월 DMZ 목함지뢰 매설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다시 한 번 남북교류 사업이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인해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도 기지개를 펴고, 남북경협의 적극 추진,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남북교류 민간단체 참여 확대, 양궁·축구 등 스포츠를 통한 교류 재추진 등 남북교류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였다.

○ 2016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0	0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0	0
	지원사업	0	
	기타	0	
학술/문화/관광	학술	6	10
	문화	4	
	관광	0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36	48
	교류협력	12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0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3	3
계			61

○ 내용

- 2015년 하반기의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남북교류의 활발한 전개를 기대를 안고 맞이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9월 5차 핵실험으로 인해 다시 남북교류는 암흑기를 맞이한다. 스포츠 교류로 추진 중이던 국제축구·활쏘기 대회 등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인천발 대북사업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의 재정난 어려워져 남북교류 사업 기금이 바닥나는 등 남북교류의 암흑기를 맞이 한다.
- 이 시기의 신문기사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에 따른 지원금 등에 관한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17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4	4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0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0	1
	지원사업	0	
	기타	1	
학술/문화/관광	학술	15	19
	문화	4	
	관광	0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25	47
	교류협력	18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4	
	생태자원	0	
	평화통일교육	0	
기타		0	0
계			71

○ 내용

- 2016년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의 중단 등으로 인해 2017년 남북교류 사업은 사실상 중단 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시의 남북교류 기금의 고갈,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인해 인천시의 남북교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 인천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교류 위원회 기금운용 방안 논의, 영종~강화 '남북 평화도로' 추진, 서해 평화시대 대비 남북기금 적립을 위한 모색 방안 구성, 경기도와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통한 남북교류사업의 재개, 정부에 남북공동어로 추진 건의, 정부의 베를린 구상으로 인한 남북교류의 재개 가능성 타진, 인천시와 경기도의 남북 접경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사업은 또 다시 멈추게 된다.

○ 2018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1	2
	취약계층지원	0	
	개발구호성지원	1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1	6
	지원사업	0	
	기타	5	
학술/문화/관광	학술	74	100
	문화	24	
	관광	2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98	239
	교류협력	111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25	
	생태자원	5	
	평화통일교육	0	
기타		13	13
계			360

○ 내용

- 2017년 남북교류 사업의 암흑기를 보내고 맞이한 2018년 1월 남북한 직통전화 복원을 시작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인천시 민간단체의 해상 파시 조성 제안, 영종~신도 연륙교 추진, 강화·개성 역사 학술 교류 추진, 전국 첫 통일센터 건립, 교동평화산단 추진, 北작가 초청 공동 작업·전시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 2022년 까지 100억 조성 계획, 고려 건국 1천100주년 남북공동 행사 추진, 남북프로·유소년 축구대회 추진, '남북평화도로'건립 추진, 강화 대북사업 발굴, 인천항 남북경협 재개대비TF 구성, 남북교류 조직 및 기금 확대, 남북기금 205억 적립 계획, 인천 연수구 남북 잇는 크루즈노선 개설 추진, 정부에 서해평화도로 건설·인천국세청 설립 건의, 평화도시 인천 조례 제정, 남북교류 조직 신설, 서해평화협력청 준비작업 착수, 남북 수학여행 계획, 저어새 연구를 통한 남북교류, 말라리아 공동방역 재추진, 남북교육협력 추진, 계양구 北선수단 초청 양궁 친선경기 추진, 南고려왕릉-北조선왕릉 유네스코 교차 등재 추진, 인천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중국연변대 공동 임진·예성 포럼 개최, 北남포시와 자매결연 추진, 인천항발전 및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과 학술행사 등이 추진되었다.

○ 2019년

대분류	중분류	소계	계
인도적 지원	구호품지원	1	3
	취약계층지원	1	
	개발구호성지원	1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2	4
	지원사업	0	
	기타	2	
학술/문화/관광	학술	54	86
	문화	23	
	관광	9	
남북교류사업	경제협력	66	143
	교류협력	53	
	남-북 방문	0	
	교통망구축	21	
	생태자원	2	
	평화통일교육	1	
기타		2	2
계			238

○ 내용

-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평화 분위기에 따라 인천시는 평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교동산단의 '통일경제특구 지정'요구, 강화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추진, 인하대학교와 환황해권 자원개발을 위한 경제벨트사업단 설립, 인천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중국연변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北고구려유적 최초 공개], 남북어민 교류 추진,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한 '인천항 기능 재정립'요청,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와 평화업무협약 체결, 인천 '평화도시위원회'출범,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이해' 특강 진행,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 토론회, '서해평화포럼' 출범, 인천권역 고려 역사문화 토론회, 경기도·강원도·국가균형발전위와 연계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진행, '인천 남북국제분야 2030 미래이음 발표회', 북한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대회, 2019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 '서해평화호 띄우기 의미와 전망'토론회,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민주평통 인천회의 '평화포럼'창립, 2019 아시아경제공동포럼, 마이스[MICE] 인천 포럼, 한반도 평화경제 콘퍼런스 등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11월에는 인천시가 대북지원시업자로 지정되어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해진 해이기도 하다.

2 남북교류 관계자 인터뷰

◎ 김의중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

○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부평공단에서 근로자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도움을 준 중국 동포들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하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발전이 되어서 양로원, 길림성까지 두세 군데를 하게 되었구, 또 북경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구, 그렇게 91년도부터 하다가 우연치 않게 북경시 배농장을 만들어 주게 되었어요. 그것을 북한분들이 경기 시찰을 하다가 북한이 아직도 한 75프로가 농업국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과학영농으로 성공한 농장이 있냐? 그런데도 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여준 것을 우연치 않게 우리가 만든 배농장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통일부에서 북한분들이 만나길 원한다고 하는 요청이 오게 되었고 그게 정확하게 연도는 90년 후반쯤 북한 대사관에서 초청을 했지요. 중국에 직접,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주 긴데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같이 배농장 만드는 회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농장도 같이 만들고 소농장, 지렁이 농장, 그건 배농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비료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시초에요.

○ 남북교류사업을 하시면서 힘들거나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이제 5.24조치 이후에는 정말 남북교류가 없었잖아요. 거의 제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북한 분들이 신뢰를 해주셔가지고 중국서 회담을 하고 나무 심는 일, 그 다음에 의복 보내는 일, 그 다음에 의약품 이게 전부 작은 거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도 저분들이 신뢰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제재 속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모금을 하는 데에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막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해가니까 10년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지만 저분들이 신뢰 해주셔서 꾸준하게 해오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5.24조치를 초반에 해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적미적 하다가 그만 5.24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큰 발목을 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이 코로나, 그 다음에 홍수, 경제제재 이런 어려움 속에 아주 어렵거든요, 정부 지도자들이야 그만큼 살겠지만 노인들 또 어린 아이들 또 변두리에 변방에 백성들이 어려운데 그들을 참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돕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지요.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인천시에서도 시 주도적으로만 북한 교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인천에도 평화운동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정말 민간 접촉 그것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하든 북한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평화의 길은 평화의 길이잖아요. 누가 해도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민간단체들이, 또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면, 교류가 평화의 교량이 되는 것이다. 시나 정부가 관료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정부는 정말 수백 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저쪽에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하면 요구 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요구 사항 없이 해준 거고, 그런 면에서 정부 주도적인 것은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천시가 북한하고 굉장히 많이 서해 5도, 강화도,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강원도에 평화통일 사업에 굉장히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서해 5도 또, 강화도 평화구역 이런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쨌든 시와 교육청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시민들까지도 인천이 남북평화에 아예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그런 일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시민, 국민들이 나라 평화통일이 아예 그냥 역사적 과제다. 이 일들을 정말 아주 제1과제로 여기도록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열정들도 붐업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 김경성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 남북 체육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03년도에 중국 운남성에 중국의 담배인삼공사 격인 정부기업집단이 운영하고 있는 홍타스포츠 센터를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2003년도에 레알마드리드 축구단이 전지훈련을 하면서 축구장의 시설에 대한 소문이 나고 굉장히 유명해 졌지요. 그 이후로 세계 각국의 축구팀이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북한이 전지훈련을 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때의 북한 국가대표 축구팀이 바로 오늘날 저하고 파트너인 4.25체육단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북한과의 첫 번째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인연이 쭉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제가, 2006년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것을 남북 간의 상호간의 말하자면은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추진하는 그 상황에서 인천 유소년팀이 운 좋게 들어왔던 것이지요. 2007년도에 인천시의 시장이 안성수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인천시가 북한에 인조 축구장을 깔아 주고 그 조건으로 남북축구를 평양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지원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 되었나봐요. 그래서 인천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못 지키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약속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인제 인천시가 그러한 사람을 찾던 중에 남북축구에 대해서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2007년도에 11월에 평양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소속에 유소년 축구단하고 북한 4.25체육단유소년 축구단 하고의 평양에서의 세 차례 친선 축구경기를 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 인천과 진행한 축구 교류사업

2007년도에 12월에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팀과 친선경기를 진행하고 매년 겨울에 친선경기를 진행하게 되요. 송영길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송영길 시장은 남북교류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었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인천시와 MOU를 맺어 인천시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고 북한과의 연락은 저희 단체가 진행을 해서 2011년

도 2월에 중국 쿤밍에서 제1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개최가 되어요. 그 당시 북한의 4.25체육단 박정훈 단장과 인천시 송영길 시장이 참석을 했지요. 2014년까지 매년 개최를 했어요. 그때의 신뢰가 계기가 되어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고위급 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남·북 간의 스포츠 대회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3국에서 국제대회 형식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1월에 중국 쓰촨성에서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하고 북한 4.25체육단하고 친선경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북한하고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하고 쿤밍에서 경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 경기를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수소폭탄 핵실험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까지 중단을 시키면서 중국에서 하는 것 까지 다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이명박정부 때는 남북지역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했고. 박근혜 때는 아예 중국에서 하던 것까지 중단시킨 것이지요.

○ 단둥의 축구화공장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제가 평양에서 조그마한 축구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2011년 중국의 쿤밍에서 열린 제1회 인천 평화컵대회에 북한의 4.25체육단의 박정훈 단장, 송영길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평양에서 운영하던 축구화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5.245조치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 북한 기술자가 와서 축구화를 만들고 남한이 투자를 하고 중국 기업이 경영을 하는 다자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합의를 통해서 단둥에 축구화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업도 박근혜정부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중단되게 됩니다.

○ 학생들과 많은 체육교류를 하셨는데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은 이념이 없잖아요. 열흘 동안 같이 훈련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체재를 이해하면서 그냥 친구로 지내게 돼요. 그게 저희가 교류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통일 그 이상의 것이겠지요.

○ 앞으로 인천시의 스포츠 교류에 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북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1회성 사업이 아닌 인천시에 맞는 종목을 육성시켜야 돼요. 꼭 축구로 한정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과 4.25 체육단에 프로축구단에 정규 교류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 유소년 축구를 다시 부활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탁구라든가 또는 복싱이라든가 골프라던가 얼마든지 인천과 북한과의 정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인천은 북한과의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리는 순간에 인천에는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양사람들이 고속전철을 타고 인천에 와서 비행기 타고 가고, 외국사람들이 인천에 내려서 평양가고 그야말로 인천은 세계의 물류, 교류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심지로 갈 수 있다. 근데 그걸로 부터 시작하면 100프로 실패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포츠를 정기적으로 정착시키고 이 스포츠 교류는 그 어떠한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겠다하는 강인한 의지를 담는 그러한 교류를 성사시키고, 교류를 원하는 인천단체라든지 정치인, 관련단체가 그 대회에 참가를 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그에 맞는 창구로서 어떠한 교류도 넓혀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교류의 시작은 스포츠로 시작해야 된다. 스포츠 교류는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최고의 대화 수단이다. 인천의 경제적 가치가 평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경제적 자산인 평화를 인천이 스스로 그동안 버렸다. 이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인천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 프로를 많이 양성하고, 그게 정말 진정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하대나 인천대에 북과 관련된 학과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처럼 준비를 인천시는 특히 접경지역이고, 그리고 10.4남북공동선언만 놓고 보더라도 실은 이제 인천이 최대 수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남북관계를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진기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적으

로도 인천이 이후에 자기 활로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북과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천은 엄청난 경제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인천이 지자체라고 해서 언제까지 뭐 감 떨어질 때까지 국민정서에 대한 문제, 남북정세에 관한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이런 준비를 해야지요. 민간차원이든, 기업들 아니면 전문가들의 경험들이 모여야 지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진행한 내용들도 괜찮고 그리고 계획단계에 올려 있는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합을 맞춰봐야지요. 저는 그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천시 차원에서라도 소중한 자산들이 잘 모아져서, 큰 틀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민·관이 서로 교류협력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시가해야 된다. 모아서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라진규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신 시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북에 대한 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 대중적 통일운동이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인천겨레하나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사무처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의료지원 사업을 하게 된 계기

2006년 하반기부터 인천겨레하나에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남들 다하는 거 하지 말고 북의 의료가 어려우니 의료지원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치아 관련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당시 저희와 조금 관계가 있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위원회'일명 건치라고 하는데, 건치와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건치에서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고 제가 개성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담을 하면서 의견을 타진하였고, 북에서도 흔쾌히 좋다고 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지원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치과분야로 결정을 하고 북측과 협의를 하는데 북측에서 평양 제1인민병원이라는 곳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치과병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봤더니 2층 건물인데 뼈대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료지원만 생각했는데 건물 리모델링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협의를 하고 돌아와서 준비팀을 구성하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당시 인천 건치 회장님과 건치 집행부 회의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으나 건치 회장님의 의지로 우여곡절 끝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치료에 필요한 모형, 보철 등을 만드는 곳이 기공소 인데 인천에 대략 200곳의 기공소가 있다하고, 기공사 연합모임이 있었는데 건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화와 남북교류의 의미를 담아 이야길 나누었고 연합회 차원에서 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 제 1인민병원에 뼈대만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함께 할 파

트너를 찾던 중 예전에 평화통일 활동에 관심이 있던 분을 소개 받았고,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함께 하겠다'고 해 주어서 어벤져스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초반 함께 모여 사업단 이름을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사업본부'라 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천겨레하나는 북측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시민들과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치과병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원을 준비하지만 솔직히 민간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매개로 분단에 대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거지요.

사업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이니 지혜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노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대중적으로 돼지저금통을 나눠 모금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연수구 어린이지부 연합회와 함께 어린이집들마다 저금통을 나눠주고 6개월 뒤에 걷어서 기부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인천시와 통일부한테도 제안을 해서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사업주체였던 인천지역 치과와 기공소에서도 수많은 모금이 이어졌었습니다.

2007년 사업 시작한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무렵 본격적인 지원 물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첫 출발은 인민병원 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였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처음 출항할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가 들어갔고, 이후 하반기부터는 치과체어 등 치과 기자재들을 북측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사업 중간에 남측 치과병원 사업본부에서 평양에 가서 실무협의 겸 진행경과도 확인하였지요.

2008년 상반기 지원 사업을 시작한지 만으로 1년 만에 평양겨레하나 치과병원이 완공되었고 이후 남과 북이 함께 준공식 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북측에서 보내준 고려민항기가 김포공항에 와서 3박 4일 간 준공식 과 의료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측의 치과의사들과 남측의 치과의사들, 북측의 기공사들과 남측의 기공사들, 남측의 치과 관련 교수들과 북측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학교류를 하는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주 자주 만나다보면 곧 통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천은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10.4선언은 인천선언이라 할 정도로 향후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개선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하더라도 어느 지역보다도 항시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더욱 적극적인 남북교류,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전진기지로서 인프라 구축과 인천시민들이 평화통일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접경지역(인천, 경기도, 강원도) 모임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통일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통일부 등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인천이 먼저 접경지역 지자체에 다양한 제안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를 이야기 하는데 진정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가는데 있어 북과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 문제만큼 관건인게 없지요.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함께 지혜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박길상 (인천투데이 대표)

○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04년도에 6.15민족대회를 남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여 곡절 끝에 인천에서 하게 되었죠. 그때 인천을 방문했던 북측 관계자들이 남측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북측이 남측 지방자치체도에 대한 교육을 부탁해서 제가 금강산에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인천하고 북측이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중개자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것이지요.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남북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5년도에 제16차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때문이죠.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때 북측 응원단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북측과 협의를 했어요. 북측에서 피치 10,000톤을 요구를 해요. 인천시는 피치 10,000톤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당시 북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죠. 남측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측과의 약속을 잘 안 지켰거든요. 이를 계기로 북측에서도 인천시를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고 2005년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인 청년학생협력단이 참가 하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었죠. 이후 2008년도까지 인천시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된 것이지요.

○ 남북교류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참여한 사업은 북녘어린이빵공장사업, 평양 제1인민병원 내 치과병원 건립사업 등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크게 기억 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피치 10,000톤을 다섯 번에 걸쳐 보냈는데 마지막 보낼 때는 저도 같이 배를 타고 북쪽 남포항으로 갔었습니다. 환영만찬 식사를 하는데 북측에서 11,000톤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환대를 하는 거에요. 우리는 분명히 10,000톤을 보냈는데 의아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피치를 1톤짜리 드럼통에 넣어서 보냈는데, 피치를 드럼통에 넣으면 1톤 인데 약간의 공간이 생겨요. 당시 정유회사 노동자들이 이 피치가 북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보낸 거에요. 꽉 채우면 1.1톤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드럼통 10,000개를 세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게를 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북측 사람들 지독하다 생각했습니다. 피치를 다보내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평양인민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환영 만찬에 인천시장, 시의회의장하고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만

찬 자리에서 그때 당시 양만길 인민위원장이 인천시장하고 시의회의장한테 감사하다고 감사 선물을 주었는데, 사업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저도 감사 선물을 받았어요. 남쪽 사람이 북한인민위원장에게 감사선물 직접 받은 것은 제가 처음일 거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인천시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상당히 진보적이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유연했어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말릴 정도로요. 인천시공무원들이 신나게 남북사업에 대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성공을 했던 거 같아요. 북쪽은 지금도 인천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클 겁니다. 인천시 하면 굉장히 우대를 해주었으니까요.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지난 인천과 북측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북측은 인천을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죠. 북측은 인천시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교류가 시작되면 인천은 주도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연구해 두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가 열리는 순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고 우리는 없으면, 완전히 욕먹는 거잖아요. 주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와 민간단체와의 소통입니다. 북쪽은 남북교류를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됩니다. 인천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인천 민간단체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전문성도 갖춰야 합니다. 북쪽은 사실 공부 안하면 가서 아무 것도 못해요. 우리가 상대하는 북쪽 사람들은 어는 경우에 나보다 인천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면 저쪽은 '어'하면서 나오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아' 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연구하고 북측 체제를 알아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그래야 존중도 되고, 비난 할 때는 비난하고 이런 거지. 모르고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게 됩니다.

◎ 박동선 ((사)인천겨레하나 사무처장)

○ 대학생 시절 아리랑 축전에 참여를 하게된 동기

20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리랑 축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북측과의 만남이나 교류가 그냥 뉴스나 상상으로만 보다가 학교 차원에서 금강산 기행을 모집해서 갔다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에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북측 응원단이 와서 인천대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 하면서, 우리도 가고, 북도 올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좋았고, 북한은 관광지로만 금강산이나 이런 데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리랑 공연을 평양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양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해서 신청을 했던 거 같아요.

○ 아리랑 공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카드섹션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전에 제가 경험 했던 카드섹션이 아니라, TV에서 화면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활동하는 것처럼 변하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지요. 15분 정도 본 거 같은데 눈을 떼고 싶어도 뗄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 아리랑 공연 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묶었던 호텔의 1층에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간 선배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제가 율동패 출신이어서 율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동을 하고 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쪽에서도 춤을 추면서 노는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노는 문화가 있는지 등을 궁금해 했고, 둘이서 같이 하는 율동이 재미 있어 보였다고 관심을 보여서 선배들과 이야기 하다 말고 그분들하고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때의 기억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늘 책이나 자료를 통해 보는 것 보다는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진짜 다르지 않구나,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지금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만약 선생님께서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 등을 알리신다면 어떻게

지금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통일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통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이나 경험,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경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다른 방법으로 좀, 청년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가 제일 고민인거 같아요. 방법으로는 요즘 청소년들이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영상매체를 활용한 콘텐츠가 많았지면 좋겠어요, 통일부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는 있지만 너무 길고 설명이 많아서 재미가 없잖아요. 대중적으로 좀 더 알리려면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에 가장 큰 것은 사실 경험인거 같아요. 경험을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니까요. 금강산이나 개성관관 또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통해 교류를 경험해 본다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기존에 남북간에 맺고 있었던 교류사업부터 빨리 여는 활동을 시 자체적으로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것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교류를 조건 없이 하고, 남북제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민간단체 간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한 두해 정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평가를 통해 한 가지 사업을 설정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근우 (인천연구원 평화도시연구단장 / 정치학박사)

○ 대북사업의 구조

통일부에서 대북업체를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북한산 물품을 가지고 유통을 한 업체 전체를 대북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한 업체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하고 계약을 해서 수산물이든 모래든 반입을 해와요, 그리고 A라는 업체가 가져온 물품을 B, C, D라는 업체에 양도를 하면, 이 양도 받은 것을 팔아서 유통을 한 B, C, D업체도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B, C, D업체도 대북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진출한 업체들이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있어요. 모든 대북사업을 하려면 민경련을 통해야 하니까 민경련에서 우리 업체들을 줄 세우기를 해요. 한 업체와 100원에 하기로 계약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150원에 하자고 하면 계약을 하는거에요. 우리 업체들 간에도 자중을 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을 했던 부분이 있지요.

○ 북한에 진출한 인천소재 기업에 대한 현황

2010년도 이후에 진출한 업체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던 사업을 접고 대북사업에 올인 한 업체,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만 대북사업을 한 업체,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북한물건이 저렴하니 거래선을 북한으로 한 업체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인천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71개의 업체가 있는데 모래, 수산업, 농산물이 주였거든요. 그런데 5.24조치 이후 한국에 있던 사업을 접고 대북사업에 올인 한 업체들은 다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만 대북사업을 한 업체,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북한 물건이 저렴하니 거래선을 북한으로 한 업체들은 한국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북한이 아닌 동남아로 거래선을 옮겨 사업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업체가 힘이 들어지니까 통일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천만원씩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줘요. 저금리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런데 이 보장도 투자금액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었어요. 5.24 조치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근거서류 자체가 없거나, 북한은 적성국가다 보니깐 현금 거래를 주로 해서 근거가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중국을 통한 제3창구를 이용한 거래이다 보니 북한과의 거래라는

증거를 제출하기가 힘들고 우여곡절 끝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긴급자금 문제도 남아 있는거죠.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치적인 사항이니 업체에서는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 기억에 남는 업체들의 상황

북한의 개성공단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북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장방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과 계약을 하면 끝인 거예요. 공장의 위치 공장의 종업원 수 등 공장의 일반적인 상황만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고, 현장방문도 할 수 없으니까 검수를 못 합니다. 검수를 할 수가 없으니 품질의 차이가 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해서 팔 수 있는 것만을 팔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외적로 현장방문이 가능한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기술 이전이 필요한 제품으로 남한의 기술자가 북한 공장으로 직접 가서 기술시연과 기술 전수를 위해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경협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과거처럼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경련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경련 하고만 하면 손해를 보니까 3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경련의 상부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부기관도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해주고 내각에 책임이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경련과의 단독계약이 아니라 생산, 북한에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소들의 책임자와의 3자 계약을 하는 게 좋고, 계약 이후에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기관 해당 기관의 계약까지도 도장까지 받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지요.

○ 정권이 바뀌면서 업체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부가 교체되면서 남북경협 5대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북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희망을 밝혔지. 근데 이제 정권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통일부 장관도 바뀌면서 지금은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걸었던 기대 엄청 컸었다가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인영 장관이 내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 남북관계, 경협을 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지요. 항상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개성공단기업인협

의회 거기에만 다 관심이 있지, 내륙 투자 기업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죠.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업체들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고, 자료화 하고 수많은 간담회도 개최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인천연구원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인천문화재단이 협업을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연구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일단은 지금은 경제협력은 정부나, 시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워요. 민간기업이 주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환경을 중앙정부에서 마련을 해주면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는 먼저 과거에 사업을 했던 업체들의 현황과 그러한 업체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서로 적절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줘야 될 거 같아요. 과거에는 소규모 업체가 교류사업을 했다면 북한에서는 이제는 대규모 투자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교류사업을 했던 업체에서 이끌어 주고 뒤에서는 공공기관들과 민간가업의 컨소시엄을 해서 교류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은 주안산단·남동산단 등 산업단지 들이 많아요.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5.24 조치 이전과 이후 법이 개정되어 컨설팅 할 사항들도 많거든요. 포괄승인에서 개별승인으로의 변화 같은 사항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지요. 여건이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국래 (인천겨레하나 정책위원장 / 정치학박사)

○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지요.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이 되어 정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나 이런 것도 이제 남북 간에 합의가 되고 나서 그 합의에 따라서 계속 추진이 되니 그 당시 민간영역의 단체들이 남북교류를 위한 공동추진 조직이 만들어 지게 되었고, 저희 단체도 그전부터 이런저런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급진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있던 단체 이름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영역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쪽으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했었죠.

○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겨레하나는 중앙겨레나라와 인천겨레나라가 있습니다. 중앙겨레는 대외협력으로 빵공장 짓기 운동을 주도했고, 제가 인천겨레하나에서 사무처장을 했는데 인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던지 보통 작은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 인천에서 우리민족대회를 개최해서 그때는 행사팀장으로 6.15마라톤과 문학경기장에서 한 공동체 놀이를 진행했지요. 6.15 마라톤은 황영조 선수까지 초청해서 광고도 크게 해서 전국민이 다 알기도 했죠. 남북행사라서 참여자의 신원조회를 해야는데 황영조 선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일날, '아니다. 확인해보라' 해도 아니라고 해서 정말 진땀을 흘렸다니깐요. 우역곡절 끝에 진행을 하는데 평화마라톤이니깐 결승전에는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기로 협의를 했는데 다 같이 들어오다가 북측 참가자 한 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참 안 지려고 하는, 승부욕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이기고자 하는 습성이랄까.

○ 우리민족대회를 준비하면서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것

힘든 것이 소통이지요. 문화적 차이와 결정할 때 정치적인 상황 같은 거랄까? 지금은 그래도 협의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초반에는 정부와 협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관철이 될 수 있게 밀어 붙이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힘들었죠. 민관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힘들었죠.

○ 우리민족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게 된 계기

처음에는 북쪽에서 광주에서 하기를 원했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광주하면 민주주의의 상징이랄까 그래서 정부에서 NO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정해야 하나 고심하다가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해 보자고 한 것이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서울이 아닌 곳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광주에서도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민족대회에서 북한분들의 반응은

그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긴장들을 했죠. 특히 20대 청년들은 처음 오는 곳이기도 하고, 북한 국정원, 남한 국정원, 경찰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낯선 환경에서 공연과 행사를 진행을 했으니 더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아마 서구문화회관이었을 거예요. 서구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검정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입고 공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입장을 하지 않고, 밖에 그 마당이 넓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앞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거에요. 자기들끼리, 예정에 전혀 없었는데, 잠깐 짬이 나니까 내려가지고 바로 입장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남북 젊은이들의 춤판이 벌어졌고 특히 그쪽에 청년학생협력단 분들이 약간 긴장한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젊다 보니까 순식간에 서로 어우러지고, 섞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만 익숙해지고 풀어지면 교류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 인천에서 진행할 남북교류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인천시도 정부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성공단이든, 문화교류든 문제들을 다양한 외교 채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나가길 바래요. 금강산 하고 개성관광,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같은 분위기에서는 미국이나 유엔 눈치 보지 않고 일단 치고 나가서 그쪽을 설득하고 그쪽하고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때 분위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미 눈치를 보는 한국정부 하고 똑같이 중앙정부의 눈치만 또 너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북미 관계가 풀리기만을 중앙정부만을 바라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북미 관계가 풀리기만을 보고 있는 건데, 저는 투 트랙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잘 될 경우, 안 될 경우. 그리고 또 안 될 경우도 반드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안 될 경우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잘될 경우에는 이게 풀려야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먼저 준비하는 게 저는 순서였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해왔던 것, 축척된 자료, 많지는 않지만 그거라도 한 번 검토 하고 거기서 어떤 교훈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명조 (㈜하온아텍 부회장, 前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처음시작은 2004년도에 광주에서 하기로한 6.15 행사를 광주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에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시에 요청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상수 시장이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없었어요. 시간은 촉박하고 마땅히 할 부서도 없고 해서 문화체육국에서 맡아서 하게 된 것이 시작이네요. 갑작스럽게 시작하다보니까 예산도 없고 기금도 없어서 급하게 민간보조금에서 3억을 추경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고, 인천시민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문학경기장에서 공연도 보여주고 행사도 하고 성공적으로 6.15행사를 치를 수 있었죠.

○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에피소드

6.15 행사 후 200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치뤄야 했는데 경기장 관중이야 학생들 동원으로 어찌 해결이 되는데, 개·폐회식이 문제였죠. 세계육상경기도 관심이 없는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6.15행사도 했는데 한번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도 북측과 함께 해보자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도 오케이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했죠. 예산은 그 당시에는 기금이 없어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북쪽 응원단 초청비로 10억 책정해 놓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북쪽 민관협(민관 정책협의회)과 우리 쪽의 박길상씨, 우리겨레측과 합심을 해서 1년여에 걸쳐 엎어지고 진행되기를 반복에 반복을 하다가 성사를 시켰지요. 그리고 그사이 2005년 5월에 저희 대표 170명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각종 단체들 해서 인천공항에서 북쪽 민항기를 타고 3박4일 방문을 했지요. 북측과 협의가 잘되고 최종적으로 응원단이 오는 것으로 성사가 되어 응원단 140명과 선수단이 오게 되었고, 응원단의 공연 등으로 개패회식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 응원단 중에는 현재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당시 진행을 담당한 저희 직원과 북측 직원이 같은 호텔에서 10여일 동안 같이 웃고 울고를 동고동락을 해서인지 헤어질 때는 누구할것 없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2005년도에는 북의 초청으로 3박 4일 평양을 다녀왔는

데,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의 고려민항기가 오게 된 것도 이번 교류사업을 진행하면서네요. 북한을 오고가면서 아리랑 공연도 돈 내고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치 3D 컴퓨터 그래픽처럼 일사분란, 오차범위 없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말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공연이 200불이었어요.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남북교류사업의 여건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진행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현대아산이 금강산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건이 너무 좋았던 시기거든요. 그러나 지금을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빠른 시일에 여건이 좋아지길 바래요. 유엔제재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기엔 여건 상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마인드보다는 '나는 사업가'라는 생각으로 이번 협상 건은 꼭 성사되어야 된다라는 이념으로 끈질기게 대화에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내길 바래요. 그리고 남북 간의 협상은 믿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북교류 담당 직원은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사람이 담당해서 진행되어야 될 거 같아요. 협상에서는 시 예산도 걸리고 하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협상여지 등 완벽한 플랜을 짜서 진행이 되어야 협상을 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에선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도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서로 시작을 해야 되요, 저도 그 당시 그랬구요.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서로를 믿기 시작하니까요.

◎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경제학박사. 前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

1992년 한중수교가 되고 그 이듬해에 산동성으로 가서 무일푼으로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의제 중의 하나가 남북공동어로 작업이었어요. 평화수역에서 남과 북이 같이 어로작업을 통해 상생해서 발전해 나가자는 의제였는데, 그걸 보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소명감에 3년 뒤인 2007년도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북한에 제대로 된 어망 공장도 없고,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서 북한에서 관심이 많아서 직접 와서 묻기도 하고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처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기억나는 거 많죠. 눈물도 많이 나오고, 사돈의 팔촌은 생각이 안 나도 북한 근로자들은 생각 나요. 개성공단 근로자들 대다수가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해 교육수준이 높고, 머리회전 속도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임기응변도 얼마나 대단한지… 또 북한은 전인교육을 해서 악기도 한두 개, 운동도 한두 개 못하는 게 없어요. 쉬는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배구 등 대항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남북 간의 문화, 체육교류, 경제교류를 하면 주변국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참 그들은 '총화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인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리자가 하루에 10분, 20분씩 조회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아서 피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인장들이 점심 먹고 두 세 시 정도에 총국으로 가서 지침을 받고 와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부터 어디 업체는 초코파이를 몇 개 주는데, 우리는 왜 한 개 밖에 안 주느냐 하면서, 업체별로 비교하고 이야기 하고 난리였다니깐요. 그래서 10개까지 주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고, 월급보다 초코파이 값이 더 들어갈 정도로 말이죠. 나중에는 업체별로 상한선을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를 감시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니 그때 더 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되고 나온 상황에 대해

아휴, 참 눈물겹게 했지요. 2016년 4차 핵실험이 있고 그날이 설날 연휴기간 이었는데 2월 10일날 닫혔거든요. 2월 9일 인가, 8일 인가 통일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협회 임원들을 만나고 싶다고 설 연휴기간인데, 갑자기 순간 아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시 정도에 만나서 밥을 먹고, 2시에 올라갔는데 장관하고 경제부처 차관들이 다 도열해 있고, 딱 들어서는 순간 아, 이게 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닫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그리고 5시에 공식적으로 대국민 발표를 할 거라는 이야기 하면서 3일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1사 1인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저 답답할 뿐이었답니다. 그래서 12시에 봉쇄, 첫날 추방령. 그래서 그때 밤 11시에 생중계하고 통일교를 넘어 온 것이 끝이에요. 우리는 한 6시 정도에 나왔는데, 트럭 한 대로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어망을 잔뜩 실었는데,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인데도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라고 도와주더래요. 눈물겨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숨이야. 한숨.

○ 그 후 개성공단에 진출한 인천기업

개성공단에 땅만 사놓고 안 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5.24조치 때문에 땅만 사놓고 했는데 2010년도에 5.24조치가 터지니까. 건물도 짓던 것도 골조만 해 놓구 거기서 스톱했어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가슴앓이 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인천기업들도 그런 대상들이 많았어요. 투자만 해놓고 통일부하고 이렇게 협약만 해놓고 그냥 이제나 저제나 들어갈까 하다가 스톱 된 곳이 한 10여 군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들어가서 하던 그게 이제 18개가 됐지, 그래서 폐기된 곳이 한데가 두 군데가 되고, 지금은 16군데가 있는데, 지금 경영상태는 아주 안 좋아요. 인천업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 시장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 주고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시장이 직접 챙기고 했으니까. 2014년도에 6개월 간 닫혀 있을 때는 문지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은행 뭐 그때 경인지역 대표들 거기다 앉혀 놓고 시에서 보조금 주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10억씩을 그냥 기업이 크던 작던 담보 상관없이 1년 동안 단기 대출을 해줬어요. 단기 대출, 다 갚았어요. 인천 지역이 그나마 잘 챙기고 했고, 또 시장이 집합 하라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루루가서 얘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인천업체들이 그나마 타 지자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었고 했는데, 요즘은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라고

하면은 누가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엊그제도 모임 한 번 했는데 5명 나왔더라고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지리멸렬해 있어요.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모이라 해도 명분도 없고 가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내용도 없고, 안 나와요.

○ 개성공단입주업체로써 인천시에 바라는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접경지역에 있는 최일선이,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인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나름대로 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관심 밖에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나마 했던 게 개성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인천시가 인천시의 업체들한테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에요. 살려 놔야 나중에 재개가 되면은 다시 별동대로서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돈을 달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크게 돈 안들이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체들 불러 놓으면 돈 달라고나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지 말아 달라는 거에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렇게 해서 경영정상화 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줘야 명분도 있고 한 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은 다음에는 갈려고 해도 못 가요. 못 가는 거지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가겠다? 새로운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지요. 새로운 사람이 가는 거하고, 하던 사람이 가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낫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여 년 넘게 하다보니까. 소명감이 있어요. 그 나이 많이 먹은 70~80대 회장들 내가 더 돈 벌어서 뭐하겠냐. 내가 이거 해보니까,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더라. 밭에 농부가 던지는 씨앗이 되더라. 그걸 느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이라도 해야지라는 소명감이에요. 인천시에서도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불러다 놓고 밥이라도 한 끼 주면서, 아 이렇게 해라, 시장의 한 마디와 대출 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을 좀 낮춰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 이광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04년에 남측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민족대회(6.15)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행사가 인천단위 행사가 아니라 전국단위 행사였던 것이죠 그때 저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팀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단장은 따로 있고, 저는 실무팀을 하면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활동하고 관리하는 일을 진행하였답니다. 그때 시에서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해서 그쪽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준비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한 달 반인가 2달 가까이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자원봉사 단체인 나눔과 함께 라는 단체에서 파견을 나와서 자원봉사팀을 운영했던, 그때 처음 남북교류사업이나 평화통일 관련된 행사를 했었던 거 같아요.

○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에피소드

보통 평화통일 운동이나 남북교류를 진행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진보적인 단체 아니면 정치스펙트럼으로 하면 좌측에 있는 단체들이나 청년 단체들이 했던 것인데, 우리민족대회를 개최를 할 때는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보니, 새마을, 자유총연맹이라던지 보수단체부터 40대~60대 초반부터 여성부터 해서, 남녀노소 정치성향과 상관 없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다 참여를 한 것 같았어요. 이게 인천의 지리적 특성, 정치적 특성인거 같아요. 큰 대의 명분이 있으면 다 떠나서 함께 만들어 가는 참 기분 좋은 행사였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우리민족대회를 전·후 해가지고 인천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지금까지도 평화통일이라는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번복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이런 문화가 계속 있는 거 같아요. 민·관이 같이 하는 것도 그때부터 계속.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만들어졌고. 이번에 10.4행사를 하는데 10.4행사도 보통시민단체들이 하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민·관이 같이 하는 거에요. 민·관이 같이 하고 이번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라고 하는 법적 기구가 있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라하는 곳도 이번에 공동으로 10.4기념행사에 추진하거나 하게 되는 역사까지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

평화복지연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 인천은 서해 5도 관련문제, 서해 5도 평화수역문제, 어민들 생존문제, 연평도 문제 등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화도시 조례 제정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와서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되었거든요. 평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동에서 같이 황해포럼도 하고, 인천은 전쟁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 흔적을 평화의 이미지로 계속 바뀔 수 있게 평화통일 둘레길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래 봅니다. 이게 평화운동으로 볼 수 도 안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캠프마켓이 반환이 되었잖아요. 이 반환도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평화도시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게 시민교육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리고 시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을 계속 성장될 수 있게끔 교육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피해를 보았고 그걸 이겨내는 힘이 들었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중립을 통한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시에게는 평화조례를 진행하면서 평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있었는데 이 부서가 계속 존치되길 바래요. 신념과 신뢰 의지도요.

3 인천시의 남북교류 관련 조례

담당부서	조례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ㅇ『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ㅇ『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ㅇ『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ㅇ『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지문위원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ㅇ『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국제협력과	ㅇ『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ㅇ『인천광역시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ㅇ『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04-11-08 조례 제 03785호
(일부개정) 2005-04-25 조례 제 03820호
(일부개정) 2006-01-02 조례 제 3871호
(일부개정) 2007-06-18 조례 제 40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1-05 조례 제 4050호
(일부개정) 2007-11-05 조례 제 4093호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2-06-18 조례 제 5117호
(일부개정) 2013-07-29 조례 제 5256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 5549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전부개정) 2018-10-08 조례 제 60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 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 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제7조(설치)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1.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에 관한 사항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 지역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
4.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장 통일교육 활성화

제26조(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3. 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운영
4.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6.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8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3.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
4.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군·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
8. 통일·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군·구 소속 직원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또는 시 소속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의견수렴)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600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및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위원 및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1-16 조례 제 5581호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 5722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5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2-26 조례 제 63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334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10-05 조례 제 4324호
(일부개정) 2013-07-29 조례 제 52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5-26 조례 제 5369호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 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4-13 조례 제 5471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 5722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8-10-08 조례 제 598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05-26]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6〉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05-26]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5-26]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05-26〉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7-29, 2014-05-26〉

1. 당연직위원 : 시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지방경찰청·경인지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2. 위촉직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05-26]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05-26]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협의·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5-26]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5-26]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05-26]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군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05-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4-05-26]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0-06 조례 제 5396호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 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 5525호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 5549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전부개정) 2016-05-19 조례 제 5645호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 5722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01-13 조례 제 576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10-08 조례 제 598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6-21 조례 제 6195호 제 6195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나.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 간 기구
   다. 국제 비(非)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2. “외국기관”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사무소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말하고 “주관부서”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관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제도시 중장기 비전과 전략
2.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4.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관리

제4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5조(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추진할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도시 간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6조(체결절차)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구호 경비·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주요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증진되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결연취소) 시장은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자문관 등 운영

제9조(위촉)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무역·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자문관을 역할, 목적, 책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천광역시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단체·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3. 국제기구·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개최
4. 시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제11조(임기)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① 자문관은 역할의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국가 및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관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안사항은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13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및 활동비와 자문관과 명예대사를 초청할 시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초청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제14조(위촉)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각 어권별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역할 및 의무) 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각종 국제행사 및 외국 인사 방문 시 안내 및 통역
2. 시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 제보
3. 시민 외국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증진

② 명예외교관은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가와 시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임기)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이 제15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지원)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교육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명예외교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5장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유치·지원

제18조(유치검토)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유치지원)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 등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 기존의 지원협약보다 추가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소요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유치·지원의 취소) 시장은 국제기구 등의 유치·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인천광역시국제도시화위원회 운영

제22조(목적 및 기능) ①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사항과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의 연장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도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당연직위원은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1. 시의회 의원
2.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
3.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운영)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국제관계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업무조율, 정보공유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부서·기관, 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시 유관기관·단체를 대표하는 간부인사
2.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0조(자료제출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제22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국제개발협력 및 공조강화

제32조(국제개발협력사업) ① 시장은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상생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시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33조(협력 및 지원) 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괄부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에 관한 정보·통계를 취합·관리하고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의 증진과 내실화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기관·단체·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5645호 2016-05-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자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국제

자문관과 인천광역시 국제고문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인천광역시 시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시민 명예외교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시민 명예외교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인천광역시 시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 략)

⑧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제5764호, 2017.1.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㉕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유치단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

부칙〈제5984호, 2018.10.0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619호, 2019.6.2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②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3-06 조례 제 5768호 인천광역시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2014 프로그램"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스포츠 약소국"이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화폐로 1만 달러 미만이며,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없거나 성적이 부진한 국가를 말한다.
3. "스포츠 진흥사업"이란 스포츠 문화의 기반조성 및 선진체육기술을 전파·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내용) 비전 20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약소국 소속 선수단에 대한 초청 전지훈련
2.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
3.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장비의 지원
4.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진흥사업
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및 아시아 각국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의 스포츠 교류
6. 그 밖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네트워크 구축·활용)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03-06 조례 제5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17-03-06 조례 제 5769호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2019-07-17 조례 제 62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체육회나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9.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0.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1.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13.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제14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7-17]

제17조(스포츠복지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스포츠산업 진흥

제18조(스포츠산업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시행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
5.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6. 국제스포츠기구 유치
7.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
8.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사용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50으로 하고, 월할(月割)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日割)로 정산한다.

제20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21조(사용·수익의 조건)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시장은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3.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4.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제5장 보칙

제23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군·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국내·외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03-06 조례 제5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3.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4.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및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7-17 조례 제6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남북교류관련 문서

1) 실무합의서

실 무 합 의 서

남측인천광역시(이하 남측)와 북측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는 4 월 10 일부터 11 일사이에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협력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 남측은 인도주의적립장에서 북측에 도로포장용 피치 1 만톤을 7 월말까지 지원한다.
3. 쌍방은 북측 남포시와 남측 인천광역시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북측은 남측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분야의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상수 인천광역시시장을 포함한 인천시대표단을 5 월말부터 6 월초사이에 평양에 초청한다.
5. 북측은 9 월 1 일부터 4 일까지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 16 차 아시아륙상선수권대회에 선수단 및 응원단을 보내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이 피치 1 만톤 지원사업을 7 월말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5 항의 리행을 보류 또는 철회할수 있다.
6. 북측은 도로포장을 시작하는 시기에 인천시의 도로포장관련기술자 3 명정도 초청하여 현장을 참관하도록 한다.
7. 쌍방은 인천시장의 평양방문 15 일전에 합의되는 장소에서 실무접촉을 다시 가지고 인천시대표단의 평양방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부적 문제들을 협의확정한다.
8. 쌍방은 이상 합의사항의 원만한 리행을 위하여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남측인천광역시를
대표하여 윤증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대표하여 리창덕

2005 년 4 월 11 일

2) 합의서

합 의 서

남측 인천광역시(이하 남측)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는 2005 년 5 월 30 일 부터 6 월 2 일사이에 평양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 남측과 북측은 2014 년 아시아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북측의 체육시설, 호텔, 도로건설과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자재들을 적극 지원한다.
3. 북측은 2005 년 9 월 1 일~4 일사이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륙상선수권대회에 선수단, 응원단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보낸다.
4. 쌍방은 경제, 축구를 비롯한 체육,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5. 쌍방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임을 확인하면서 일본의 재침야망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
6.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계속 협의해 나간다.

남측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안상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영대 (김영대)

2005 년 6 월 2 일

3) 의향서

의 향 서

남측 인천항만공사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평양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남측 인천항과 북측 남포항과의 우호적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1. 양측은 남포항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 양측은 인천항과 남포항간 항만 및 해운분야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 양측은 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대표하여	남측 인천항만공사를 대표하여
김만경	사장 고남석

2005년 11월 5일

평 양

4) 2007년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의향서

의 향 서

남측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이하)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는 2007년 2월 1일 금강산에서 실무협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의향을 표시하였다.

1. 쌍방은 올해에 《우리민족끼리》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측은 올해중으로 구강병원건설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필요되는 병원부지 및 로력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실무접촉 및 현장방문을 진행하면서 구강병원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겨레해나되기인천
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사무처장 라진규

민족화해협의회를
대표하여
김만길

2007년 2월 1일
금 강 산

5) 2007년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 합의서

합 의 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와 남측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이하 남측)는 2007 년 9 월 13 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한 구강병원협력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평양에 구강병원(치과병원) 부지 및 건물과 로력을 보장한다.

2. 남측은 평양에 구강병원(치과병원)설립을 위한 기자재,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보장한다.

3. 남측은 구강병원(치과병원)이 2008 년 2 월까지 준공할수 있도록 협력하며 북측은 적절한 시기에 남측 관계성원들을 초청한다.

4. 쌍방은 구강병원(치과병원)완공 이후 구강의료부문에 대한 협력사업을 계속 론의하도록 한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대표하여

남측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를 대표하여

2007 년 9 월 13 일

개 성

5 인천시의 남북교류관련 단체 현황

단체 명칭	소재지	주된 사업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남동구	ㅇ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사업 ㅇ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사업 ㅇ 전쟁을 반대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사업
(사)인천겨레하나	부평구	ㅇ 남북 민간교류협력에 관한사업 ㅇ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ㅇ 북의 도시와 지역간 교류 ㅇ 통일에 대한교육 및 홍보 ㅇ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각종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
나라사랑청년포럼	부평구	ㅇ 나라사랑 인천사랑 견학 및 역사탐방 ㅇ 나라사랑 통일사랑 안보교육 및 토론회 ㅇ 나라사랑 청년사랑 봉사활동 및 자기계발 ㅇ 나라사랑 자연사랑 교육 및 캠페인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남동구	ㅇ 평양대성지구배나무심기사업 ㅇ 남북화해와 평화연구 및 인식개선사업 ㅇ 북한영유아, 청소년, 여성지원사업
노동희망발전소	부평구	ㅇ 통일평화교육, 평화통일 기행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인천광역시연합회	미추홀구	ㅇ 초·중·고등학생 안보교육 강화 ㅇ 국경일 및 국가중요행사일 등에 태극기 게양 사업 ㅇ (사)대한민국통일 건국회 교육연수원 설립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인천지역회	-	ㅇ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ㅇ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ㅇ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ㅇ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ㅇ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단체 명칭	소재지	주된 사업
민족통일 인천광역시협의회	남동구	ㅇ 정부통일정책홍보 민족화해, 협력사업
사단법인 숭조회	강화군	ㅇ 단군성조의 숭모사업 및 개국 이념연구 ㅇ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ㅇ 민족전통문화의 개발 및 충·효·예의 사상보급
서해 5도 평화운동본부	중구	ㅇ 서해 5도 주민권리 증진 및 평화운동
(사)우리누리 평화운동	강화군	ㅇ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평화운동 등
인천광역시 평화대사협의회	서구	ㅇ 평화와 통일지원 사업 및 교육
인천남북아카데미	연수구	ㅇ 인천지역 내 평화 통일의식 함양사업 및 기타 통일 교육 사업 등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	ㅇ 남북경협아카데미 진행 ㅇ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된 주제의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연수구	ㅇ 통일 전후에 관란 연구 및 조사 ㅇ 통일 후 통합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ㅇ 통일 후 통합 관련 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관의 학술교류
인천 시민사회 단체연대	남동구	ㅇ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연대 및 지역현안 연대 사업 ㅇ 지방자치기구에 대한 시민감시운동 및 참여운동 전개 등
인천평화복지연대	남둥구	ㅇ 보편적복지의 제도화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사업 ㅇ 사회복지공동체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ㅇ 사회복지강화를 위한 제반사업 ㅇ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제반사업 ㅇ 6.15남북공동선언과10.4선언의 정신을 살려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사업 ㅇ 생활과정치의통일, 직접민주주의실현, 시민주권실현 사업 ㅇ 동네에서부터 평화와복지를 실현하는 풀뿌리지역 공동체 건설사업 ㅇ 기타 이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단체 명칭	소재지	주된 사업
통일로	부평구	ㅇ 평화와 통일관련 시민교육 및 참여활동
통일민주협의회	남동구	ㅇ 통일 민주국가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운동 ㅇ 민족정체성과 공동체의식회복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 ㅇ 통일교육과 통일에 대비한 환경보호사업 ㅇ 평화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ㅇ 민족분단 종식을 위한 통일아침대화포럼 등
통일 한울회	남동구	ㅇ 통일교육 및 통일 홍보활동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 합창공연 등) ㅇ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연대활동 (남북한 문화비교 체험 등) ㅇ 북한 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 ㅇ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개발 확립
평화3000		ㅇ 남북간 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실현 ㅇ 인도적 지원 : 영양지원, 농업지원, 생활개선지원, 긴급구호 ㅇ 사회문화교류 : 남북체육교류, 남북종교교류 ㅇ 방북사업 : 대규모 방문,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인천광역시 평화대사협의회	서구	ㅇ 평화와 통일지원 사업 및 교육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	ㅇ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 및 미래비전 구상
(사)황해도굿 한뜻계보존회	미추홀구	ㅇ 황해도굿 보존, 육성, 국제전파 및 공연
(사)흥사단 인천지부	미추홀구	ㅇ 민족통일연구 ㅇ 투명사회운동 ㅇ 교육·청소년 운동 ㅇ 지역흥사단 활동 ㅇ 독립유공자후손돕기 ㅇ 아카데미 운동·미래사회리더스쿨

6 인천 소재 통일 및 평화관련 기관 현황

기관	현황
인천통일+센터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타워 ㅇ 설립 : 2018년 9월 10일 ㅇ 현황 - 인천통일+센터, 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 - 인천통일+센터 : 지역통일 인프라인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민간)와 통일부(중앙정부), 인천시(지방정부)가 연계한 소통과 협력의 통일 통합플랫폼으로, △시민 참여형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탈북민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 △남북교류협력 상담 및 지원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상담 및 지원 △인천시민이면 누구든 이용가능한 열린 통일사랑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하나센터 :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지원으로 초기집중교육과 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역주민과의 소통 △작은 통일마을 만들기 △기타 교육, 진로, 생계, 의료, 심리안정, 법률지원 등의 지역기반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통일교육센터 :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일교육 전문센터로서 △열린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통일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평가회의, 워크숍 등의 지정사업(17개 지역 통일교육센터 공통사업)과 함께 △통일 서포터즈, 대학생 토론회 등의 자율사업 운영 자료 : 인천통일+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uni_incheon/221410947307)

기관	현황
인천통일관	ㅇ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인천자유회관 ㅇ 설립목적 - 북한주민 생활필수품, 북한발행 신문, 책자의 열람,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극영화, 만화영화)를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부의 통일을 향한 노력, 통일의 비젼, 준비하는 통일, 세계 속의 통일한국, 인천의 지리적 통일여건 등 을 전시하며 청소년 등 통일세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제공을 통해 소통하고 주제가 담긴 실증적 통일 체험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ㅇ 현황 - 1994년 12월 인천자유회관 내 통일원 인천북한관 개관 - 2004년 5월 인천광역시통일관으로 명칭 변경 - 2015년 10월 전시관 일체 리모델링 - 2016년 1월 인천통일관 재개관 자료 : 인천통일관 홈페이지 (http://www.icuh.or.kr/)

기관	현황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 ㅇ 설립 : 1984년 9월 15일 ㅇ 설립목적 -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함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 -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차원에서 기념 보존 - 자유수호의 실증적인 교육장 ㅇ 현황 -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4,347㎡, 건물면적 1,793㎡으로 6.25전쟁 시 사용한 피·아 무기류, 남·북한 군민복장 비교, 인천상륙작전 디오라마 등이 전시가 되어있는 전시관과 야외전시장, 야외 공연장,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D.V.D를 상영하는 영상실, 휴게실, 전망대, 소공원 등이 조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현장 학습의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http://www.landing915.com/)

<table>
<tr><th>기관</th><th>현황</th></tr>
<tr><td>강화
평화전망대</td><td>

ㅇ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ㅇ 설립 : 2008년 9월 5일

ㅇ 설립목적

- 강화평화전망대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통선북방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개관하였다.

ㅇ 현황

- 지하 1층 지상 4층

<table>
<tr><td>1층</td><td>관리실, 통일염원소, 휴게실 및 식당, 기념품매장, 화장실</td></tr>
<tr><td>2층</td><td>전시실, 북한땅 조망실(시청각교실)</td></tr>
<tr><td>3층</td><td>북한땅 조망실(시청각교실), 옥외 전망대</td></tr>
<tr><td>지하1층,4층</td><td>군부대 전용시설</td></tr>
<tr><td>야외</td><td>망배단</td></tr>
</table>

자료 : 강화군시설관리공단
(http://www.ghss.or.kr/src/article.php?menu_cd=0803010100)

</td></tr>
</table>

기관	현황
연평평화안보 수련원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24번길 25 ㅇ 설립 : 2018년 3월 ㅇ 설립목적 - 포격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가 공존하는 서해바다의 중요성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바램과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의지 및 국민들의 지원 하에 조성 ㅇ 현황 - 2010년 11월 23일 북한 포격사건의 아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험장으로 민가 3채를 포격 당시 그대로 보존하고 잔해물을 전시하여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장소. - 6.25 전쟁 이후 해상 NLL을 경계로 제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의 피폭 건물을 보전하고 있는 생생한 안보 교육의 현장.

	용도	시설
1층	강의실 및 식당	사무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화장실, 세탁실, 기계실, 인솔자숙소(1실)
2층	숙박시설	객실(7실), 인솔자숙소(2실), 샤워·화장실(2실), 휴게실
부속시설	체험교육 체험활동	연평도안보교육장, 운동장(풋살장)

자료 : 연평평화안보수련원홈페이지
(http://www.ongjin.go.kr/open_content/security/)

7 인천시 연도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현황	내용
1984	서울·경기 수해 시 북측 구호물품 도착	ㅇ시 기 : 198년 9월 29일 ~ 10월 4일 ㅇ품 목 : 쌀, 시멘트, 광목(옷감) ㅇ성 과 : 북한 화물선이 인천항에 시멘트 등 구호물자를 들여온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관례를 형성 ※ 북측의 최초 지원 ※ 북측의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2004	룡천 참사 지원	ㅇ시 기 : 2004년 5월 12일 ㅇ성 금 : 22,000,000원(인천시 공무원, 밀가루 2,000포대 구입) ㅇ물 품 : 170,000,000원(대한적십자사)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	ㅇ시 기 : 2004년 6월 1일 ~ 8월 20일 ㅇ모금주체 : 경인일보사(시, 교육청, 적십자 등 후원) ㅇ모 금 액 : 240,000,000원 ㅇ성품전달 - 1차 : 의류 66,170점(122,000,000원 상당) - 2차 : 생필품 및 CJ·대한제분 지원물품 (118,000,000원 상당) ※ 북측 :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우리민족대회 인천 개최	ㅇ시 기 : 2004년 6월 14일 ~ 6월 17일 ㅇ북측참가 : 103명 / 참관자 25,000명 ㅇ성 과 : 남북 화해와 민족적 동질성을 크게 고양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김정호
	◈ 6.15 4주년 기념행사◈ ○ 통일마라톤 : 6.15㎞ ○ 통일연극제 : 통일을 주제로 마당놀이, 노래, 무용공연 등 ○ 통일염원 동아리 축제	○ 열린음악회 : 인천시민 환영행사로 열린음악회 개최 ○ 전시회 : 각종 사진, 시회, 그림, 조각 등 전시 ○ 기타부대행사 개최

<table>
<tr><th>연도</th><th>사업현황</th><th>내용</th></tr>
<tr><td rowspan="4">2005</td><td>북한 어린이 돕기 성품 전달</td><td>ㅇ시 기 : 2005년 4월 23일 ~ 4월 29일
ㅇ지원규모 : 5종 120,000,000원(분유, 밀가루, 농사용 비닐 등)</td></tr>
<tr><td>피치(Pitch) 및 페인트 지원</td><td>ㅇ시 기 : 2005년 5월 ~ 10월
ㅇ지원규모 :
- 피치 10,000톤 (3,142,000,000원)
- 페인트 124톤 (159,000,000원)
ㅇ관련단체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td></tr>
<tr><td>시 대표단 북한 공식방문(초청)</td><td>ㅇ시 기 : 2005년 5월 30일 ~ 6월 2일
ㅇ방 문 단 : 42명
<table>
<tr><td>시</td><td>의회</td><td>군구</td><td>경제인</td><td>시민단체</td></tr>
<tr><td>9</td><td>8</td><td>3</td><td>2</td><td>8</td></tr>
<tr><td>협력위원</td><td>아시아조직위</td><td>기자</td><td>중앙</td><td>계</td></tr>
<tr><td>2</td><td>1</td><td>6</td><td>3</td><td>42</td></tr>
</table>
ㅇ소요경비 : 42,000,000원
ㅇ방문성과 :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 6개항 합의
- 실무접촉 : 평양</td></tr>
<tr><td>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및 청년학생협력단 참가</td><td>ㅇ시 기 : 2005년 8월 28일 ~ 9월 5일
ㅇ소요경비 : 706,000,000원
ㅇ북측참가규모 : 144명
- 선수단 : 20명(선수 8, 임원 12)
- 청년학생협력단(공연단) : 119명
- 기자단 : 5명
ㅇ주요 지원사항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
- 통신, 방송·보도, 의료, 기자재 지원
- 숙식, 선물지원 등</td></tr>
<tr><td>시 경제대표단 북한(평양, 남포) 방문</td><td>ㅇ시 기 : 2005년 11월 2일 ~ 11월 5일
ㅇ소요경비 : 18,000,000원
ㅇ방 문 단 : 52명(시 8, 경제인 29, 항만공사 10, 기타 5)
ㅇ방문성과 : 남포항 현대화사업 적극추진 의향서 체결 (인천항만공사)</td></tr>
</table>

<table>
<tr><th>연도</th><th>사업현황</th><th>내용</th></tr>
<tr><td>2006</td><td colspan="2">○ 북한 핵사태 등 국제정세로 인하여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전면 중단</td></tr>
<tr><td rowspan="3">2007</td><td>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지원</td><td>○ 시　　기 : 2007년 7월 ~ 11월
○ 지원금액 : 699,000,000원
○ 지원내역 : 인조잔디 교체 및 관람석 보수, 시설장비 등 물품 및 장비 지원
○ 지원방식 : (사)평화3000과 업무위탁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비 지원
○ 축구장 현대화사업 준공식 참가
- 참가인원 : 148명
- 참가시기 : 2007년 11월 8일 ~ 11월 10일
<table>
<tr><th>인천시</th><th>Utd FC</th><th>평화3000</th></tr>
<tr><td>44명</td><td>32명</td><td>72명</td></tr>
</table>
- 인천 Utd FC 對 북한 4.25천리마축구단 유소년팀 축구전 관람</td></tr>
<tr><td>북측 홍수피해
구호물품 지원</td><td>○ 지원시기 : 2007년 12월 27일
○ 지원금액 : 200,000,000원
○ 지원내역 : 벽지 43,000㎡, 타일 16,500㎡
○ 지원방식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업무위탁 체결에 의한 사업비 지원</td></tr>
<tr><td>북측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일행
인천방문</td><td>○ 일　　시 : 2007년 11월 29일
○ 방 문 자 : 김양건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최승철 부부장 등 7명
○ 방문목적 :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원만한 추진과 이행을 위한 현장시찰차 인천 경제자유구역 방문
○ 방 문 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갯벌타워) 및 인천대교 홍보관
○ 건의사항 : 인천시~북측 간 수시 연락창구(FAX 등) 개설 추진 및 인천국제공항 ~개성공단 간 도로개설 건의</td></tr>
</table>

<table>
<tr><th>연도</th><th>사업현황</th><th>내용</th></tr>
<tr><td>2007</td><td>시 대표단 북한(평양) 방문</td><td>ㅇ 기　　간 : 2007년 11월 8일 ~ 11월 10일
ㅇ 방문인원 : 148명
<table>
<tr><th>시</th><th>Utd FC</th><th>(사)평화300</th></tr>
<tr><td>44명</td><td>32명</td><td>72명</td></tr>
</table>
ㅇ 소요경비 : 6,000,000원(인천시)
ㅇ 방문경로 : 북한 민항기 이용
ㅇ 면 담 자 :
- 장재언(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 강지영(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림승찬(평양시 체육단장)
- 김　호(평양시 체육단 부단장) 外
ㅇ 주요내용 :
- 2008년 7월 동북아시아 4개국(인천, 중국, 일본, 북한) 프로팀 친선 축구대회 북측 참가 제의
- 2014년 아시안게임 분산 개최 제의
- 2009 세계도시 엑스포 북측 참가 제의
- 유경호텔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어려움 전달</td></tr>
<tr><td>2008</td><td>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사업지원</td><td>ㅇ 시　　기 : 2008년 4월
ㅇ 지원금액 : 296,000,000원
ㅇ 위　　치 : 평양시 제1인민병원 內 구강병동
ㅇ 면　　적 :
- 연 면 적 : 1,000㎡, 2층
- 건축면적 : 752.4㎡(228평)
ㅇ 지원방식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업무위탁 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내역 : 물품지원
- 의료부문 : 유니트체어, 엑스레이 촬영기, 컴프레셔, 소독기 外
- 건축부문 : 출입문(샷시), 텍스트 마감재, 페인트, 수전설비 外
ㅇ 지원성과 :
- 의료시설 지원을 통한 북측 구강보건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여
-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상호 이해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td></tr>
</table>

<table>
<tr><th>연도</th><th>사업현황</th><th>내용</th></tr>
<tr><td rowspan="2">2008</td><td>인천시 대표단
평양방문</td><td>○ 기　　간 : 2008년 10월 6일 ~ 10월 8일
○ 소요경비 : 96,000,000원
○ 방문인원 : 79명
<table>
<tr><th>시</th><th>의회</th><th>군·구</th><th>대학교</th><th>경제계</th></tr>
<tr><td>9</td><td>5</td><td>2</td><td>1</td><td>2</td></tr>
<tr><td>시민단체</td><td>유관기관</td><td>인발연</td><td>언론</td><td>우리겨레</td></tr>
<tr><td>2</td><td>5</td><td>1</td><td>3</td><td>49</td></tr>
</table>
○ 방문경로 : 북한 민항기 이용(직항, 고려항공 JS615)
○ 면 담 자 : 리충복(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外
○ 주요내용 :
– 평양 치과병원 준공식 참가
–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사업 현장 방문
– VIP 간담회 : 인천시 제안사항→북측 긍정적 검토
–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사업 현장 방문
♦ 평양창광거리 살림집 지원 마무리, 시민들의 평양 방문
♦ 도시축전 참가, 교향악단 및 체육교류 등 상호교류</td></tr>
<tr><td>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 사업 지원</td><td>○ 기　　간 : 2008년 9월 ~12월
○ 지원금액 : 1,007,000,000원
○ 지원방식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업무위탁 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비 지원
○ 사업형태 : 물품지원(음식점 현대화 및 주변관광미화 등)
○ 물품내역 : 냉온풍기, 냉장고, 그릇소독기 등 30종</td></tr>
<tr><td>2009</td><td>남북 축구팀(프로팀/
유소년팀) 친선경기
대회 참가 지원</td><td>○ 참가기간 : 2009년 2월 5일 ~ 2월 27일
– 유소년팀 : 2월 1일 ~ 2월 20일
– 제1회 HONGTA배 한·중·조 클럽축구 최강전
○ 장　　소 : 중국 쿤밍(홍타 스포츠 센터)
○ 지원금액 : 100,000,000원
○ 주　　관 : (사)남북체육교류협회
○ 지원방식 : ㈜인천시민프로축구단과 업무위탁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비 지원
○ 지원내역 : 인천 대표단의 항공요금, 체재비 등</td></tr>
</table>

연도	사업현황	내용
2009	남북유소년 축구팀 합동전지훈련 추진	ㅇ 기　　간 : 2009년 7월 17일 ~ 8월 4일 ㅇ 소요경비 : 130,000,000원 ㅇ 장　　소 : 중국 쿤밍(홍타 스포츠 센터)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제3국에서 전지훈련 추진 ㅇ 참 가 팀 : 47개팀 107명 - 인천 ♦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 유소년 U-12팀 (선수 26명 / 스탭 6명) ♦ 인천가림초등학교 여자 유소년팀 (선수 17명 / 스텝 4명) - 북한 ♦ 4.25팀 산하 유소년 남자팀(선수 22명 / 스탭 5명) ♦ 4.25팀 산하 유소년 여자팀(선수 22명)
	대북 인도적 긴급 식량 지원	ㅇ 기간 및 경로 - 1차 : 2009년 8월 31일, 4,200톤 ♦ 중국 다롄 → 북한 남포항 - 2차 : 2009년 10월 20일 ~ 11월 25일, 4,200톤 ♦ 중국 단둥 → 북한 신의주 ※ 인천시가 지원한 옥수수 1천톤은 2차에 지원 ㅇ 총사업비 : 3,846,000,000원 - 인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 400,000,000원 (옥수수 1천 톤) ㅇ 북측 수령기관 : 민족화해협의회 ㅇ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0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	ㅇ 기　　간 : 2010년 9월 ㅇ 지원물자 : 급식(빵, 콩우유가루), 선물상자 (아동내의, 사탕) ㅇ 지원금액 : 41,000,000원 ㅇ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양산원 영유아 및 산모 지원	ㅇ 기　　간 : 2010년 9월 ~ 11월 ㅇ 지원물자 : 분유 및 우유 ㅇ 지원금액 : 100,000,000원 ㅇ 주　　관 : (재)남북평화재단
	신의주지역 수해물자 지원	ㅇ 기　　간 : 2010년 9월 ~ 10월 ㅇ 지원물자 : 옥수수 700톤 ㅇ 지원금액 : 300,000,000원 ㅇ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연도	사업현황	내용
2010	어린이·장애인 지원사업	ㅇ 기　　간 : 2010년 11월 ㅇ 지원물자 : 급식재료 - 옥수수 100톤, 콩 18톤 ㅇ 지원금액 : 37,000,000원 ※ 2010년 "북한 어린이·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0년 10월 1일 : 업무협약 체결 ♦ 140,000,000원 기금지원 - 2010년 11월 13일 : 물품지원 ♦ 37,375,000원 집행 ♦ 지원물품 : 옥수수 100톤, 콩 18톤 - 2011년 5월 3일 : 사업비 정산 ♦ 102,625,000원 반납 ㅇ 북측 수령기관 : 민족화해협의회 ㅇ 주　　관 : (사)등대복지회 ※ 2010년 11월 추진 중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 - 2011년 6월 잔액 : 102,620,000원 - 콩, 밀가루, 옥수수, 설탕 등의 지원 재개 계획
	영유아 영양·의료 지원사업	ㅇ 기　　간 : 2010년 11월 ㅇ 지원물자 : 영양식 원료 - 밀가루 120톤 ㅇ 지원금액 : 58,000,000원 ㅇ 주　　관 : (사)어린이어깨동무
	수해지역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	ㅇ 기　　간 : 2010년 11월 ㅇ 지원물자 - 의약품 : 항생제, 수액세트, 영양제, 철분제 - 왕진가방 100세트 - 위생소독용품 : 소독제 ㅇ 지원금액 : 110,000,000원 ㅇ 지원경로 : 인천항 → 북한 남포항 ㅇ 북측 수령기관 : 민족화해협의회 ㅇ 주　　관 :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도	사업현황	내용
2010	고아원·양로원· 장애인 지원사업	ㅇ 기　　간 : 2010년 10월 ㅇ 지원물자 : - 식량 : 밀가루, 두유 - 생필품 : 겨울담요, 신발, 체육복 등 ※ 식량지원 : 한국제이티에스 ※ 생필품지원 : 인천시 ㅇ 지원금액 : 84,000,000원 ㅇ 지원경로 : 인천항 → 북한 남포항(선박) ㅇ 주　　관 : - (사)어린이어깨동무 - 북측 :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조성위원회
2011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지원	ㅇ 기　　간 : 2011년 5월 ~ 7월 ㅇ 수혜지역 : 북한 황해남도 7개 지역 - 해주시, 강령군, 옹진군, 벽성군,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ㅇ 지원물자 : 유충구제제, 모기향, 진단키트, 방충망 등 4종 ㅇ 지원금액 : 200,000,000원 ㅇ 주　　관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경기도 5억 공동 추진
	개성공단 인천업체 중고자전거 지원	ㅇ 기　　간 : 2011년 7월 ~ 11월 ㅇ 지원물자 : 중고자전거 500대 ㅇ 지원금액 : 33,000,000원 ㅇ 지원단체 :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2011 인천컵 국제유소년(U-13) 축구대회	ㅇ 기　　간 : 2011년 2월 15일 ~ 2월 20일 ㅇ 장　　소 : 중국 쿤밍시 홍타스포츠센터 ㅇ 주　　최 : 인천유나이티드FC, 남북체육교류협회 ㅇ 참가규모 : 4개국 4팀 116명 - 한국, 북한, 중국, 태국 ㅇ 예　　산 : 신한은행 후원

<table>
<tr><th>연도</th><th>사업현황</th><th>내용</th></tr>
<tr>
<td>2012
체육
진흥과</td>
<td>제2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td>
<td>
ㅇ기　　간 : 2012년 1월 25일 ~ 2월 3일
ㅇ장　　소 : 중국 쿤밍시 척동경기장
ㅇ주최/주관 : 인천유나이티드FC / 윈난성축구협회
ㅇ예　　산 : 273,000,000원 – 체육진흥과 기금
ㅇ참가규모 : 4개국 4팀, 선수 및 임원 185명
<table>
<tr><th>한국</th><th>북한</th><th>중국</th><th>일본</th></tr>
<tr><td>인천Utd프로축구단 산하 U-14팀
(광성중)</td><td>4.25축구단
산하
U-14팀</td><td>중국
윈난성
U-14
선발팀</td><td>요코하마
마리노스
프로축구단 산하
U-14팀</td></tr>
</table>
– 인천 선수단 : 27명(선수 24, 코칭스탭 2, 광성중 교감)
※ 북한은 훈련에는 참가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대회 시작 전 참가포기 후 복귀 1월 31일 북한과의 경기는 취소(한·중·일 3개국 풀리그 진행)
</td>
</tr>
<tr>
<td>2013
체육
진흥과</td>
<td>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td>
<td>
ㅇ기　　간 : 2013년 1월 19일 ~ 1월 30일
ㅇ장　　소 : 중국 하이난성 하이쿼우시경기장
ㅇ주최/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 윈난스광무역유한공사
ㅇ예　　산 : 275,000,000원 – 체육진흥과 기금
ㅇ참가규모 : 4개국 4팀, 선수 및 임원 175명
<table>
<tr><th>한국</th><th>북한</th><th>중국</th><th>태국</th></tr>
<tr><td>인천Utd프로축구단산하 U-15팀
(광성중)</td><td>4.25축구단
산하
U-15팀</td><td>중국
하이난하이
쿼우시 소년팀</td><td>태국
촌부리FC
U-15팀</td></tr>
</table>
※ 북한은 대회에는 참가하였으나 UN안보리 대북 제재에 반발하여 한국과의 경기 거부(무승부 처리)
</td>
</tr>
</table>

<table>
<tr><th>연도</th><th>사업현황</th><th>내용</th></tr>
<tr><td rowspan="3">2014
체육
진흥과</td><td>제4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td><td>ㅇ기　　간 : 2014년 1월 14일 ~ 1월 26일
ㅇ장　　소 : 중국 광저우시 청원 스타스포츠센터
ㅇ주최/주관 : (사)남북체육교류협회 / 윈난스광무역유한공사
ㅇ예　　산 : 195,000,000원 - 체육진흥과 기금
ㅇ참가규모 : 3개국 4팀, 선수 및 임원 179명
<table>
<tr><th>한국</th><th>중국</th><th>베트남</th><th>홍콩</th></tr>
<tr><td>인천Utd프로축구단
산하 U-15팀(2위)</td><td>광저우 23
중학교팀
(1위)</td><td>Lang son N.5
Middle
School(3위)</td><td>Lulangze
Middle
School(4위)</td></tr>
</table>
※ 북한은 당초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내부사정 등으로 사전에 불참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 홍콩팀이 대신 참가(북한 미참가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제외)</td></tr>
<tr><td>2014년 인천 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
(U-15) 축구 대회</td><td>ㅇ기　　간 : 2014년 3월 14일 ~ 3월 16일
ㅇ장　　소 : 중국 광저우시 청원 스타스포츠센터
ㅇ주최/주관 : 인천유나이티드FC / 윈난성축구협회
ㅇ예　　산 : 100,000,000원
ㅇ참가국
- 한국 : 인천가정여자중학교
- 북한 : 4.25체육단 여자유소년
- 중국 : 광저우 선발팀</td></tr>
<tr><td>북한선수단 장비지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연계)</td><td>ㅇ기　간 : 2014년 8월
ㅇ지원품목 및 수량
- 축구화 700켤레
- 양궁장비 5조
ㅇ사 업 비 : 100,000,000원
ㅇ주　　관 : (사)남북체육교류협회
ㅇ추진방법 : 통일부 반출입 승인, 제3국(중국) 경유 운반
ㅇ북한 수화자
- 인천광역시, (사)남북체육교류협회↔북한 민족화해협의회
※ 북한 지원 요청 내용 중 비전 2014 프로그램사업 지원물량 제외
<table>
<tr><th>품목</th><th>(북)요청내용</th><th>旣지원</th><th>지원내역</th></tr>
<tr><td>축구화(켤레)</td><td>1,200</td><td>500</td><td>700</td></tr>
<tr><td>양궁장비(조)</td><td>10</td><td>3</td><td>5</td></tr>
</table></td></tr>
</table>

연도	사업현황	내용
2015	남북 성인대표팀 동계훈련 및 축구대회	ㅇ 기　　간 : – 전지훈련(중국 쿤밍) : 1월 28일 ~ 2월 5일 – 축구대회(중국 청두) : 2월 2일 ~ 2월 4일 ㅇ 참 가 팀 : 3개국 3개팀 남자 성인팀 – 한국 :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 북한 : 4.25체육단 축구부 남자종합팀 – 중국 : 충칭 프로팀 ㅇ 주최/주관 : – 인천광역시,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윈난스광무역공사 ㅇ 지원금액 : 199,903,520원
2016	남북 성인 축구대회	ㅇ 스포츠 남북교류 사업 연기에 따른 비용 지급 – 금　액 : 99,000,000원 – 당초 남북 성인축구 및 양궁 교류를 1월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북한 4차 핵실험 사태로 무한연기에 따른 위약금(숙소비, 식비 등 체제비 위약금 일부) 지급 ㅇ 내　용 : – 성인축구 ♦ 기　간 : 1월 27일 ~ 2월 3일 ♦ 장　소 : 중국 윈난성 ♦ 참 가 팀 : 3개국 4개팀 (인천유나이티드 FC, 4.25·소백수 체육단, 충칭 프로축구단) – 양궁 ♦ 기　간 : 1월 18일 ~ 1월 29일 ♦ 장　소 : 중국 윈난성 ♦ 참 가 팀 : 3개국 5개팀 (인천 계양구청[남자], 경기 여주시청[여자], 4.25 체육단, 윈난성 대표팀)
2019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ㅇ 2019년 11월 11일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대북지원정보시스템) ㅇ 2019년 11월 21일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11월 21일 기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현황 – 서울 : 11월 11일 – 인천·경기 : 11월 21일
	북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사업	ㅇ 기　　간 : 2019년 12월 19일 ~ 21일 ㅇ 지원물자 : 원료의약품 12종(5,550㎏) ㅇ 지원금액 : 298,460,900원 ㅇ 주　　관 :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ㅇ 지원경로 : 중국에서 원료의약품 구입 후 북송

평화도시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

발행일 2020년 12월 11일
발　행 인천광역시
기　획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인천문화재단(남북교류사업TF)

자문위원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박원일 인천평화도시조성위원회 간사
이찬영 인천문화재단이사,
　　부평구축제위원회연출 자문위원
장금석 인천광역시 남북협력특보
정진오 인천광역시 대변인(前경인일보 편집국장)
조봉래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조선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기획위원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장수경 (사)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전유정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집 필

제1장 총론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TF 팀장
제2장 제1·2절 사업추진 배경 및 방향
　　권기태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제2장 제3절 남북교류 사업 제도 현황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3장 제1절 인적교류
　　박경수 (前)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사무국장
제3장 제2절 인도적 지원
　　장수경 (사)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제3장 제3절 스포츠 교류
　　이주영 인천일보 기자
제3장 제4절 학술/문화교류
　　김상우 (前)인천일보 기자
제3장 제5절 경제분야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제4장 제1절 남북교류사업의 평가
　　김국래 (사)인천겨레하나 정책위원장,
　　국제관계학박사
제4장 제2절 남북교류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
　　장금석 인천광역시 남북협력 특보

조사총괄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TF 김락기
기초조사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TF 곽귀철

디자인·인쇄 대신인쇄사
ISBN 978-89-966883-1-0(03340) 비매품

이 책은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 발간'사업의 결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및 집필자의 동의 없이 복사·전재·변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